

경상북도 경제산업 구조분석 및 발전 방향

최종보고서 | 2024. 04.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승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전문위원

참여연구진

김용현

경북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임규채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우석

경북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

부연구위원

목차

제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경북 경제구조 및 경쟁력 분석

제1절 경제·산업 현황	9
제2절 경북 산업 경쟁력 분석 방법	20
제3절 분석 결과	21

제 3 장 경북 산업별 기여도와 산업정책

제1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여도	47
제2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54
제3절 역대 정부의 산업정책	59
제4절 소결	74

제 4 장

경북 경제·산업 재편 당위성

제1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 비교	79
제2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개선 효과	88
제3절 제조업 40% 유지 당위성	90

제 5 장

경북 제조업 대전환 방향

제1절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석	99
제2절 추진 방향	113

표목차

〈표 2-1〉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비교	10
〈표 2-2〉 국내총생산 및 경북 지역내총생산 추이(시장가격)	12
〈표 2-3〉 전국 및 경북 총부가가치 추이(기초가격)	14
〈표 2-4〉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15
〈표 2-5〉 광업 부가가치 추이	16
〈표 2-6〉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17
〈표 2-7〉 서비스업 부가가치 추이	18
〈표 2-8〉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1987, 2021)	19
〈표 2-9〉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1985~1994)	22
〈표 2-10〉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1994~2003)	24
〈표 2-11〉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2003~2012)	26
〈표 2-12〉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2012~2021)	27
〈표 2-13〉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1985~2021)	28
〈표 2-14〉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29
〈표 2-15〉 경북 경제산업 구조변화 종합(1985~2021)	34
〈표 2-16〉 경북 산업별 입지계수 추이(1985~2021)	39
〈표 2-17〉 지역별 제조업 입지계수 분석결과(2021)	41
〈표 2-18〉 지역별 제조업 입지계수 순위 분석결과(2021)	42
〈표 2-19〉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 상위 7개 시군 현황(2021)	43
〈표 2-20〉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 하위 15개 시군 현황(2021)	44
〈표 3-1〉 경북 제조업 업종별 기여율 및 기여도 추이	48
〈표 3-2〉 서비스업 업종별 기여율 및 기여도 추이	51
〈표 3-3〉 1985~2022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54
〈표 3-4〉 1985~1994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55
〈표 3-5〉 1995~2004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56
〈표 3-6〉 2005~2014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57

〈표 3-7〉 2015~2022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58
〈표 3-8〉 김대중정부 문화산업정책	65
〈표 3-9〉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10대 국정과제	72
〈표 3-10〉 권역별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73
〈표 4-1〉 경북 전산업 업종별 종사상지위	79
〈표 4-2〉 경북 제조업 업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80
〈표 4-3〉 경북 제조업 업종별 종사상지위	81
〈표 4-4〉 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82
〈표 4-5〉 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상지위	83
〈표 4-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 당 부가가치	85
〈표 4-7〉 경북·전국 서비스업 및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실질) 비중(2015~2022)〉	87
〈표 4-9〉 경북의 산업별 평균 부가가치율(%)	88
〈표 4-10〉 경북 산업분류별 폐업·창업사업체 수 및 업력별 사업체 수(2023년 12월)	91
〈표 4-11〉 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폐업·창업사업체 수 및 업력별 사업체 수 비중	92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흐름도	4
〈그림 2-1〉 전국과 경북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10
〈그림 2-2〉 국내 총생산 및 경북 지역내총생산 추이(시장가격)	13
〈그림 2-3〉 전국 및 경북 총부가가치 추이(기초가격)	14
〈그림 2-4〉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15
〈그림 2-5〉 광업 부가가치 추이	16
〈그림 2-6〉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17
〈그림 2-7〉 서비스업 부가가치 추이	18
〈그림 2-8〉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 추이(1987~2021)	19
〈그림 2-9〉 경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추이(1985~2021)	30
〈그림 2-10〉 경북 상위 5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31
〈그림 2-11〉 경북 중위 7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32
〈그림 2-12〉 경북 하위 10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33
〈그림 2-13〉 경북 경제활동별 입지계수 추이(1985~2021)	35
〈그림 2-14〉 경북 상위 5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추이(1985~2021)	36
〈그림 2-15〉 경북 중위 7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추이(1985~2021)	37
〈그림 2-16〉 경북 하위 10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추이(1985~2021)	38
〈그림 3-1〉 경북 제조업 성장률 추이	47
〈그림 3-2〉 경북 제조업 성장률 추이	49
〈그림 3-3〉 경북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50
〈그림 3-4〉 경북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51
〈그림 3-5〉 경북 성장률과 업종별 기여도 비교	52
〈그림 3-6〉 1985~2022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54
〈그림 3-7〉 1985~1994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55
〈그림 3-8〉 1995~2004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56

〈그림 3-9〉 2005~2014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57
〈그림 3-10〉 2015~2022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58
〈그림 4-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 추이	84
〈그림 4-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당 부가가치 추이	84
〈그림 4-3〉 경북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89
〈그림 5-1〉 분과위원회 구성(안)	115

제 1 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그린·디지털 전환 시대, 국내외 산업·정책 환경의 경쟁 구도 가속화

- (그린 전환) 기후 예산 확대와 에너지 집약적 수출 제조업의 경쟁력 확충 필요
 -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에서는 국가별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면서 기후 변화에 대응
 - 2050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 등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노력
 - 기후 예산 확대와 에너지 전환에 맞는 경북의 수출 제조업 경쟁력 확충 필요
- (디지털 전환) 산업 및 비즈니스 도메인 간의 경계 파괴(big blur 현상)
 - 4 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기업의 확산으로 제조업 제조·생산 뿐만아니라 서비스 분야도 디지털전환 가속화되면서 산업간의 전통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 발생
 - 특히, 디지털 전환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쳐 미래형 일자리 창출·전환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도 영향

■ 지속가능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국가-지방-민간 연계 경제산업 전략 필요

- 現정부의 「新성장 4.0 전략」에서는 '지방 시대', '민간 주도 투자' 연계를 강조
 - 「성장전략」: 1.0 농업 중심('60s) → 2.0 제조업 중심 ('70~'90s) → 3.0 IT 중심 ('00년대 이후) → 4.0 미래산업 중심 ('23~)으로 국가 성장전략의 방향성 선도
 - 「지방시대: 지방분권-균형발전('22.7.26)」: 국정과제 112 “지방재정력 강화(행안

부, 기재부)”, 115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촉진(산업부)”, 118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진 일자리 창출(산업부)의 지방시대 구현 방안 발표

-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경제지표 분석 및 능동적 전략 수립 필요
 -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경북 산업부문별 경제지표 흐름을 분석하고 성장·유지·쇠퇴의 산업군을 식별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 필요
 - 비교우위 기반 경북 주력산업의 경쟁력 분석을 통해 유망산업 육성 및 특화 전략 발굴 필요

2. 연구 목적

■ 경북 산업부문별 경쟁력 분석을 통한 경제·산업 재편 전략 제언

- (목적 1) 경북 산업·부문별 경제지표 변화 흐름과 정책 상관성 비교·분석
- (목적 2) 산업·부문별 경쟁력 분석 및 산업별 기여도
- (목적 3) 경북 경제산업 재편 당위성 제시



〈그림 1-1〉 연구 흐름도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전역을 공간적 범위로 선정
 - 필요시 경북 인접 시도 및 국외 (주요 수출국 등)로 확대 가능

■ 시간적 범위

- 2024년 ~ 2028년

■ 내용적 범위

- 경북 산업·부문별 경제지표 분석
- 경북 경제구조 및 산업 경쟁력 분석
- 경북 산업별 기여도와 산업구조 전환 분석
- 경북 경제산업 재편 당위성 제시

2. 연구 방법

- 국내 관련 연구보고서 및 정책자료 검토
- 국내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자문 실시
- 관련 통계자료 분석

제 2 장

경북 경제구조 및 경쟁력 분석

제1절 경제·산업 현황

제2절 경북 산업 경쟁력 분석

제3절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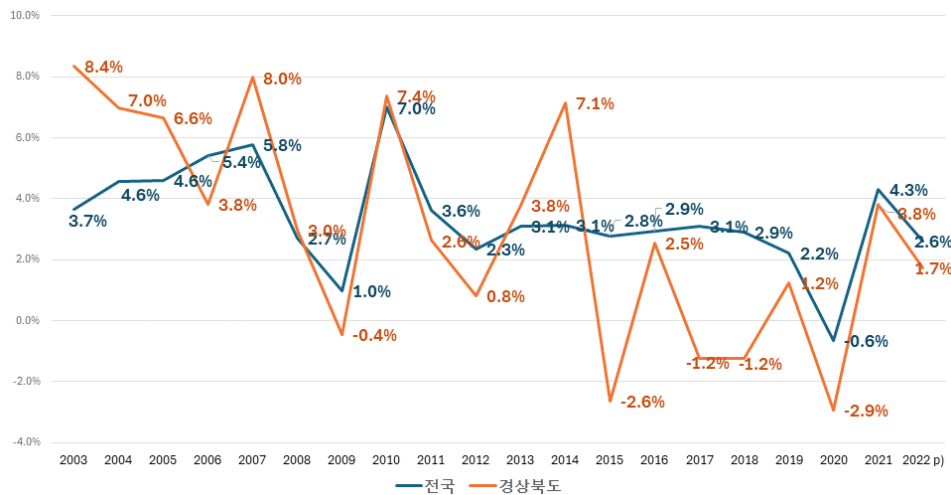
제2장 경북 경제구조 및 경쟁력 분석

제1절 경제·산업 현황

1. 경제

■ 20년간 경북 경제성장률 변화

- 경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국 대비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성장률 둔화
- 최근 20 년간 경북 연평균 성장률은 2.5%로 전국 연평균 성장률 3.2%보다 하회
 - 특히, 10 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2013 년) 1.0%로 국내(2.7%)보다 큰 폭으로 하회
- 2015 년(-2.6%), 2017 년(-1.2%), 2018 년(-1.2%), 2020 년(-2.9%)은 지역 경제 역성장
 - 외환위기 이전(1984~1997)은 연평균 8%대의 제조업 위주의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금융위기(2009~2015) 이후 연평균 성장률은 2.7% 크게 하락
 - 2015 년(-2.6%) 역성장한 이유는 경북 지역내총생산 중 지역 주력제조업인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의 실질기여도가 -5.17%p 로 급감
 - 이는 2014 년 경북 구미 삼성전자의 생산 물량이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대량 이전하였고, 모바일 공장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성장률 역성장, 또한, 1~2 차 하청업체 베트남 이전계획에 따른 야간 생산라인 등의 철수 및 축소의 영향
 - 2020 년(-2.9%)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성장률 크게 하락한 이후, 2021 년(3.8%) 코로나 19 의 기저효과로 성장률 크게 상승



〈그림 2-1〉 전국과 경북의 경제성장률(%) 변화 추이

■ 5년간 경제성장률 변화

- (경북 경제성장률) 2019 년 1.1% → 2020 년 0.9% → 2021 년 3.1% → 2022 년(잠정) 2.3% → 2023 년(추정) 1.1% → 2024 년(전망) 2.1%
- 2024 년 제조업 부진과 서비스업 회복 지연이 예상되지만 2023 년 대비 기저효과와 주력제품 수출과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상승효과로 개선 전망

〈표 2-1〉 최근 5년간 경제성장률 비교

경제성장률(%)		2019	2020	2021	2022 (잠정)	2023 (추정)	2024
전국	전망	2.7	2.2	4.0	3.0	1.4	2.1
	실측	2.2	-0.6	4.3	2.6	-	-
경북	전망	1.1	0.9	3.1	2.3	1.1	2.1
	추정	-0.3	-3.0	1.3	1.7	1.1	-
	실측	1.2	-2.9	3.8	1.7	-	-

※ 2019~2022년(통계청 지역소득추계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
2023~2024년(경북연구원 추정치 및 전망치, 전국은 한국은행 발표)

■ 5년간 경제 지표별 경북 경제 변화

- (산업생산) '21 년은 코로나 19 팬데믹의 기저효과 영향으로 제조업생산이 증가했
지만 이후 글로벌 경제 둔화 및 수출 감소에 따른 생산 감소세 지속, 서비스업생산

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시점인 '21 년 이후 증가세

- (제조업생산지수, yoy) ('19) $\Delta 2.7\%$ $\rightarrow$ ('20) $\Delta 6.5\%$ $\rightarrow$ ('21) 5.2% $\rightarrow$ ('22) $\Delta 2.5\%$ $\rightarrow$ ('23) $\Delta 4.3\%$
- (서비스업생산지수, yoy) ('19) 1.0% $\rightarrow$ ('20) $\Delta 4.4\%$ $\rightarrow$ ('21) 5.2% $\rightarrow$ ('22) 5.6% $\rightarrow$ ('23) 2.1%

○ (고용)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북은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약해져 제조업 경기 부진 및 제조업 공정의 자동화에 따라 단순노무직 감소 추세로 제조업 취업자수 감소세, 서비스업은 팬데믹 이후 서비스업의 점진적 회복으로 소폭 증가

- (취업자수, yoy) ('19) 0.3% $\rightarrow$ ('20) $\Delta 0.8\%$ $\rightarrow$ ('21) $\Delta 0.6\%$ $\rightarrow$ ('22) 3.7% $\rightarrow$ ('23) 0.0%
- (제조업 취업자수, yoy) ('19) 5.1% $\rightarrow$ ('20) $\Delta 2.3\%$ $\rightarrow$ ('21) $\Delta 3.1\%$ $\rightarrow$ ('22) 3.8% $\rightarrow$ ('23) $\Delta 11.3\%$
- (서비스업 취업자수, yoy) ('19) 0.7% $\rightarrow$ ('20) 3.2% $\rightarrow$ ('21) $\Delta 6.4\%$ $\rightarrow$ ('22) $\Delta 4.4\%$ $\rightarrow$ ('23) 0.9%

○ (소매판매) 최근 5 년간 소비의 프리미엄화로 소비 주요층 소비처가 디지털 전환(인터넷몰 등)과 맞물려 1 인 가구 증가에 따른 편의점, 슈퍼로의 소비 이동으로 대형소매점 매출 감소 추세

- (대형소매점, yoy) ('19) $\Delta 5.3\%$ $\rightarrow$ ('20) $\Delta 4.4\%$ $\rightarrow$ ('21) 3.8% $\rightarrow$ ('22) $\Delta 4.1\%$ $\rightarrow$ ('23) $\Delta 6.4\%$
- (대형마트, yoy) ('19) $\Delta 5.8\%$ $\rightarrow$ ('20) $\Delta 2.4\%$ $\rightarrow$ ('21) 2.2% $\rightarrow$ ('22) $\Delta 6.1\%$ $\rightarrow$ ('23) $\Delta 7.5\%$

○ (물가) 팬데믹 이전인 '19 년까지는 저물가 지속, '21 년부터 한국은행 목표물가 (2.0%)를 상회하는 고물가가 지속되며 '22 년에는 물가 최고치 기록, 경북은 특·광역시보다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농축산물의 인상 영향이 크게 작용

- (소비자물가, yoy) ('19) 0.2% $\rightarrow$ ('20) 0.1% $\rightarrow$ ('21) 2.7% $\rightarrow$ ('22) 5.8% $\rightarrow$ ('23) 3.3%
- (생활물가, yoy) ('19) $\Delta 0.1\%$ $\rightarrow$ ('20) $\Delta 0.2\%$ $\rightarrow$ ('21) 3.5% $\rightarrow$ ('22) 6.6% $\rightarrow$ ('23) 3.4%

2. 산업

■ 경북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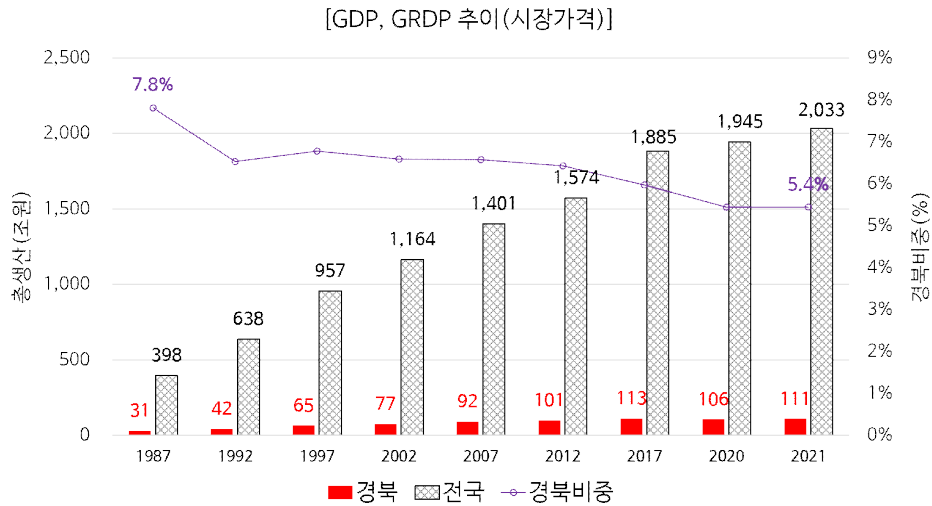
- 경북지역 총생산(GRDP)은 지난 35 년간('87~'21) 연평균 3.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최근 10 년('12~'21)에는 연평균 1.0% 성장에 그침
 - 2020 년 불변가격 기준, 경북 GRDP 는 '87 년 31.1 조 원에서 '12 년에 100 조 원을 돌파, '17 년 112.7 조 원까지 증가한 후 '20 년 105.8 조 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1 년 110.5 조 원으로 반등
 - *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경북 GRDP 는 '87 년 9.7 조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7 년 110 조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에 '20 년 105.8 조 원까지 감소, '21 년 113.3 조 원을 기록
- 경북 GRDP 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5 년간 연평균 1.1%p 감소, 최근 10 년에는 연평균 1.9%p 감소
 - 2020 년 불변가격 기준, GDP 에서 차지하는 경북 GRDP 의 비중은 '87 년 7.8%에서 매년 축소되어 '17 에는 6.0%로 낮아졌고, '21 년에는 5.4%로 축소

〈표 2-2〉 국내총생산 및 경북 지역내총생산 추이(시장가격)

(단위 : 조 원, %, %p)

연도		명목 가격		실질 가격 (2020=100)			
		전국 GDP	경북 GRDP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GDP	경북 GRDP	(비중)
1987		124.6	9.7	31.3	398.3	31.1	(7.8)
1992		285.2	18.6	44.7	638.2	41.7	(6.5)
1997		545.1	37.0	57.0	956.8	64.9	(6.8)
2002		786.4	51.8	67.5	1,164.4	76.8	(6.6)
2007		1,093.2	71.8	78.0	1,401.4	92.1	(6.6)
2012		1,445.4	93.0	91.8	1,574.2	101.3	(6.4)
2017		1,840.3	110.0	97.6	1,884.7	112.7	(6.0)
2020		1,944.6	105.8	100.0	1,944.6	105.8	(5.4)
2021		2,083.8	113.3	102.5	2,033.0	110.5	(5.4)
C A R	35년('87~'21)	8.6	7.5	-	4.9	3.8	(-1.1)
	30년('92~'21)	7.1	6.4	-	4.1	3.4	(-0.6)
	20년('02~'21)	5.3	4.2	-	3.0	1.9	(-1.0)
	10년('12~'21)	4.1	2.2	-	2.9	1.0	(-1.9)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2〉 국내 총생산 및 경북 지역내총생산 추이(시장가격)

■ 경북 총부가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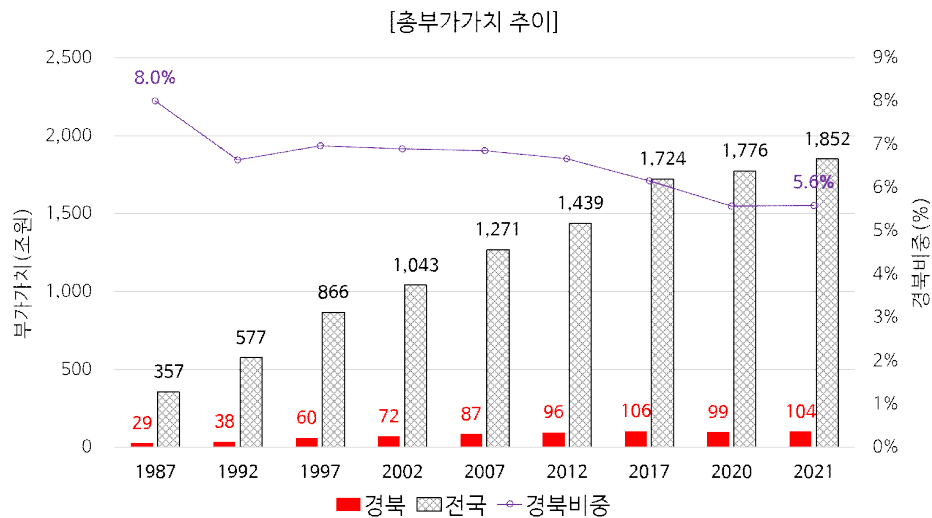
- 경북지역 총부가가치는 지난 35년간('87~'21) 연평균 3.9% 성장, 최근 10년('12~'21) 연평균증가율은 0.9%로 저조
 - 2020년 불변가격 기준, 경북지역 총부가가치는 '87년 21.6조 원에서 '14년에 100조 원을 돌파, '17년 106.3조 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20년 99.1조 원까지 감소하였다가 '21년 103.6조 원으로 다시 증가
 - *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경북지역 총부가가치는 '87년 9조 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6년에 100조 원을 돌파, '17년 103.8조 원으로 정점으로 '20년 99.1조 원까지 감소, '21년 106.2조 원으로 반등
- 경북 총부가가치가 전국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5년간 연평균 1.0%p 감소, 최근 10년에는 연평균 1.9%p 감소
 - 2020년 불변가격 기준, 전국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경북의 비중은 '87년 8.0%에서 매년 축소되어 '21년에는 5.6%로 축소

〈표 2-3〉 전국 및 경북 총부가가치 추이(기초가격)

(단위 : 조 원, %, %p)

연도		명목 가격		실질 가격 (2020=100)			
		전국	경북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경북	(비중)
		총부가가치	총부가가치		총부가가치	총부가가치	
1987		111.8	9.0	31.3	357.3	28.6	(8.0)
1992		257.9	17.1	44.7	577.3	38.3	(6.6)
1997		493.5	34.4	57.0	866.2	60.4	(7.0)
2002		704.4	48.6	67.5	1,043.0	72.0	(6.9)
2007		991.3	68.0	78.0	1,270.7	87.1	(6.9)
2012		1,321.3	88.1	91.8	1,439.1	96.0	(6.7)
2014		1,437.6	98.2	94.2	1,526.2	104.3	(6.8)
2016		1,595.7	101.5	95.8	1,666.0	106.0	(6.4)
2017		1,683.5	103.8	97.6	1,724.1	106.3	(6.2)
2020		1,775.8	99.1	100.0	1,775.8	99.1	(5.6)
2021		1,898.8	106.2	102.5	1,852.5	103.6	(5.6)
C A G R	35년('87~'21)	8.7	7.5	-	5.0	3.9	(-1.0)
	30년('92~'21)	7.1	6.5	-	4.1	3.5	(-0.6)
	20년('02~'21)	5.4	4.2	-	3.1	1.9	(-1.1)
	10년('12~'21)	4.1	2.1	-	2.8	0.9	(-1.9)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3〉 전국 및 경북 총부가가치 추이(기초가격)

■ 경북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 경북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지난 30 년간 정체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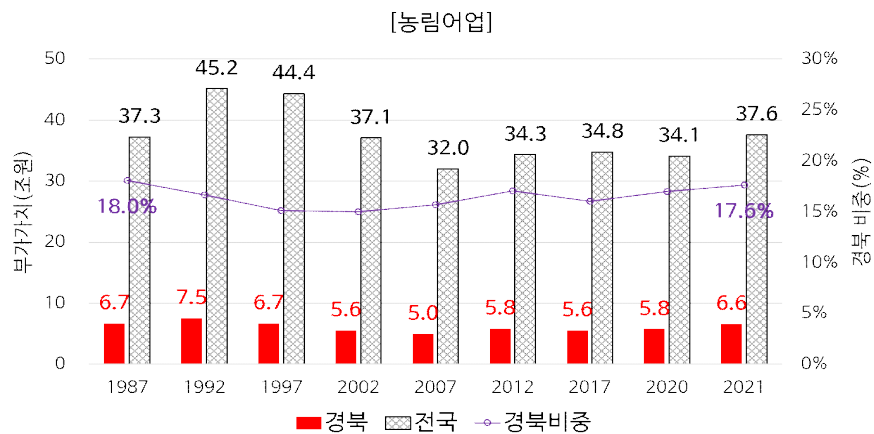
- 경북 농림어업 부가가치는 '87 년 6.7 조 원에서 '21 년 6.6 조 원으로 0.1 조 원 감소, 동기간 전국 대비 비중은 18.0%에서 17.6%로 0.4%p 감소

〈표 2-4〉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조 원, %, %p)

연도	명목 가격		실질 가격 (2020=100)			
	전국 GDP	경북 GRDP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GDP	경북 GRDP	(비중)
1987	11.662	2.104	31.3	37.268	6.723	(18.0)
1992	20.177	3.362	44.7	45.154	7.523	(16.7)
1997	25.277	3.822	57.0	44.364	6.708	(15.1)
2002	25.056	3.757	67.5	37.101	5.563	(15.0)
2007	24.974	3.913	78.0	32.014	5.016	(15.7)
2012	31.535	5.371	91.8	34.347	5.850	(17.0)
2017	33.981	5.439	97.6	34.801	5.570	(16.0)
2020	34.090	5.786	100.0	34.090	5.786	(17.0)
2021	38.535	6.777	102.5	37.595	6.612	(17.6)
C 35년('87~'21)	3.6	3.5	-	0.0	-0.0	(-0.1)
A 30년('92~'21)	2.3	2.4	-	-0.6	-0.4	(0.2)
G 20년('02~'21)	2.3	3.2	-	0.1	0.9	(0.8)
R 10년('12~'21)	2.3	2.6	-	1.0	1.4	(0.4)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주 : 연도별 부가가치액은 2020년 기준 불변가격 자료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4〉 농림어업 부가가치 추이

○ 경북 광업 부가가치는 지난 30년간 연평균 1.9% 감소, 최근 10년간 전국보다 높은 감소 폭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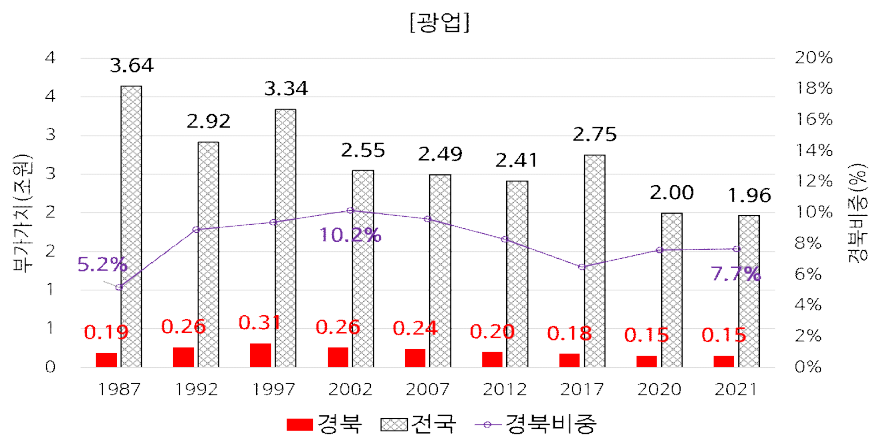
– 경북지역의 광업 부가가치는 '87년 1.9천억 원에서 '21년 1.5천억 원으로 약 4백억 원 감소, 동기간 전국 대비 비중은 5.2%에서 7.7%로 2.5%p 증가

〈표 2-5〉 광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조 원, %, %p)

연도		명목 가격		실질 가격 (2020=100)			
		전국 GDP	경북 GRDP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GDP	경북 GRDP	(비중)
1987		1.140	0.059	31.3	3.644	0.189	(5.2)
1992		1.304	0.116	44.7	2.918	0.260	(8.9)
1997		1.904	0.179	57.0	3.341	0.314	(9.4)
2002		1.720	0.175	67.5	2.547	0.259	(10.2)
2007		1.944	0.187	78.0	2.492	0.239	(9.6)
2012		2.217	0.184	91.8	2.415	0.200	(8.3)
2017		2.683	0.175	97.6	2.747	0.179	(6.5)
2020		1.995	0.152	100.0	1.995	0.152	(7.6)
2021		2.011	0.154	102.5	1.962	0.151	(7.7)
C A R	35년('87~'21)	1.7	2.9	-	-1.8	-0.7	(1.2)
	30년('92~'21)	1.5	1.0	-	-1.4	-1.9	(-0.5)
	20년('02~'21)	0.8	-0.7	-	-1.4	-2.8	(-1.5)
	10년('12~'21)	-1.1	-1.9	-	-2.3	-3.1	(-0.9)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주 : 연도별 부가가치액은 2020년 기준 불변가격 자료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5〉 광업 부가가치 추이

○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는 최근 10년간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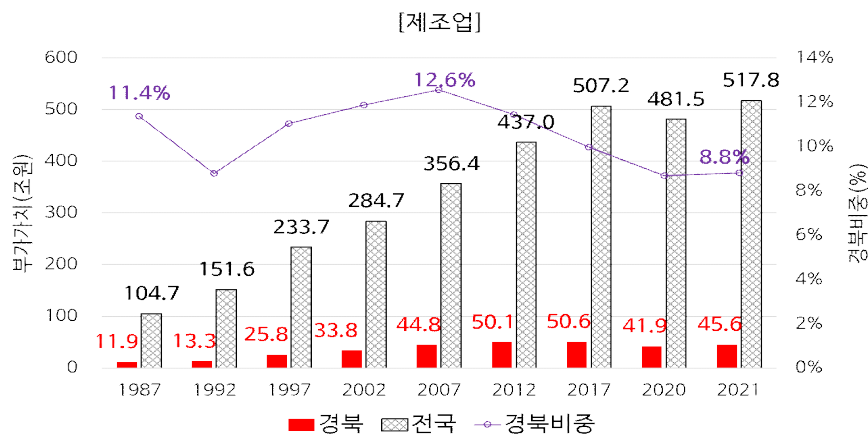
- 경북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87년 11.9조 원에서 '21년 45.6조 원으로 연평균 4.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근 10년간('12~'21) 부가가치는 50.1조 원에서 45.6조 원으로 연평균 1.0% 감소하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임

〈표 2-6〉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조 원, %, %p)

연도		명목 가격		실질 가격 (2020=100)			
		전국 GDP	경북 GRDP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GDP	경북 GRDP	(비중)
1987		32.8	3.7	31.3	104.7	11.9	(11.4)
1992		67.7	5.9	44.7	151.6	13.3	(8.8)
1997		133.2	14.7	57.0	233.7	25.8	(11.0)
2002		192.2	22.8	67.5	284.7	33.8	(11.9)
2007		278.1	34.9	78.0	356.4	44.8	(12.6)
2012		401.3	46.0	91.8	437.0	50.1	(11.5)
2017		495.3	49.4	97.6	507.2	50.6	(10.0)
2020		481.5	41.9	100.0	481.5	41.9	(8.7)
2021		530.8	46.8	102.5	517.8	45.6	(8.8)
CAGR	35년('87~'21)	8.5	7.7	-	4.8	4.0	(-0.7)
	30년('92~'21)	7.4	7.4	-	4.3	4.3	(0.0)
	20년('02~'21)	5.5	3.9	-	3.2	1.6	(-1.6)
	10년('12~'21)	3.2	0.2	-	1.9	-1.0	(-2.9)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주 : 연도별 부가가치액은 2020년 기준 불변가격 자료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6〉 제조업 부가가치 추이

○ 경북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지난 35 년간 연평균 5.2%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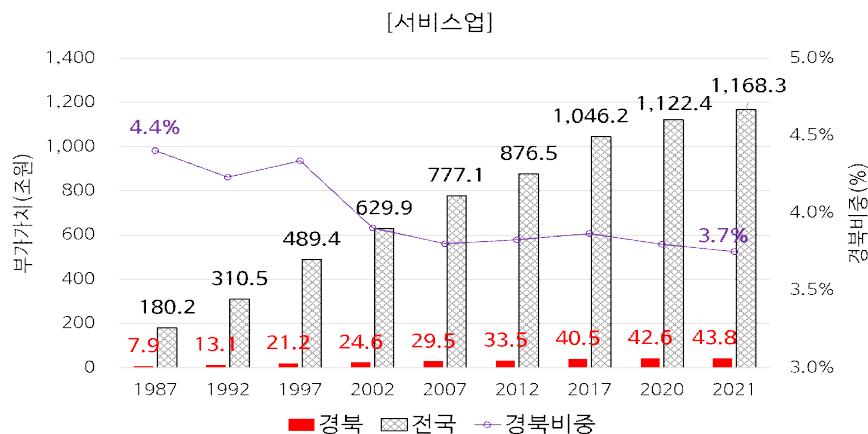
- 2021 년 기준 경북지역의 서비스업 부가가치는 43.8 조 원으로 제조업 부가가치와 유사한 수준까지 증가, 그러나 경북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전국 대비 비중은 3.7%로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의 전국 대비 비중(8.8%)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

〈표 2-7〉 서비스업 부가가치 추이

(단위 : 조 원, %, %p)

연도		명목 가격		실질 가격 (2020=100)			
		전국 GDP	경북 GRDP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 GDP	경북 GRDP	(비중)
1987		56.4	2.5	31.3	180.2	7.9	(4.4)
1992		138.7	5.9	44.7	310.5	13.1	(4.2)
1997		278.9	12.1	57.0	489.4	21.2	(4.3)
2002		425.4	16.6	67.5	629.9	24.6	(3.9)
2007		606.2	23.0	78.0	777.1	29.5	(3.8)
2012		804.7	30.8	91.8	876.5	33.5	(3.8)
2017		1,021.6	39.5	97.6	1,046.2	40.5	(3.9)
2020		1,122.4	42.6	100.0	1,122.4	42.6	(3.8)
2021		1,197.6	44.9	102.5	1,168.3	43.8	(3.7)
C A G R	35년('87~'21)	9.4	8.9	-	5.7	5.2	(-0.5)
	30년('92~'21)	7.7	7.3	-	4.7	4.2	(-0.4)
	20년('02~'21)	5.6	5.4	-	3.3	3.1	(-0.2)
	10년('12~'21)	4.5	4.3	-	3.2	3.0	(-0.2)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주 : 연도별 부가가치액은 2020년 기준 불변가격 자료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7〉 서비스업 부가가치 추이

■ 경북지역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 현황

○ 2021 년 경북 총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산업별 비중은 ‘광·제조업’ 44.2%, ‘서비스업’ 42.3%, ‘농림어업’ 6.4%, ‘기타산업’ 7.1% 순임

* ‘광업’은 0.1%, 기타산업은 ‘건설업’ 5.1%,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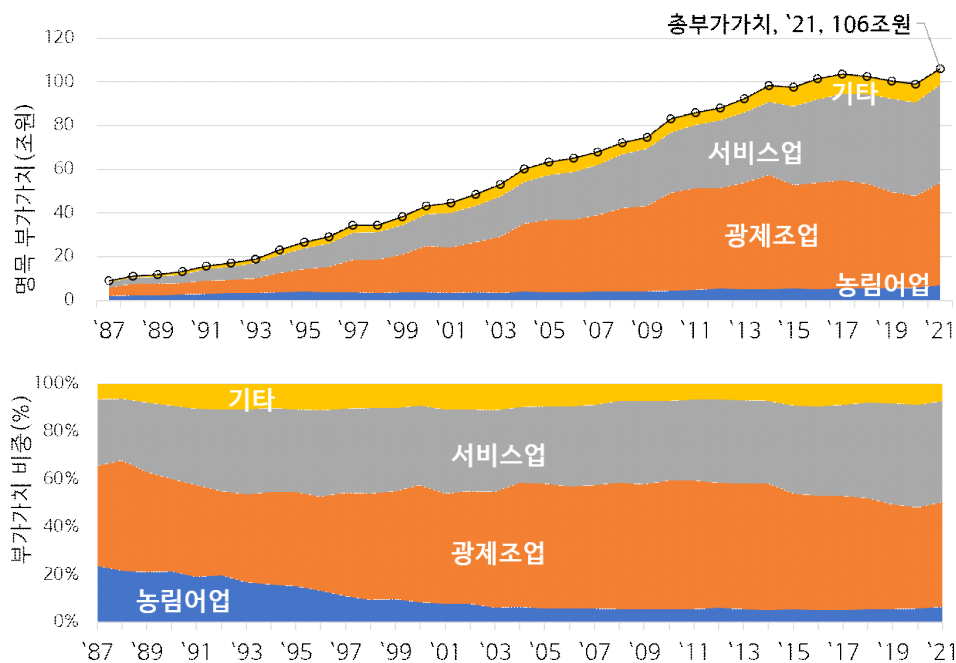
○ 최근 35 년간(’87~’21)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순서는 변동이 없었으나, 농림어업 비중은 17.1%p 감소하였고, 서비스업 비중은 14.5%p 증가

〈표 2-8〉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구성비 추이(1987, 2021)

(단위 : 명목 가치, 십억 원, %)

구분	1987		2021		비중 변화 (B-A)
	부가가치	비중(A)	부가가치	비중(B)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8,952	(100.0)	106,181	(100.0)	-
농림어업	2,104	(23.5)	6,777	(6.4)	△17.1
광제조업	3,782	(42.2)	46,928	(44.2)	1.9
서비스업	2,483	(27.7)	44,895	(42.3)	14.5
기타	583	(6.5)	7,580	(7.1)	0.6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8〉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및 비중 추이(1987~2021)

제2절 경북 산업 경쟁력 분석방법

1. 경북 경제산업 구조변화 분석

- 연도별·산업별 지역내총생산(GRDP) 구성비 변화 분석을 통해 지역내 상대적 성장·유지·쇠퇴 산업 식별
 - (분석자료) 경북 GRDP 중 순생산물세를 제외한 부가가치
 - * 연도별·산업별 동등한 금액 변화 비교를 위해 소비자물가지수(2020=100)를 활용하여 명목가치를 실질가치로 환산
 -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10 차 개정 기반 통계청 '경제활동분류' 22 개 대분류
 - (분석기간) 가장 최근인 2021 년을 기준으로 과거 10 개년 간격 4 개 구간 구분, 총 37 년을 분석기간으로 선정
 - * (4 개 구간) '85~'94, '94~'03, '03~'12, '12~'21,
 - (분석내용)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85~'21), 4 개 구간별 부가가치·구성비·CAGR 등

2. 경북 경제산업 경쟁력 분석방법

- 연도별·산업별 비교우위를 분석하여 전국 대비 상대적 특화산업 도출
 - (입지계수) 지역내 산업의 산출액이 해당 지역에서 차지한 비중, 이 비중이 해당 산업의 전국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
 - $LQ_i = \frac{X_i^a / X_i}{X^a / X}$
 - * LQ : Location Quotient
 - * X : 산출액, a : 산업, i : 지역
 - 입지계수를 기준으로 경북지역 산업의 전국 대비 상대적 특화도 제시

제3절 분석 결과

1. 경북 경제산업 구조변화

1) 10년 간격 경제산업 구조변화(기간 내 변화)

(1) 1985~1994년

■ 대부분 산업 부가가치 증가, 경북 총부가가치 연평균 8.9% 증가

- 경북 총부가가치는 1985 년 21.6 조 원에서 1994 년 46.6 조 원으로 연평균증가율(CAGR) 8.9% 기록
- 1985~1994 년 모든 연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부문은 농림어업으로 나타났다으며, 2~3 위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과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가 순위를 다툰 것으로 나타남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은 '86 년과 '88 년, 그리고 '94 년에 3 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7 개년에서 2 위를 차지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이 3 위를 차지한 '86 년과 '88 년, 그리고 '94 년에 2 위를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7 개년에서 3 위를 차지
- 22 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는 '85~'94 년 기간에 연평균 최소 1.9%(농림어업)에서 최대 23.8%(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증가
- 부가가치 CAGR 의 크기는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금융 및 보험업 순으로 나타남
 - 기계 운송 장비 및 기타 제품의 부가가치는 '85 년 25 백억 원에서 '94 년 1 조 7 천억 원으로 연평균 23.8% 증가
 -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의 경우 '85 년 33 백억 원에서 '94 년 1 조 8 천억 원으로 연평균 20.6% 증가

- 금융 및 보험업 부가가치는 '85년 24 백 억원에서 '94년 1 조 2 천억 원으로 연평균 19.1% 증가

○ 한편, '85~'94년 경북지역 상위 3대 산업부문의 부가가치는 연평균증가율이 중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농림어업의 부가가치는 '85년 6 조 2 천억 원에서 '94년 7 조 3 천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1.9%(22 위)에 그침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은 동기간 2.9 조 원에서 5.1 조 원으로 6.4%(19 위)의 CAGR 기록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의 경우, 동기간 2.4 조 원에서 5.7 조 원으로 연평균 10.3%(12 위) 증가

〈표 2-9〉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1985~1994)

(단위 : 조 원, %)

구분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CA GR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1.6	24.9	28.6	33.5	33.3	34.2	37.6	38.3	40.7	46.6	8.9
A. 농림어업	6.20	6.07	6.72	7.21	6.96	7.34	7.13	7.52	6.88	7.32	1.9
B. 광업	0.15	0.17	0.19	0.21	0.23	0.27	0.29	0.26	0.28	0.38	10.8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0.60	0.64	0.73	0.78	0.80	0.79	0.86	0.93	1.01	8.4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1.01	1.26	1.39	1.64	1.45	1.72	1.71	1.48	1.63	5.5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14	0.18	0.22	0.29	0.37	0.37	0.47	0.44	0.58	17.0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0.33	0.42	0.52	0.73	0.84	0.80	1.03	0.97	1.49	20.6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2.89	3.42	4.20	5.02	4.81	4.63	5.51	4.84	4.92	6.4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37	3.53	4.17	5.98	4.72	4.03	3.62	3.33	4.05	10.3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0.25	0.47	0.66	0.86	0.80	0.89	1.05	1.11	1.34	23.8
		0.58	0.61	0.65	0.66	0.88	1.04	1.12	1.08	1.13	7.1
	F. 건설업	0.84	1.02	1.21	1.44	1.76	2.13	2.76	2.99	3.25	17.7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0.82	0.96	1.12	1.22	1.19	1.18	1.22	1.22	1.51	8.3
	H. 운수 및 창고업	0.81	0.88	0.91	0.99	1.02	1.08	1.17	1.28	1.41	6.3
	I. 숙박 및 음식점업	0.54	0.72	0.86	0.90	1.11	0.97	0.96	1.11	1.08	10.3
	J. 정보통신업	0.30	0.32	0.40	0.45	0.50	0.48	0.64	0.54	0.64	11.7
	K. 금융 및 보험업	0.24	0.29	0.35	0.46	0.53	0.54	0.70	0.89	0.91	19.1
	L. 부동산업	0.48	0.50	0.56	0.62	0.72	1.00	1.24	1.57	1.82	18.9
	N. 사업서비스업	0.24	0.26	0.29	0.33	0.39	0.54	0.86	0.69	0.81	18.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3	1.36	1.51	1.57	1.72	1.87	2.11	2.35	2.53	8.7
	P. 교육 서비스업	0.99	1.09	1.17	1.26	1.45	1.67	1.81	1.95	2.16	9.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30	0.33	0.36	0.41	0.48	0.55	0.62	0.72	0.76	11.6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31	0.36	0.41	0.47	0.54	0.64	0.71	0.81	0.80	12.4

주 : 연도별 부가가치는 2020년 기준 불변가액 환산 자료.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1~3위 표시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 1994~2003년

■ 농림어업 및 광제조업 부가가치 감소, 경북 총부가가치 연평균 5.6% 증가

- 경북 총부가가치는 1994 년 46.6 조 원에서 2003 년 76.1 조 원으로 연평균증가율(CAGR) 5.6% 기록
- 1995 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큰 산업부문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로 나타났으며, '96~'97 년까지 농림어업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이 각각 2 위와 3 위를 차지, 이후 '02 년까지 두 산업부문간 순위 역전
 - 2003 년 경북 부가가치 3 위는 건설업이 차지, 농림어업은 4 위로 밀려남
- '94~'03 년 기간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의 CAGR 은 증가 부문이 17 개 산업(업종), 감소 부분은 5 개 산업(업종)으로 나타남
 - 산업부문별로 부가가치의 CAGR 을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 부문은 증가, 농림어업과 광업은 감소
 - 서비스업의 경우 11 개 업종 중 10 개 업종이 증가, 제조업 부문은 7 개 업종 중 5 개 업종이 증가
- 부가가치 CAGR 의 크기는 기계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정보통신업 순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의 부가가치는 '94 년 5.7 조 원에서 '03 년 19.7 조 원으로 연평균 14.7% 증가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경우 '94 년 1.1 조 원에서 '03 년 3.0 조 원으로 연평균 11.9% 증가
 - 정보통신업의 부가가치는 '94 년 8.2 천억 원에서 '03 년 2 조 원으로 연평균 10.5% 증가
- 한편, '85~'94 년 경북 3 대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2 대 산업에서 성장률 감소

-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CAGR 은 '85~'94 년 1.9%에서 '94~'03 년 -4.9%로 마이너스 성장,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도 동기간 6.4%에서 5.4%로 성장률 감소

〈표 2-10〉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1994~2003)

(단위 : 조 원, %)

구분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CA GR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46.6	51.1	53.3	60.4	56.4	61.9	68.4	68.1	72.0	76.1	5.6
A. 농림어업	7.32	7.82	7.14	6.71	5.30	6.04	5.72	5.29	5.56	4.66	△4.9
B. 광업	0.38	0.40	0.33	0.31	0.27	0.32	0.23	0.22	0.26	0.14	△10.5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24	1.07	1.12	1.16	1.04	1.09	1.11	1.12	1.20	0.7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1.63	1.65	1.91	2.35	2.53	2.77	3.11	2.17	1.77	△0.6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58	0.44	0.40	0.42	0.31	0.41	0.43	0.46	0.54	△1.2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1.81	2.17	2.00	2.51	2.55	2.40	2.59	2.89	3.35	7.3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5.06	5.51	5.74	6.50	6.37	6.59	7.50	7.59	7.40	5.4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5.73	7.41	7.92	11.06	10.83	12.86	16.75	15.30	17.52	14.7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1.70	1.35	1.56	1.81	1.22	1.47	1.98	1.85	2.00	2.1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8	1.05	1.04	1.15	1.57	2.16	2.40	3.02	3.11	2.96	11.9
F. 건설업	3.65	4.42	4.83	5.16	4.07	4.05	3.75	4.29	4.66	5.39	4.4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1.68	2.03	2.18	2.12	1.78	1.90	2.23	2.40	2.50	4.9
	H. 운수 및 창고업	1.39	1.53	1.57	1.74	1.74	1.76	1.93	1.77	1.70	3.6
	I. 숙박 및 음식점업	1.30	1.02	1.13	1.14	1.01	1.23	1.23	1.33	1.10	△0.4
	J. 정보통신업	0.82	0.87	1.06	1.19	1.10	1.36	1.35	1.69	1.87	10.5
	K. 금융 및 보험업	1.18	1.32	1.55	1.79	1.46	1.76	1.63	1.86	2.40	8.4
	L. 부동산업	2.29	2.28	2.68	3.16	3.25	3.09	3.33	3.31	3.24	4.0
	N. 사업서비스업	1.12	1.34	1.15	1.53	1.49	1.59	1.70	1.55	1.40	5.6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61	2.90	3.13	3.34	3.41	3.60	3.67	3.85	4.00	5.5
	P. 교육 서비스업	2.31	2.51	2.72	2.84	2.70	2.81	2.93	3.15	3.36	5.1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81	0.93	1.01	1.04	1.08	1.19	1.25	1.43	1.39	7.2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87	1.05	1.16	1.34	1.31	1.48	1.60	1.61	1.64	6.9

주 : 연도별 부가가치는 2020년 기준 불변가격 환산 자료.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1~3위 표시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3) 2003~2012년

■ 주력 제조업 성장률 둔화, 경북 총부가가치 연평균증가율 2.6%

- 경북 총부가가치는 2003 년 76.1 조 원에서 2012 년 96 조 원으로 나타나 연평균 2.6% 성장에 그침

- '03~'12 년 모든 연도에서 부가가치 1 위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 위는 비금속 광물 및 금속제품으로 나타났으며, 3 위는 건설업과 농림어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이 순위를 다툼
 - 건설업은 '03 년과 '06 년에 부가가치 3 위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연도에서는 4~5 위를 차지함. 농림어업은 '04~'05 년, '07 년, '12 년에 3 위를 차지 나머지 연도에서는 모두 4 위를 차지함.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은 '08~'11 년까지 3 위를 차지, 나머지 연도에서는 4~5 위를 차지함
- '03~'12 년 기간 부가가치의 CAGR 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3 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19 개 부문이 증가, 그러나 전기('94~'03) 부가가치 CAGR 의 절반 수준 성장에 그침
 - 19 개 산업부문의 부가가치가 증가하였음에도 전기('94~'03) 부가가치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친 주요인은 경북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부분 산업의 부가가치 성장률이 축소되었기 때문임
- 부가가치 CAGR 의 크기는 사업서비스업,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순으로 나타남
 - 사업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03 년 1.8 조 원에서 '12 년 4.0 조 원으로 CAGR 은 9.0%를 기록
 -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의 경우 '03 년 2.1 조 원에서 '12 년 4.3 조 원으로 연평균 8.6% 성장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03 년 1.5 조 원에서 '12 년 2.6 조 원으로 연평균 6.2% 성장
- '94~'03 년 부가가치 성장률 1 위였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는 '03~'12 년 부가가치 성장률이 급감, 2 위였던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정보통신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전자전기 및 정밀기기의 부가가치 CAGR 은 '94~'03 년 14.7%에서 '03~'12 년 2.8%로 성장률 둔화, '03~'12 년 기간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과 정보통신업의 부가가치는 각각 연평균 8.7%와 4.1% 마이너스 성장

〈표 2-11〉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2003~2012)

(단위 : 조 원,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CA GR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76.1	83.2	85.2	85.6	87.1	88.2	89.1	96.1	95.8	96.0	2.6
A. 농림어업	4.66	5.45	5.07	5.06	5.02	4.95	4.85	5.16	5.33	5.85	2.6
B. 광업	0.14	0.22	0.25	0.24	0.24	0.23	0.26	0.20	0.23	0.20	4.0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31	1.44	1.37	1.44	1.45	1.46	1.56	1.42	1.24	0.3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1.55	1.46	1.42	1.32	1.25	1.37	1.35	1.47	1.68	0.8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52	0.50	0.47	0.50	0.53	0.43	0.51	0.47	0.51	1.5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3.40	3.31	3.68	3.32	3.47	3.42	3.31	4.22	3.94	2.0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8.12	10.77	10.88	10.12	10.61	12.17	11.76	13.34	13.73	5.1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19.73	23.27	24.10	24.12	24.52	24.64	24.90	27.09	26.27	2.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2.06	2.18	2.41	2.62	2.91	2.88	3.13	3.75	4.07	8.6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96	2.94	3.11	2.99	2.78	1.52	1.78	1.93	1.53	1.30	△8.7
F. 건설업	5.39	5.28	4.93	5.13	4.79	4.76	4.75	5.06	4.81	5.00	△0.8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2.58	2.57	2.67	2.68	2.81	2.86	2.81	3.11	3.37	3.6
	H. 운수 및 창고업	1.91	1.87	1.90	1.89	2.05	2.08	2.05	2.16	1.93	1.1
	I. 숙박 및 음식점업	1.25	1.26	1.29	1.36	1.37	1.35	1.40	1.40	1.43	1.5
	J. 정보통신업	2.02	1.89	1.96	1.98	1.93	1.84	1.77	1.66	1.46	△4.1
	K. 금융 및 보험업	2.44	2.25	2.29	2.50	2.58	2.58	2.45	2.71	2.81	1.2
	L. 부동산업	3.24	3.26	3.35	3.47	3.60	3.62	3.71	3.72	3.64	1.6
	N. 사업서비스업	1.83	1.94	2.20	2.46	2.25	2.38	2.59	3.04	3.55	9.0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21	4.35	4.60	4.79	4.97	5.32	5.57	5.50	5.61	3.4
	P. 교육 서비스업	3.62	3.77	3.87	4.05	4.16	4.39	4.35	4.35	4.31	2.0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1	1.60	1.76	1.88	2.04	2.11	2.32	2.41	2.47	6.2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60	1.62	1.60	1.66	1.78	1.86	1.91	1.91	1.93	2.7

주 : 연도별 부가가치는 2020년 기준 불변가격 환산 자료.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1~3위 표시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4) 2012~2021년

■ 경북 산업 전반적인 성장 정체, 경북 총부가가치 연평균증가율 0.9%

- 경북 총부가가치는 2012 년 96.0 조 원에서 2021 년 103.6 조 원으로 연평균성장률은 0.9%로 정체
- '03~'12 년에 이어서 '12~'21 년 기간에도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의 부가가치는 모든 연도에서 각각 1 위와 2 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12 년(농림어업 3 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3 위를 차지

- '12~'21 년 기간 부가가치의 CAGR 은 광업,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도매 및 소매업 등 4 개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18 개 부문이 증가, 그러나 전기('03~'12) 부가가치 CAGR 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성장률을 나타냄
- 부가가치 CAGR 의 크기는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6.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0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5.02) 순
- '94~'03 년과 '03~'12 년 부가가치 성장률 1 위였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는 기간 간 부가가치 성장률이 급감하여 '12~'21 년 기간에는 4.0% 수준의 마이너스 성장

〈표 2-12〉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2012~2021)

(단위 : 조 원, %)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CA GR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96.0	99.2	104.3	102.8	106.0	106.3	103.6	101.1	99.1	103.6	0.9
A. 농림어업	5.85	5.60	5.47	5.78	5.41	5.57	5.55	5.47	5.79	6.61	1.4
B. 광업	0.20	0.21	0.22	0.20	0.21	0.18	0.15	0.13	0.15	0.15	△3.1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35	1.29	1.54	1.54	1.61	1.57	1.59	1.73	1.79	3.0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1.66	1.80	1.66	1.44	1.42	1.38	1.35	1.43	1.30	△3.1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60	0.63	0.63	0.65	0.67	0.62	0.65	0.61	0.66	2.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4.06	4.21	4.14	4.48	4.55	4.36	4.52	4.14	4.21	1.8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12.68	12.18	12.13	11.86	12.06	12.42	11.82	12.03	11.01	1.1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5.39	27.02	29.81	24.10	24.53	24.32	22.11	18.01	16.79	△4.0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4.34	4.92	5.14	5.61	5.89	5.93	6.09	6.32	6.10	2.9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30	1.60	2.27	3.01	3.29	2.81	2.39	2.57	3.06	2.03	5.0
F. 건설업	5.00	5.34	5.37	6.33	6.59	6.69	5.89	5.81	5.59	5.37	0.8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3.54	3.51	3.37	3.49	3.48	3.58	3.53	3.46	3.32	△0.7
	H. 운수 및 창고업	2.10	2.23	2.26	2.56	2.60	2.53	2.43	2.56	2.45	1.9
	I. 숙박 및 음식점업	1.43	1.51	1.61	1.75	1.87	1.88	1.97	2.09	1.66	2.5
	J. 정보통신업	1.38	1.34	1.38	1.38	1.41	1.36	1.36	1.38	1.39	0.0
	K. 금융 및 보험업	2.70	2.68	2.86	2.87	2.87	3.01	3.15	3.08	3.10	2.2
	L. 부동산업	3.74	3.90	4.12	4.33	4.43	4.35	4.30	4.41	4.18	1.2
	N. 사업서비스업	3.99	4.18	4.65	5.00	4.78	5.00	5.21	5.35	5.47	3.9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0	5.71	6.00	6.39	7.74	7.99	8.41	8.85	9.53	6.3
	P. 교육 서비스업	4.32	4.43	4.49	4.58	4.61	4.70	4.73	4.89	4.81	1.7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59	2.75	2.94	3.06	3.33	3.42	3.57	3.87	3.92	5.0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2.04	2.15	2.22	2.44	2.66	2.65	2.79	2.89	2.80	3.8

주 : 연도별 부가가치는 2020년 기준 불변가격 환산 자료.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1~3위 표시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 지난 40년 경제산업 구조변화(기간 간 비교)

■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변화

- 앞서 분석한 4 개 기간별·산업별 부가가치 변화를 종합하면, 경북지역의 산업은 '94 년까지 농림어업이 주도하였으며, '03 년 이후에는 제조업(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이 주도
- 부가가치 비중이 가장 큰 산업(업종)은 '94 년까지 농림어업, '03 년부터 '21 년까지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이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은 대부분 연도에서 2 순위를 차지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은 지난 40 여년간 부가가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1 년에는 경북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 위로 부상

〈표 2-13〉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1985~2021)

(단위 : 십억 원, 순위)

구분		1985	순위	1994	순위	2003	순위	2012	순위	2021	순위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21,623		46,550		76,053		95,951		103,591	
A. 농림어업		6,198	(1)	7,318	(1)	4,662	(4)	5,850	(3)	6,612	(4)
	B. 광업	153	(21)	383	(22)	141	(22)	200	(22)	151	(22)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598	(10)	1,236	(14)	1,312	(19)	1,353	(19)	1,759	(18)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1,006	(5)	1,633	(11)	1,547	(17)	1,656	(16)	1,244	(20)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141	(22)	579	(21)	521	(21)	596	(21)	719	(2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335	(14)	1,807	(8)	3,402	(7)	4,060	(8)	4,779	(9)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2,895	(2)	5,060	(3)	8,119	(2)	12,681	(2)	14,018	(2)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2,368	(3)	5,727	(2)	19,732	(1)	25,394	(1)	17,517	(1)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248	(18)	1,702	(9)	2,056	(12)	4,336	(6)	5,598	(6)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583	(11)	1,078	(17)	2,961	(9)	1,304	(20)	2,028	(16)
F. 건설업		841	(7)	3,647	(4)	5,385	(3)	4,996	(5)	5,367	(7)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818	(8)	1,676	(10)	2,585	(10)	3,540	(11)	3,327	(12)
	H. 운수 및 창고업	805	(9)	1,392	(12)	1,908	(14)	2,096	(14)	2,475	(15)
	I. 숙박 및 음식점업	536	(12)	1,296	(13)	1,250	(20)	1,433	(17)	1,794	(17)
	J. 정보통신업	304	(16)	825	(19)	2,020	(13)	1,381	(18)	1,381	(19)
	K. 금융 및 보험업	245	(19)	1,177	(15)	2,439	(11)	2,705	(12)	3,292	(13)
	L. 부동산업	483	(13)	2,287	(7)	3,242	(8)	3,743	(10)	4,163	(10)
	N. 사업서비스업	240	(20)	1,124	(16)	1,833	(15)	3,987	(9)	5,636	(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31	(4)	2,607	(5)	4,208	(5)	5,697	(4)	9,837	(3)
	P. 교육 서비스업	990	(6)	2,311	(6)	3,619	(6)	4,316	(7)	5,007	(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1	(17)	812	(20)	1,514	(18)	2,592	(13)	4,027	(11)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305	(15)	874	(18)	1,598	(16)	2,037	(15)	2,862	(14)

주 : 연도별 부가가치는 2020년 기준 불변가격 환산 자료.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1~3위 표시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 경북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농림어업 부가가치의 비중은 '85년 28.7%(1 위)를 시작으로 '94년에 15.7%(1 위)로 감소하였고, '03년 6.1%(4 위) '12년 6.1%(3 위), '21년에는 6.4%(4 위)로 낮아짐
- 전자전기 및 정밀기기의 부가가치 비중은 '85년 10.9%(3 위)를 시작으로 '94년에 12.3%(2 위)로 소폭 증가, '03년과 '12년에 각각 25.9%(1 위)와 26.5%(1 위)로 급증하였으나, '21년에는 16.9%(1 위)로 급감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의 경우, 부가가치 비중이 '85년 13.4%(2 위)에서 '94년 10.9%(3 위), '03년 10.7%(2 위)로 낮아졌다가, '12년에 13.2%(2 위)로 증가하였고, '21년에는 13.5%(2 위)로 소폭 증가
- 2021년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은 상위 3대 업종*이 전체의 40% 수준을 차지

* 전기·전자·정밀기기(1 위), 비금속광물·금속제품(2 위),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3 위)

〈표 2-14〉 경북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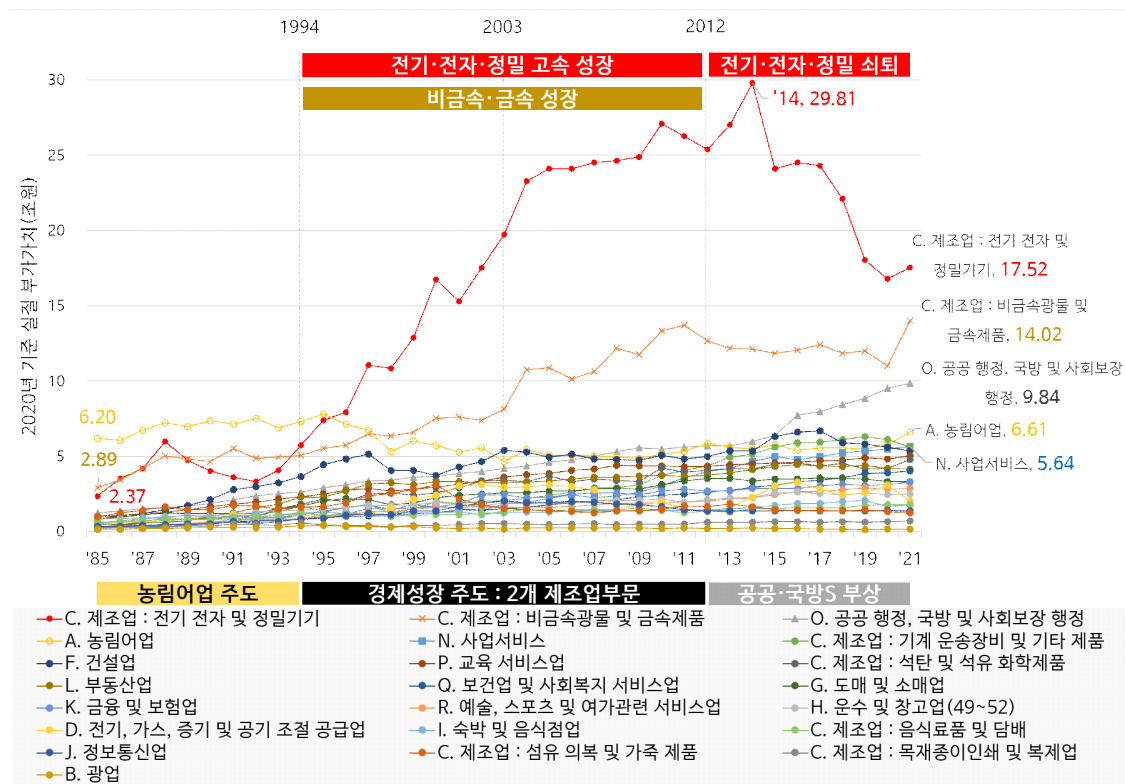
(단위 : %, 순위)

구분	1985	순위	1994	순위	2003	순위	2012	순위	2021	순위
경북 총부가가치(기초가격)										
A. 농림어업	28.7	(1)	15.7	(1)	6.1	(4)	6.1	(3)	6.4	(4)
B. 광업	0.7	(21)	0.8	(22)	0.2	(22)	0.2	(22)	0.1	(22)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2.8	(10)	2.7	(14)	1.7	(19)	1.4	(19)	1.7	(18)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4.7	(5)	3.5	(11)	2.0	(17)	1.7	(16)	1.2	(20)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7	(22)	1.2	(21)	0.7	(21)	0.6	(21)	0.7	(2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1.5	(14)	3.9	(8)	4.5	(7)	4.2	(8)	4.6	(9)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13.4	(2)	10.9	(3)	10.7	(2)	13.2	(2)	13.5	(2)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10.9	(3)	12.3	(2)	25.9	(1)	26.5	(1)	16.9	(1)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1.1	(18)	3.7	(9)	2.7	(12)	4.5	(6)	5.4	(6)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7	(11)	2.3	(17)	3.9	(9)	1.4	(20)	2.0	(16)
F. 건설업	3.9	(7)	7.8	(4)	7.1	(3)	5.2	(5)	5.2	(7)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3.8	(8)	3.6	(10)	3.4	(10)	3.7	(11)	3.2	(12)
H. 운수 및 창고업	3.7	(9)	3.0	(12)	2.5	(14)	2.2	(14)	2.4	(15)
I. 숙박 및 음식점업	2.5	(12)	2.8	(13)	1.6	(20)	1.5	(17)	1.7	(17)
J. 정보통신업	1.4	(16)	1.8	(19)	2.7	(13)	1.4	(18)	1.3	(19)
K. 금융 및 보험업	1.1	(19)	2.5	(15)	3.2	(11)	2.8	(12)	3.2	(13)
L. 부동산업	2.2	(13)	4.9	(7)	4.3	(8)	3.9	(10)	4.0	(10)
N. 사업서비스업	1.1	(20)	2.4	(16)	2.4	(15)	4.2	(9)	5.4	(5)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5.7	(4)	5.6	(5)	5.5	(5)	5.9	(4)	9.5	(3)
P. 교육 서비스업	4.6	(6)	5.0	(6)	4.8	(6)	4.5	(7)	4.8	(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4	(17)	1.7	(20)	2.0	(18)	2.7	(13)	3.9	(11)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1.4	(15)	1.9	(18)	2.1	(16)	2.1	(15)	2.8	(14)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비중 1~3위 표시

■ 22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추이 비교

- 경북지역 22개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추이('85~'21)를 분석한 결과, 2014년까지 2대 제조업이 급성장하여 지역 경제를 주도, 이후 타 산업부문과의 격차 축소
 - 10년 간격으로 4개 기간을 비교해 본 결과, '85~'94년까지는 농림어업이 지역경제를 주도, '94~'03년에는 농림어업이 쇠퇴하는 대신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급성장
 - '03~'12년에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성장 둔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성장
 - '12~'21년 기간에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쇠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은 정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은 성장세에 있음
- * 1994년부터 경북 경제산업을 이끌었던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의 부가가치가 2014년에 29.8조 원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17.5조 원으로 12조 원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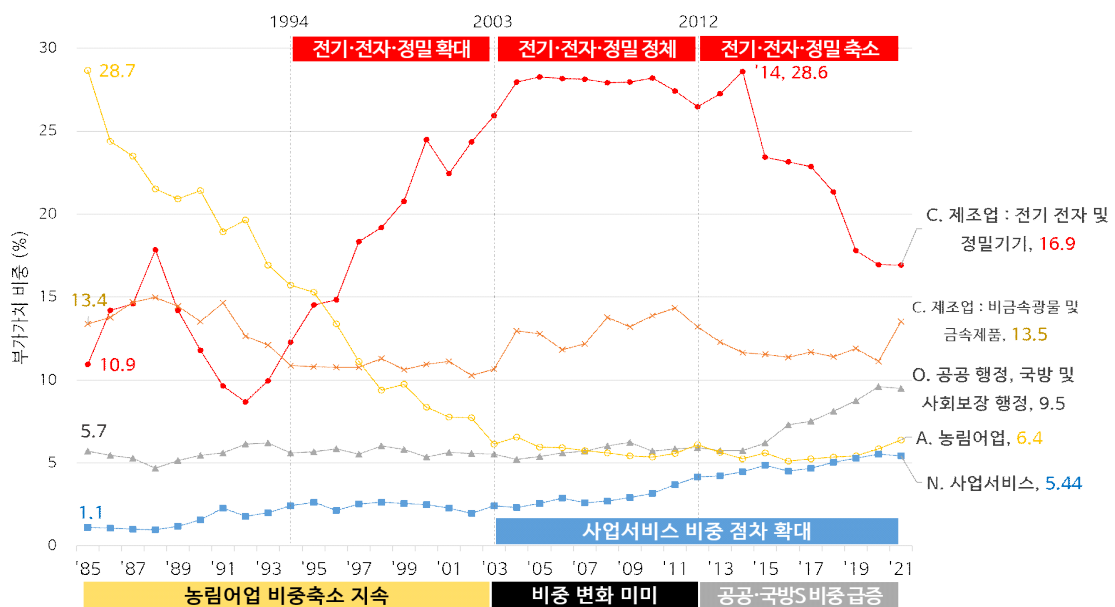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9〉 경북 경제활동별 부가가치 추이(1985~2021)

■ 상위 5대 산업부문 부가가치가 경북 총부가가치의 50% 이상 차지

- 연도별·경제활동별 부가가치 비중을 분석한 결과, 상위 5대 산업부문('21년 기준)* 부가가치 합계가 대부분 연도에서 경북 총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차지
 - 상위 5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합계액이 경북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59.8%, '92년 46.9%, '03년 50.7%, '12년 55.9%, '21년 51.8%로 나타남
 - * 2021년 기준 부가가치 상위 5대 산업부문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1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2위),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3위), 농림어업(4위), 사업서비스(5위)이며, 이들 5대 산업(업종)의 부가가치 합계는 매년('92년 제외) 경북 총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전기전자 정밀기기는 '94~'03년 기간에 비중이 확대되었다가 '03~'12년에는 비중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이후 급속도로 비중이 축소됨
- 농림어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03년까지 급속도로 축소, 이후 큰 비중 변화가 없었으며, 사업서비스 비중은 '03년 이후 점차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0〉 경북 상위 5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 중위 7대 산업부문 부가가치는 '92년 이후 30% 수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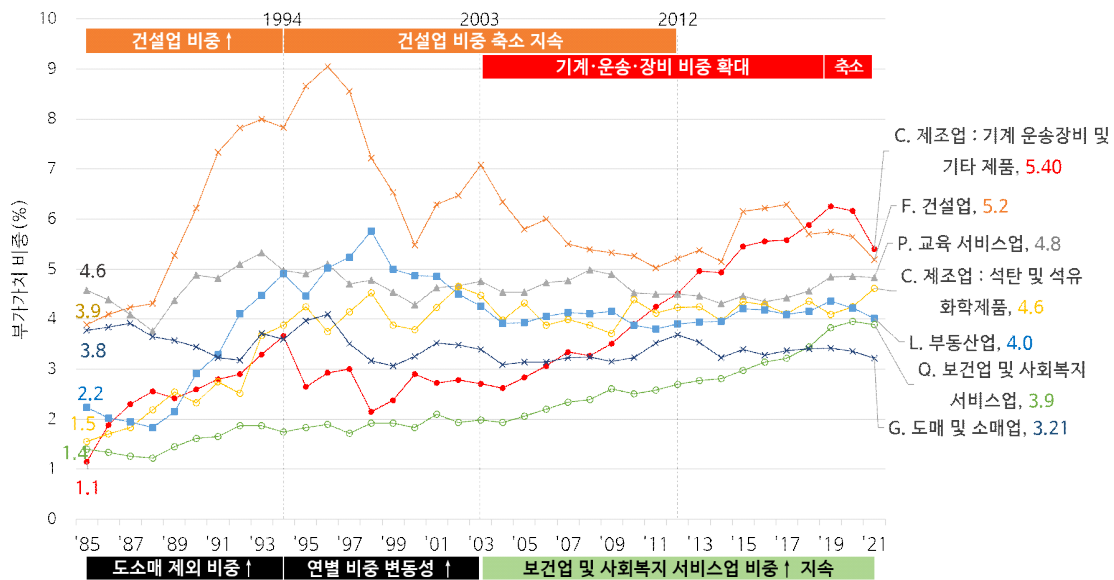
○ 중위 7대 산업부문('21년 기준)* 부가가치 합계는 '92년 이후의 대부분 연도에서 경북 총부가가치의 30%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 중위 7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합계액이 경북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18.6%를 시작으로 '93년 30.3%로 증가, 이후 '14년까지 20% 후반 선을 유지하다가 '15년 30% 선을 회복하여 '21년까지 30% 초반 선을 유지 중

* 2021년 기준 부가가치 중위 7대 산업부분은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6위), 건설업(7위), 교육 서비스업(8위),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9위), 부동산업(10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1위), 도매 및 소매업(12위)이며, 이들 7대 산업(업종)의 부가가치 합계는 최근 7년간('15~'21) 경북 총부가가치의 30% 이상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건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85~'94년 기간에 확대되었다가 '94~'12년 기간에 축소,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의 비중은 '03~'19년까지 급증한 후 최근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03년 이후 꾸준히 증가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1〉 경북 중위 7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 하위 10대 산업부문 부가가치는 '03년 이후 20% 이하 수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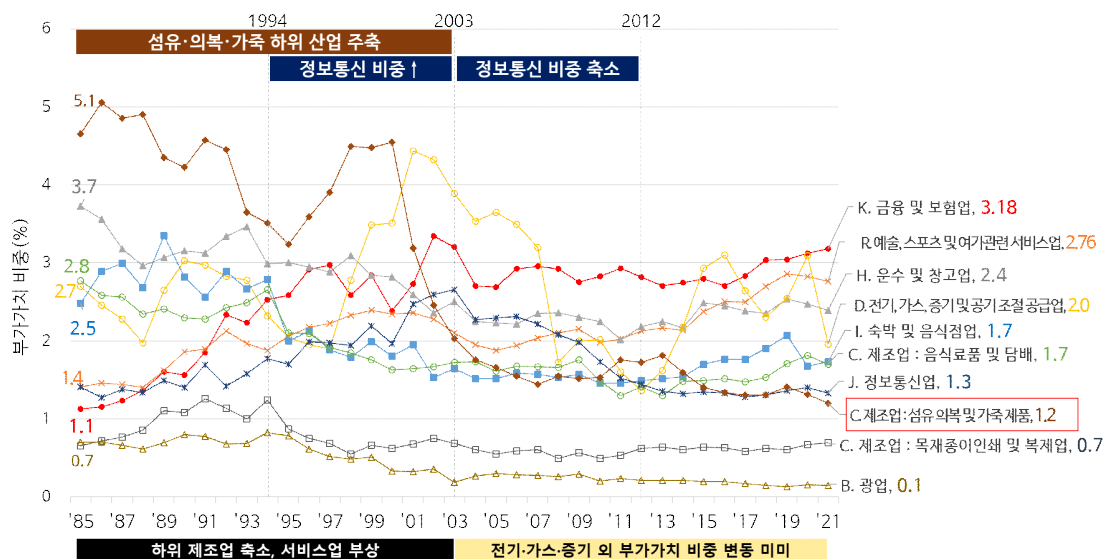
○ 하위 10대 산업부문('21년 기준)* 부가가치 합계는 '03년 이후 경북 총부가가치의 20% 이하 수준을 차지

- 하위 10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합계액이 경북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5년 '93년 23.6%를 정점으로 지속 감소하여 '03년 20.6%를 마지막으로 20% 선이 무너져 '21년(17.1%)까지 20% 이하 수준을 차지

* 2021년 기준 부가가치 하위 10대 산업부문은 금융 및 보험업(13위), 예술·스포츠 및 여가(14위), 운수 및 창고업(15위),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6위), 숙박 및 음식점업(17위), 음식료품 및 담배(18위), 정보통신업(19위),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20위),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21위), 광업(22위) 순

○ '85~'03년까지 하위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비중 축소,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 '03년 이후에는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외에 부가가치 비중 변화 미미

-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의 부가가치는 '86년 4.7%로 하위 10개 산업(업종)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00~'07년 기간에 비중이 급감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2〉 경북 하위 10대 산업부문 부가가치 비중 추이(1985~2021)

3) 경북 경제산업 구조변화 종합('85~'21)

■ 상위 50% 산업 변화 미미,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격차 축소

- (1985~94) 전통 제조업 및 농림어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며 산업 다각화 미흡
- (1994~03) 제조업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작하며 전자산업이 핵심 역할 수행
- (2003~12) 산업구조에서 서비스 부문이 점차 중요
- (2012~21) 주춤기술과 서비스업이 경제의 주요 동력으로 자리 잡음

〈표 2-15〉 경북 경제산업 구조변화 종합(1985~2021)

구분		'85~'94	'94~'03	'03~'12	'12~'21
기간 내	주력산업	1. 농림어업 2~3. 비금속광물·금속, 전기전자·정밀기기 4~5. 공공·행정·국방S, 건설업	1. 전기전자·정밀기기 2. 비금속광물·금속 3~4. 농림어업, 건설업 5. 공공·행정·국방S	1. 전기전자·정밀기기 2. 비금속광물·금속 3~4. 공공·행정·국방S, 농림어업 5. 건설업	1. 전기전자·정밀기기 2. 비금속광물·금속 3. 공공·행정·국방S 4~5. 농림어업, 건설업, 기계·운송·장비, 사업S
	성장 산업부문	1. 기계·운송·장비 2. 석탄·석유·화학 3. 금융·보험업 4. 부동산업 5. 사업서비스	1. 전기전자·정밀기기 2. 전·가·공기조절공급 3. 정보통신업 4. 금융·보험업 5. 석탄·석유·화학	1. 사업서비스 2. 기계·운송·장비 3. 보건·사회복지 4. 비금속광물·금속 5. 광업	1. 공공·행정·국방S 2. 전·가·공기조절공급 3. 보건·사회복지 4. 사업서비스 5. 예술·스포츠·여가S
	쇠퇴 산업부문	1. 농림어업 2. 섬유·의복·가죽 3. 운수·창고업 4. 비금속광물·금속 5. 전·가·공기조절공급	1. 광업 2. 농림어업 3. 목재종이인쇄·복제업 4. 섬유·의복·가죽 5. 숙박·음식점업	1. 전·가·공기조절공급 2. 정보통신업 3. 건설업 4. 음식료품·담배 5. 섬유·의복·가죽	1. 전기전자·정밀기기 2. 섬유·의복·가죽 3. 광업 4. 도매·소매업 5. 정보통신업
기간 간	성장 산업부문 (전기 對)	-	전기전자·정밀기기 전·가·공기조절공급	농림어업, 광업 사업서비스, 숙박·음식점업 섬유·의복·가죽, 목재종이인쇄·복제업, 기계·운송·장비	공공·행정·국방S, 예술·스포츠·여가S 정보통신업 전·가·공기조절공급 건설업 음식료품·담배
	정체 산업부문 (전기 對)	-	비금속광물·금속제품	비금속광물·금속 보건·사회복지 음식료품·담배	교육S, 부동산업, 금융·보험, 운수·창고, 숙박·음식점업 석탄·석유·화학, 목재종 이인쇄·복제업
	쇠퇴 산업부문 (전기 對)	-	나머지 19개 산업부문	나머지 12개 산업부문	나머지 9개 산업부문

주 : 주력산업은 부가가치 상위 5대 산업(업종), 성장 및 쇠퇴 구분은 부가가치 CAGR의 상·하위 5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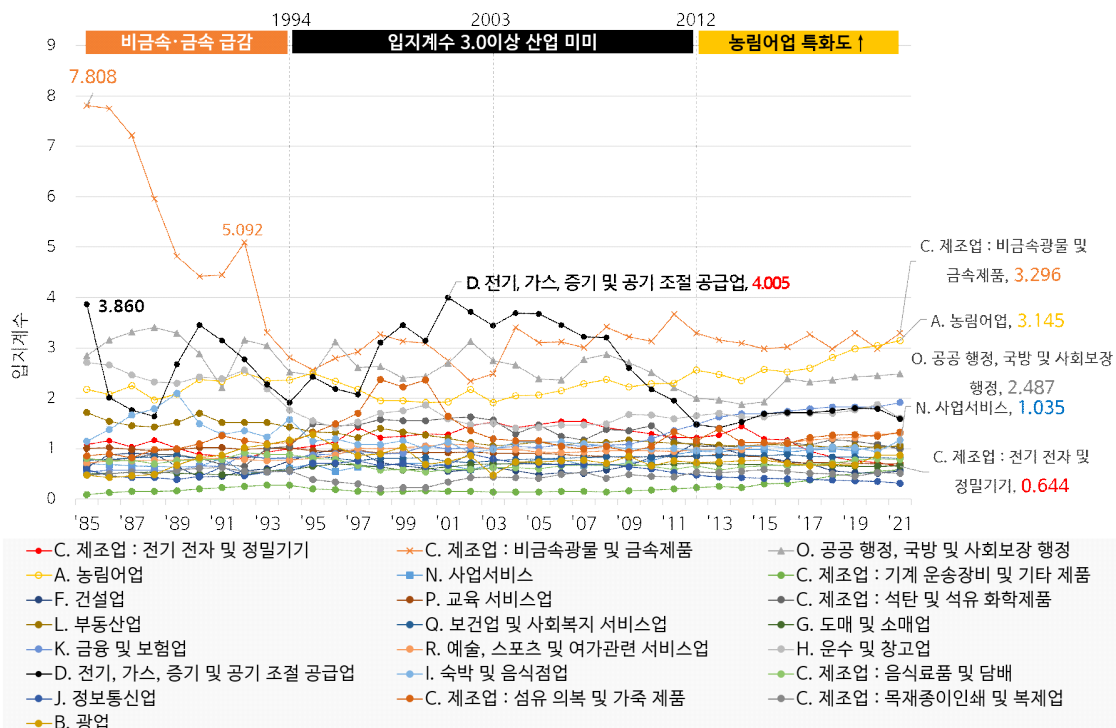
자료 : 연구진 작성

2. 경북 경제산업 경쟁력

1) 산업부문별 입지계수 변화('85~'21)

■ 2001년 이후 4.0 이상 전무, 최근 10년 2.0이하 대부분

- 22 개 경제활동별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01 년 이후 모든 연도에서 입지계수 4.0 이상의 산업(업종) 전무
 - 지난 40 여 년간 경북지역 22 개 산업(업종)의 입지계수가 4.0 이상을 기록한 산업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85~'92)과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1)뿐임
- 최근 10 년간('12~'21) 3 개 산업을 제외한 19 개 산업의 입지계수가 2.0 미만이며, 1.0 이하 수준의 산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북지역 산업의 전국 대비 특화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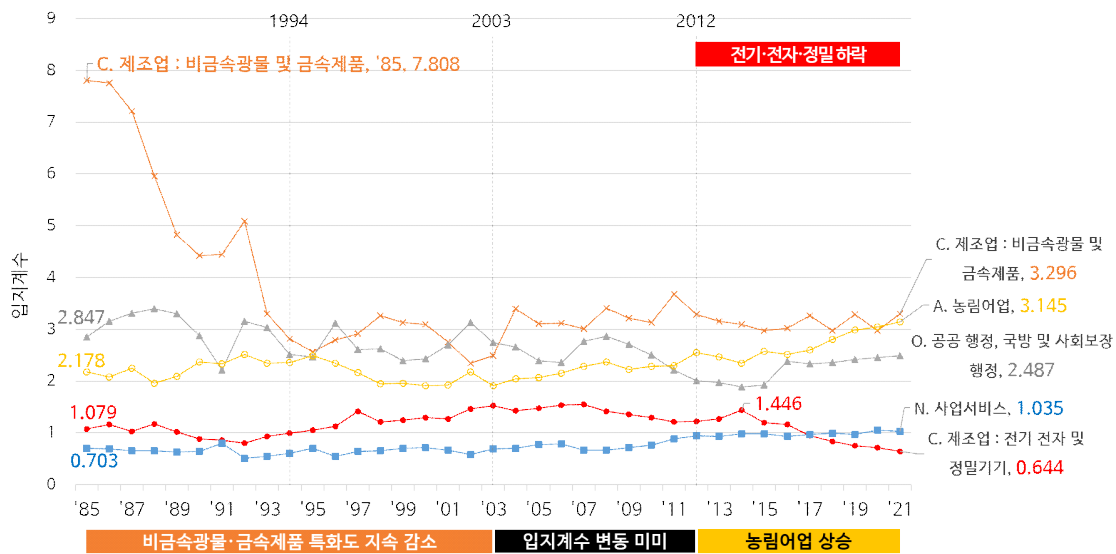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3〉 경북 경제활동별 입지계수 추이(1985~2021)

■ 부가가치 상위 5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변화

- 부가가치 상위 5대 산업(업종)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 40여년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산업의 입지계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지난 40여년간 대부분 연도에서 입지계수 1위를 차지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은 '85년 입지계수가 7.8로 높았으나 지속 하락하여 '21년 3.3으로 낮아짐
- 경북 부가가치 1위를 고수한('96~'21)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의 입지계수는 부가가치 상위 5대 산업 중 4~5위에 머물렀으며, 최근 입지계수는 가파른 하락세를 보임
 - 전자전기 및 정밀기기의 입지계수는 '85년 1.1을 시작으로 소폭 상승세가 이어져 '14년 1.5를 기점으로 지속 하락하여 '21년 0.6으로 낮아짐
- 2021년 기준, 부가가치 상위 5대 산업 중 입지계수 3.0 이상은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농림어업 2개 산업이 전부임
- 최근 10년('12~'21) 입지계수가 상승세에 있는 산업은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분야이며, 나머지 산업의 입지계수는 정체·유지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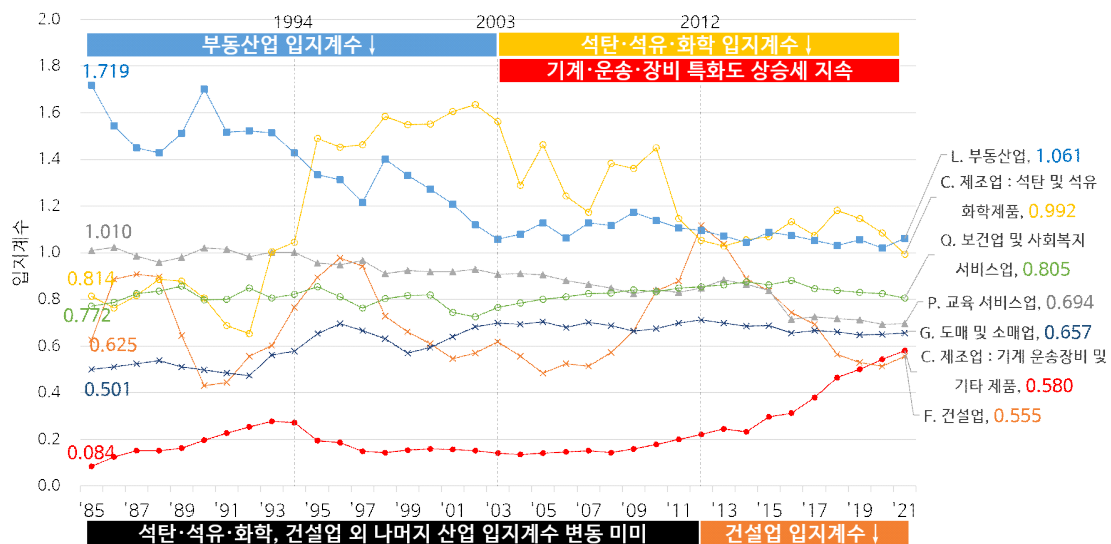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4〉 경북 상위 5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추이(1985~2021)

■ 중위 7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변화

- 부가가치 중위 7 대 산업별 입지계수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산업(업종) 간 격차가 축소하는 양상을 보임
 - 부가가치 중위 7 대 산업 간 입지계수 격차는 '85 년 최소 0.08 에서 최대 1.71, '21 년 최소 0.56 에서 최대 1.06 으로 좁혀짐
- 중위 7 대 산업 중 '85~'94 년 기간에 입지계수가 가장 높았던 부동산업의 경우 '90 년 1.7 을 기점으로 '03 년까지 지속 하락,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은 '95 년에 처음으로 부동산업 입지계수를 넘어선 후 최근까지도 중위 7 대 산업 입지계수 1 위를 지켰으나 '21 년에 근소한 차이로 부동산업에 1 위를 내어 줌
- '85~'12 년까지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과 건설업을 제외한 나머지 5 개 산업의 입지계수는 큰 변동이 없었음
- 최근 10 년('12~'21)에는 건설업 입지계수가 감소한 반면,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의 입지계수가 미미한 상승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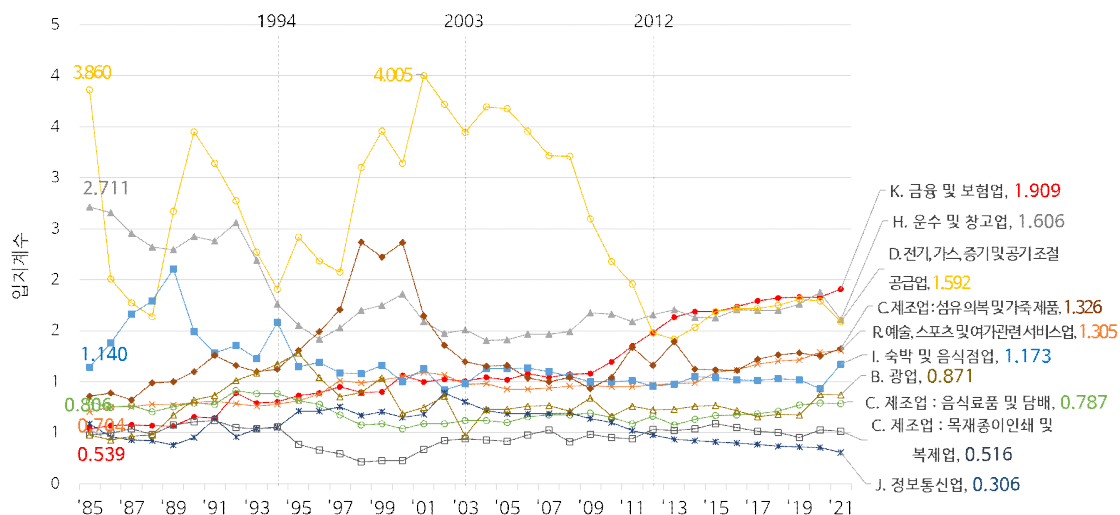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5〉 경북 중위 7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추이(1985~2021)

■ 하위 10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변화

- 부가가치 하위 10 대 산업별 입지계수도 중위 7 대 산업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경과할수록 산업(업종) 간 격차가 축소하였으나, 최근 미세한 차이로 다시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부가가치 하위 10 대 산업 간 입지계수 격차는 '85 년 최소 0.48 에서 최대 3.86, '21 년 최소 0.31 에서 최대 1.91 로 좁혀짐
- 하위 7 대 산업 중 '85~'11 년 기간 대부분 연도에서 입지계수 1 위를 차지했던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경우 '01 년 4.01 을 정점으로 '13 년 1.42 까 지 하락한 후, 입지계수가 미미한 수준으로 다시 상승하는 양상을 보임
- '03~'12 년까지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나머지 9 개 산업의 입지계수는 큰 변동이 없었음
- 최근 10 년('12~'21)에는 금융 및 보험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 부문(정보통신업을 제외)의 입지계수가 미미한 상승세를 나타냄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그림 2-16〉 경북 하위 10대 산업부문 입지계수 추이(1985~2021)

■ 경북 주력산업 입지계수 하락세 지속

- 경북지역 부가가치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입지계수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이어짐
 -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의 지역 내 입지계수 순위는 '85 년 8 위(1.08)에서 '03 년 6 위(1.52)로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세가 이어져 '21 년 입지계수는 18 위(0.64)로 하위권에 위치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의 경우 '03 년(3 위)을 제외한 대부분 연도에서 1 위에 위치하고 있으나 입지계수 값은 '85 년 7.81 에서 '21 년 3.30 으로 절반 이상 낮아졌음
- 2021 년을 기준으로 경북 22 개 경제활동별 입지계수의 상대적 순위를 보면, 제조업의 경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과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2 개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5 개 산업의 입지계수가 10 위권 밖에 위치함

〈표 2-16〉 경북 산업별 입지계수 추이(1985~2021)

구분		1985	순위	1994	순위	2003	순위	2012	순위	2021	순위
A. 농림어업		2.18	(5)	2.36	(3)	1.91	(4)	2.55	(2)	3.15	(2)
B. 광업		0.48	(21)	1.17	(8)	0.47	(20)	0.72	(17)	0.87	(13)
C.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0.81	(12)	0.88	(13)	0.62	(18)	0.66	(19)	0.79	(15)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0.86	(10)	1.12	(9)	1.20	(8)	1.16	(8)	1.33	(7)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48	(20)	0.56	(20)	0.44	(21)	0.54	(20)	0.52	(21)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0.81	(11)	1.04	(10)	1.56	(5)	1.05	(11)	0.99	(12)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7.81	(1)	2.81	(1)	2.49	(3)	3.29	(1)	3.30	(1)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1.08	(8)	1.00	(12)	1.52	(6)	1.22	(7)	0.64	(18)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0.08	(22)	0.27	(22)	0.14	(22)	0.22	(22)	0.58	(19)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86	(2)	1.91	(4)	3.45	(1)	1.48	(6)	1.59	(6)
F. 건설업		0.62	(16)	0.77	(17)	0.62	(19)	1.12	(9)	0.56	(20)
서비스업	G. 도매 및 소매업	0.50	(19)	0.58	(19)	0.70	(16)	0.71	(18)	0.66	(17)
	H. 운수 및 창고업	2.71	(4)	1.76	(5)	1.51	(7)	1.66	(4)	1.61	(5)
	I. 숙박 및 음식점업	1.14	(7)	1.58	(6)	0.98	(11)	0.96	(13)	1.17	(9)
	J. 정보통신업	0.59	(17)	0.55	(21)	0.80	(14)	0.48	(21)	0.31	(22)
	K. 금융 및 보험업	0.54	(18)	0.81	(15)	1.01	(10)	1.49	(5)	1.91	(4)
	L. 부동산업	1.72	(6)	1.43	(7)	1.06	(9)	1.10	(10)	1.06	(10)
	N. 사업서비스업	0.70	(15)	0.61	(18)	0.69	(17)	0.95	(14)	1.04	(1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85	(3)	2.52	(2)	2.75	(2)	2.01	(3)	2.49	(3)
	P. 교육 서비스업	1.01	(9)	1.00	(11)	0.91	(13)	0.85	(16)	0.69	(16)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77	(13)	0.82	(14)	0.76	(15)	0.85	(15)	0.81	(14)
	R.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7	(14)	0.78	(16)	0.98	(12)	0.97	(12)	1.31	(8)

주 : 연도별 음영 처리 셀은 부가가치 비중 1~3위 표시. 괄호 안은 산업별 입지계수 순위

자료 : 통계청(각 연도), 시도별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2) 경북 제조업 특화도(2021)

■ 입지계수 기준 경북지역 제조업 경쟁력

- 2021 년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지역별 제조업 부문의 24 개 소분류 산업(업종)의 입지계수를 분석한 결과, 경북 제조업 부문의 입지계수는 1.58 로 전국 4 위에 위치
 - 지역별 제조업 부문 입지계수는 충남이 1.98 로 1 위, 다음으로 충북 1.97(2 위), 울산 1.79(3 위), 경북 1.53(4 위), 경기 1.45(5 위), 전남 1.38(6 위), 경남 1.26(7 위), 인천 0.85(8 위), 전북 0.82(9 위), 광주 0.76(10 위), 대구 0.65(11 위), 세종 0.61(12 위), 대전 0.56(13 위), 부산 0.49(14 위), 강원 0.26(15 위), 서울 0.08(16 위), 제주 0.06(17) 순으로 분석되었음
- 전기전자 정밀기기 산업의 3 개 업종은 입지계수가 전국 4~7 위로 중상위권의 경쟁력을 나타냈음
 -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은 입지계수가 1.79 로 전국 4 위의 경쟁력을 보유
 - 전기장비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1.30 으로 전국 6 위의 경쟁력을 보유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0.94 로 전국 7 위의 우위를 차지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산업의 3 개 업종은 입지계수가 전국 2~4 위로 상위권의 경쟁력 보유
 - 1 차금속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4.50 으로 전국 2 위의 최상위권 경쟁력을 보유
 -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제조업의 입지계수는 1.80 으로 전국 3 위의 최상위권 경쟁력 보유
 - 비금속광물 제조업은 입지계수가 2.21 로 전국 4 위의 경쟁력 보유
- 경북은 2 대 제조업 부문 외에도 섬유제품(의복제외) 제조업(3.86, 2 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75, 3 위)이 전국 최상위 경쟁력을 보유
- 특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경북에서 유일한 전국 1 위 제조업임(2.46)

〈표 2-17〉 지역별 제조업 입지계수 분석결과(2021)

구분		경북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제조업		1.53	0.26	1.45	1.26	0.76	0.65	0.56	0.49	0.08
음식	식료품제조업	0.70	1.55	1.22	1.09	0.62	0.72	0.62	0.84	0.05
료품	음료제조업	0.46	·	0.72	·	10.41	·	·	·	·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3.86	0.02	1.27	0.87	0.66	5.52	0.29	1.56	0.13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0.03	·	0.19	·	·	0.49	0.08	0.44	3.90
가죽	가죽·가방·신발	·	·	1.53	0.78	·	·	·	5.17	1.12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0.45	·	1.10	0.83	0.20	0.47	·	0.74	·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1.40	0.02	1.68	1.12	0.46	1.95	2.95	0.19	0.07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	·	2.00	0.23	0.21	1.49	0.09	0.30	1.59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0.01	·	0.04	0.07	·	·	·	0.01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0.63	0.10	0.65	0.23	0.03	0.10	1.05	0.16	0.03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1.18	1.28	1.43	·	·	0.07	0.88	0.03	0.02
	고무·플라스틱제품	1.25	0.23	1.38	2.17	2.24	0.89	1.41	0.71	0.02
비금속	비금속광물제품	2.11	1.99	1.00	0.95	0.19	0.40	0.33	0.25	0.00
속	1차금속제조업	4.50	0.01	0.36	1.25	0.37	0.33	0.19	0.74	0.00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1.80	0.18	1.18	3.79	0.76	1.81	0.38	1.07	0.03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79	0.00	2.60	0.09	0.32	0.08	0.37	0.09	0.02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0.94	0.89	1.89	0.32	0.53	1.27	2.39	1.00	0.29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1.30	0.09	0.92	2.29	4.01	0.87	0.34	0.52	0.06
	기타기계·장비	0.91	0.21	1.37	2.51	0.95	1.26	0.79	1.01	0.06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75	0.33	1.10	2.11	1.26	1.54	0.25	0.76	·
운송	기타 운송장비	0.17	·	0.04	9.23	·	·	0.05	0.79	0.01
장비	가구제조업	0.16	·	3.10	0.18	0.11	0.09	0.09	0.33	0.01
기타	기타제품	0.14	·	2.02	0.70	0.11	0.31	0.56	0.58	1.12
제품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2.46	0.29	2.24	0.38	·	·	·	1.69	·
구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제조업		0.61	1.79	0.85	1.38	0.82	0.06	1.98	1.97	
음식	식료품제조업	1.59	0.22	1.17	0.76	2.55	0.62	2.00	4.06	
료품	음료제조업	·	·	·	·	3.50	2.10	·	12.28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	1.49	0.27	0.05	0.53	·	0.17	0.87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	·	0.65	·	0.30	·	0.00	·	
가죽	가죽·가방·신발	·	·	0.29	·	·	·	·	1.51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	0.32	8.98	·	3.17	·	1.02	0.40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0.34	1.73	0.39	0.06	1.85	·	0.97	2.28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0.84	·	0.89	·	·	·	·	0.13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9.40	·	8.47	·	·	5.39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1.60	6.10	0.46	4.95	1.71	0.04	2.30	3.12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2.43	·	4.08	0.39	0.91	·	0.53	6.17	
	고무·플라스틱제품	1.11	0.73	1.22	0.14	0.54	0.02	1.89	2.24	
비금속	비금속광물제품	3.88	0.47	0.81	1.36	1.84	0.55	2.97	3.20	
속	1차금속제조업	0.19	2.60	1.10	5.80	1.44	·	1.71	0.33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0.06	0.65	1.42	0.54	0.72	·	1.13	1.32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	0.29	0.00	0.08	·	1.93	1.80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2.60	0.19	0.80	0.08	0.19	·	1.97	0.44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1.04	2.48	0.72	0.32	0.49	0.02	1.82	3.94	
	기타기계·장비	0.08	1.42	1.67	0.14	0.98	·	1.99	1.04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0.56	1.58	1.01	0.02	1.31	·	3.10	1.51	
운송	기타 운송장비	·	8.62	0.04	3.19	0.08	·	0.18	·	
장비	가구제조업	·	·	1.52	·	0.03	·	0.05	2.24	
기타	기타제품	·	0.07	1.66	·	0.84	·	·	0.71	
제품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	0.84	0.07	1.81	0.26	·	0.59	0.80	

자료 : MDIS(2021),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 음영 표시 셀은 입지계수 1위 표시

〈표 2-18〉 지역별 제조업 입지계수 순위 분석결과(2021)

구분		경북	강원	경기	경남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제조업		4	15	6	5	9	12	14	13	17
음식	식료품제조업	12	5	6	8	14	11	13	9	17
료품	음료제조업	6	·	5	·	2	·	·	·	·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2	15	5	7	8	1	10	3	13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8	·	6	·	·	3	7	4	1
가죽	가죽·가방·신발	·	·	2	5	·	·	·	1	4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8	·	3	5	11	7	·	6	·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7	15	6	8	10	3	1	12	13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	·	1	7	8	3	10	6	2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6	·	5	4	·	·	·	7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9	14	8	11	16	13	7	12	17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6	5	4	·	·	11	8	12	13
	고무·플라스틱제품	7	14	6	3	2	10	5	12	16
비금속	비금속광물제품	4	5	8	9	16	13	14	15	17
속	1차금속제조업	2	15	10	6	9	11	14	8	16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3	14	6	1	9	2	13	8	16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4	14	1	9	6	10	5	8	12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7	8	4	12	10	5	2	6	13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6	15	8	4	1	9	13	11	16
	기타기계·장비	11	13	5	1	10	6	12	8	16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3	13	9	2	8	5	14	11	·
운송	기타 운송장비	6	·	10	1	·	·	8	4	11
장비	가구제조업	6	·	1	5	7	9	8	4	12
기타	기타제품	10	·	1	6	11	9	8	7	3
제품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1	9	2	8	·	·	·	4	·
구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제조업		11	1	8	7	10	16	2	3	
음식	식료품제조업	4	16	7	10	2	15	3	1	
료품	음료제조업	·	·	·	·	3	4	·	1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	4	11	14	9	·	12	6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	·	2	·	5	·	9	·	
가죽	가죽·가방·신발	·	·	6	·	·	·	·	3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	10	1	·	2	·	4	9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16	5	11	14	4	·	9	2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5	·	4	·	·	·	·	9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1	·	2	·	·	3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6	1	10	2	5	15	4	3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3	·	2	10	7	·	9	1	
	고무·플라스틱제품	9	11	8	15	13	17	4	1	
비금속	비금속광물제품	1	12	10	7	6	11	3	2	
속	1차금속제조업	13	3	7	1	5	·	4	12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15	11	4	12	10	·	7	5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	7	13	11	·	2	3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1	15	9	16	14	·	3	11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7	3	10	14	12	17	5	2	
	기타기계·장비	15	4	3	14	9	·	2	7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	4	10	15	7	·	1	6	
운송	기타 운송장비	·	2	9	3	7	·	5	·	
장비	가구제조업	·	·	3	·	11	·	10	2	
기타	기타제품	·	12	2	·	4	·	·	5	
제품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	5	11	3	10	·	7	6	

자료 : MDIS(2021),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3) 경북 시군별 제조업 특화도(2021)

■ 구미 10개 제조업, 포항 3개 제조업 특화, 나머지 시군 제조업 경쟁력 미미

-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 산출액의 90% 이상이 7 개 시군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구미시와 포항시 남구에 제조업 생산이 편중되어 있음
 - 시군별 제조업 비중은 구미 47.9%, 포항시 남구 20.0%, 경주 8.0%, 경산 6.4%, 칠곡 3.6%, 영천 3.3%, 김천 3.1% 순
 - 구미시 제조업은 10 개 산업, 포항시 남구는 3 개 산업의 부가가치가 지역 내 타시군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
- 제조업 부가가치 하위 시군에서는 안동시가 음료제조업과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개 산업에서 특화

〈표 2-19〉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 상위 7개 시군 현황(2021)

(단위 : 명목, 십억 원)

구분		경북	구미	포항 남구	경주	경산	칠곡	영천	김천
제조업		47,673	22,851	9,527	3,836	3,064	1,730	1,567	1,477
음식	식료품제조업	1,179	272	24.4	38.9	224.7	90.1	77.5	122.8
료품	음료제조업	38	.	.	.	.	.	.	.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1,391	748.4	.	34.9	225.7	149.4	21.3	10.7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8	2.3	.	.	.	5.9	.	.
가죽	가죽·가방·신발	.	.	.	.	.	.	.	.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39	.	.	20	.	11.3	.	.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562	117.7	.	.	11.4	66.7	8.7	294.6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	.	.	.	.	.	.	.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8	.	.	.	.	8.1	.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1,822	880.3	134.4	85.4	112.8	123.6	79.8	357.8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914	12	.	.	.	.	.	.
	고무·플라스틱제품	1,691	615.8	.	179.7	305.2	184	111.1	129
비금	비금속광물제품	1,461	468.5	518.9	78.6	41.5	45	13.6	68.5
속	1차금속제조업	9,739	453.7	8,098	245	177.5	73.3	102.9	28.5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2,796	854.7	357.7	577.7	275.3	283.5	192.7	60.9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5,734	15,559	.	21	.	77.8	.	76.5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04	535	.	.	51	18.5	.	.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2,287	1,261	4.6	141.8	457.1	86.9	9.2	66.5
	기타기계·장비	2,470	932.9	83.3	244.7	362.7	275.2	176.2	41.6
기계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54	130.5	.	2,100	791	223.2	773.7	176.6
운송	기타 운송장비	114	.	.	68.3	.	.	.	29.7
장비	가구제조업	29	.	.	.	21.4	7.7	.	.
기타	기타제품	12	.	.	.	6.4	.	.	5.7
제품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321	7.1	305.7	.	.	.	.	7.8

자료 : MDIS(2021),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표 2-20〉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 하위 15개 시군 현황(2021)

(단위 : 명목, 십억 원)

구분		경북	안동	성주	고령	포항북구	영주	봉화	문경
제조업		47,673	1,029	581	576	464	344	101	98
음식	식료품제조업	1,179	63.5	9.2	54.3	11.1	32.1	43.5	40.8
료품	음료제조업	38	37.8	·	·	·	·	·	·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1,391	·	80.5	70.2	4.1	20.1	11.3	·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8	·	·	·	·	·	·	·
가죽	가죽·가방·신발	·	·	·	·	·	·	·	·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39	·	·	·	7.6	·	·	·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562	0.8	44.8	17.7	·	·	·	·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	·	·	·	·	·	·	·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8	·	·	·	·	·	·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1,822	·	28.8	16.3	3.1	·	·	·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914	901.7	·	·	·	·	·	·
	고무·플라스틱제품	1,691	·	79.3	39.4	·	·	33.9	5.7
비금	비금속광물제품	1,461	25.3	10.1	17.9	34.8	15.6	·	41.9
속	1차금속제조업	9,739	·	50.5	223	71.6	8.6	·	·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2,796	·	76.2	33.3	67.9	·	12.8	·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15,734	·	·	·	·	·	·	·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604	·	·	·	·	·	·	·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2,287	·	·	·	191.1	18.6	·	9.9
기계	기타기계·장비	2,470	·	44.8	40.2	26.6	241.5	·	·
운송	자동차 및 트레일러	4,454	·	157.1	63.8	30.8	7.5	·	·
장비	기타 운송장비	114	·	·	·	15.5	·	·	·
기타	가구제조업	29	·	·	·	·	·	·	·
제품	기타제품	12	·	·	·	·	·	·	·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321	·	·	·	·	·	·	·
구분		청도	상주	의성	영덕	울진	영양	예천	군위
제조업		66	49	45	20	12	9	8	101
음식	식료품제조업	6.6	19	4.9	19.8	8.8	9	·	43.5
료품	음료제조업	·	·	·	·	·	·	·	·
섬유	섬유제품(의복제외)	8.2	·	6.3	·	·	·	·	11.3
의복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	·	·	·	·	·	·	·	·
가죽	가죽·가방·신발	·	·	·	·	·	·	·	·
목재	목재·나무제품(가구제외)	·	·	·	·	·	·	·	·
종이	펄프·종이·종이제품	·	·	·	·	·	·	·	·
인쇄	인쇄·기록매체·복제업	·	·	·	·	·	·	·	·
석탄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	·	·	·	·	·	·	·
석유	화학물질·제품(의약품제외)	·	·	·	·	·	·	·	·
화학	의료용물질·의약품	·	·	·	·	·	·	·	·
	고무·플라스틱제품	8.1	·	·	·	·	·	·	33.9
비금	비금속광물제품	·	30.2	33.9	·	3.1	·	7.6	·
속	1차금속제조업	·	·	·	·	·	·	·	·
금속	금속가공(기계·가구제외)	2.9	·	·	·	·	·	·	12.8
전기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	·	·	·	·	·	·	·
전자	의료·정밀·광학기기·시계	·	·	·	·	·	·	·	·
정밀	전기장비제조업	40.3	·	·	·	·	·	·	·
기계	기타기계·장비	·	·	·	·	·	·	·	·
운송	자동차 및 트레일러	·	·	·	·	·	·	·	·
장비	기타 운송장비	·	·	·	·	·	·	·	·
기타	가구제조업	·	·	·	·	·	·	·	·
제품	기타제품	·	·	·	·	·	·	·	·
	산업용기계·장비수리업	·	·	·	·	·	·	·	·

자료 : MDIS(2021), 광업제조업조사 원자료 분석결과



제 3 장

경북 산업별 기여도와 산업정책

제1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기여도

제2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분석

제3절 역대 정부의 산업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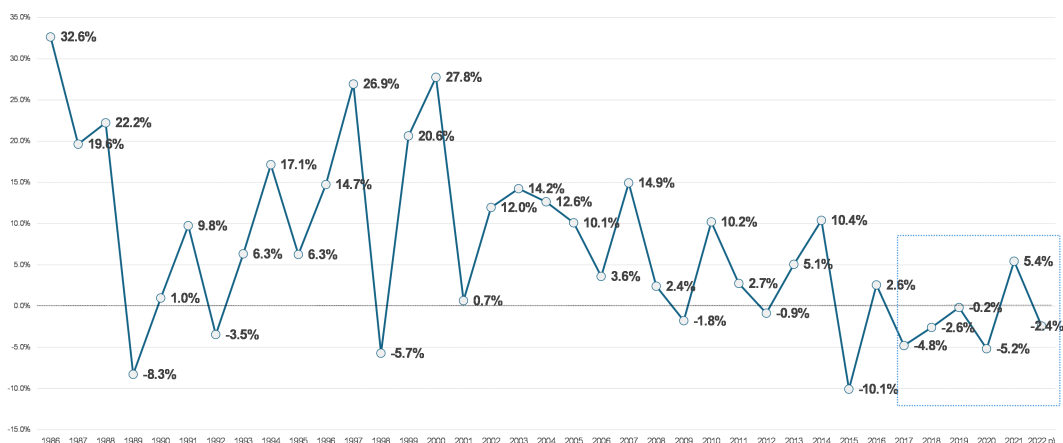
제4절 소결

제3장 경북 산업별 기여도와 산업정책

제1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여도

1. 경북 제조업 성장기여도

- 경북 제조업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
 - 1980년대 경북은 철강, 화학, 기계 산업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포스코의 설립과 운영이 경상북도의 성장에 크게 기여
 - 1990년대의 제조업 성장은 1980년대에 비해 다소 완만하지만 IT 분야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성장이 시작되며 제조업 발전에 기여
 - 2000년대는 구미를 중심으로 전자산업단지의 반도체와 휴대폰 제조를 중심으로 성장을 지속하며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출 주도의 성장 지속
 - 2010년대는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유지하면서 IT, 전자,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산업 분야로의 구조적 변화를 가속화



〈그림 3-1〉 경북 제조업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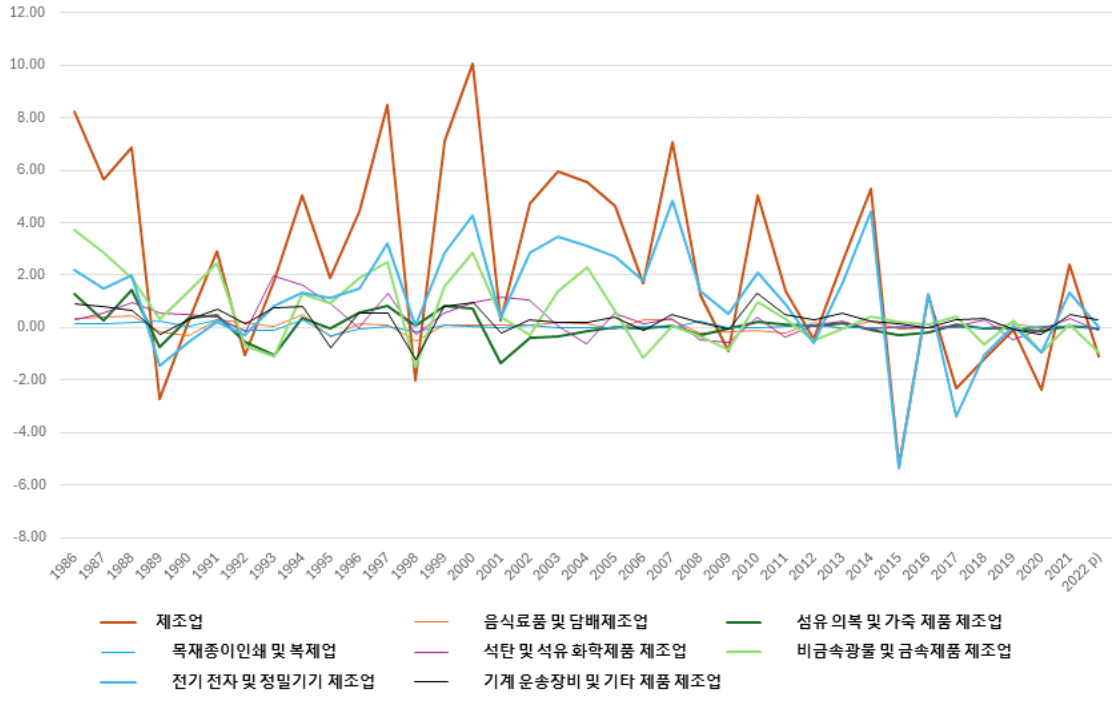
○ 경북 제조업 성장기여도는 2000 년대로 오면서 상대적으로 감소

- 1986 년 제조업 업종별 성장기여도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제조업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
- 1995 년은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석탄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기여도가 높음
- 2005 년 제조업 업종별 성장기여도는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이 지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5 년은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제조업의 기여도가 크게 하락하였는데, 이는 2014 년 경북 구미삼성전자의 수원 이전의 영향
- 2022 년 제조업의 성장기여도는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과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제품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 경북 제조업 업종별 기여율 및 기여도 추이

	1986		1995		2005		2015		2022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제조업	23.11	156.30	-5.33	48.01	-110.30	223.60	66.19	-343.91	56.07	-64.80
음식료품 및 담배제조업	1.00	6.76	1.00	-9.01	1.00	-2.03	1.00	-5.20	1.00	-1.16
섬유 의복 및 가죽 제품 제조업	3.56	24.06	0.14	-1.24	-0.53	1.07	3.28	-17.05	1.67	-1.93
목재종이인쇄 및 복제업	0.38	2.57	0.80	-7.24	0.49	-1.00	0.06	-0.34	1.51	-1.75
석탄 및 석유 화학제품 제조업	0.84	5.67	-2.50	22.52	-12.50	25.35	-0.71	3.68	4.15	-4.80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10.53	71.25	-2.62	23.64	-15.30	31.01	-3.00	15.59	47.46	-54.85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	6.23	42.14	-3.18	28.69	-64.23	130.21	67.33	-349.83	-1.21	1.40
기계 운송장비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52	17.08	2.20	-19.79	-9.76	19.78	-1.95	10.14	-14.77	1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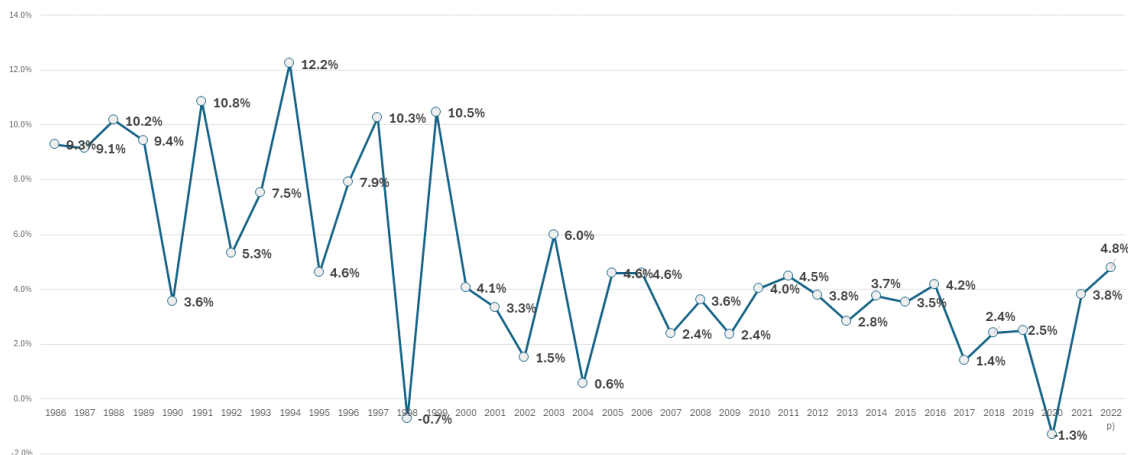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그림 3-2〉 경북 제조업 성장률 추이

2. 경북 서비스업 성장기여도

- 경북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
 - 1980~90년대 경북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과 더불어 도시화와 인구 이동은 서비스업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특히, 경주에서 문화관광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1980년대에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호텔, 식당, 여행 관련 서비스업이 발달
 - 2000~10년대는 평균 약 3%대의 서비스업 성장률이 유지되면서 도소매, 관광, 부동산, 개인 서비스 부분의 성장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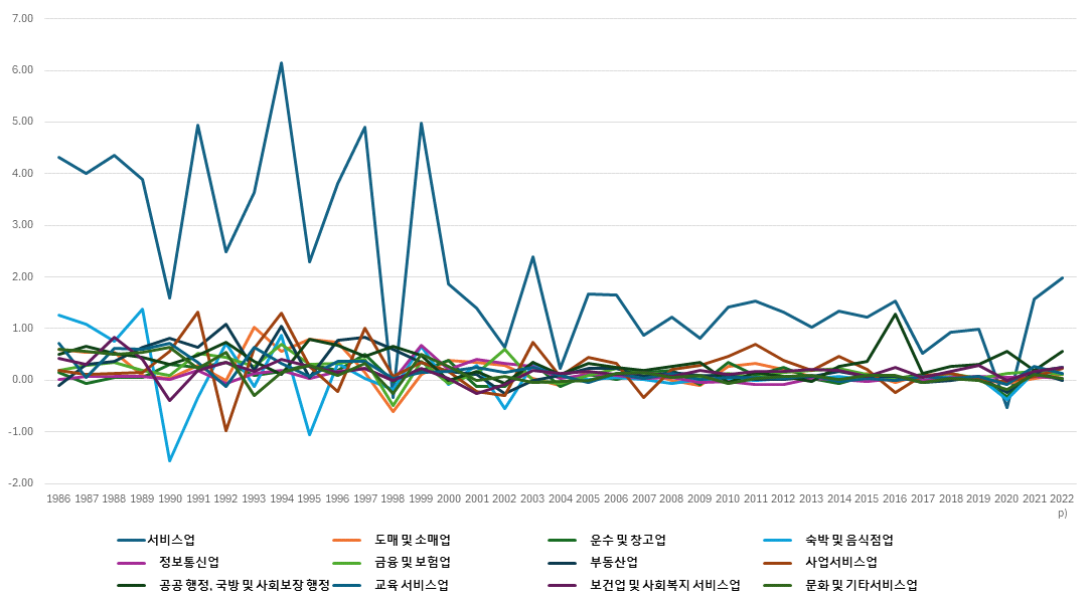
〈그림 3-3〉 경북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 경북 서비스업 성장기여도는 지속적으로 증가
 - 1986년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기여도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문화 및 기타 서비스업을 위주로 높게 나타남.
 - 1995년은 도매 및 소매업,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의 기여도가 높음.
 - 2005년 서비스업 업종별 성장기여도는 사업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5년과 2022년은 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는 비슷했지만 특히,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업이 서비스업 성장을 견인

〈표 3-2〉 서비스업 업종별 기여율 및 기여도 추이

	1986		1995		2005		2015		2022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기여율	기여도
서비스업	7.16	103.23	2.90	47.74	9.59	49.19	9.24	38.49	17.89	57.61
도매 및 소매업	1.00	14.41	1.00	16.44	1.00	5.13	1.00	4.17	1.00	3.22
운수 및 창고업	0.25	3.60	0.38	6.30	0.68	3.47	0.77	3.22	2.19	7.06
숙박 및 음식점업	2.09	30.11	-1.32	-21.77	0.14	0.72	0.12	0.48	2.26	7.28
정보통신업	0.04	0.58	0.04	0.61	0.63	3.26	-0.16	-0.65	0.33	1.07
금융 및 보험업	0.32	4.57	0.39	6.43	0.51	2.64	0.91	3.81	1.04	3.35
부동산업	-0.16	-2.34	0.07	1.08	1.29	6.60	0.61	2.55	-0.10	-0.31
사업서비스업	0.30	4.38	0.35	5.76	2.55	13.07	1.65	6.87	2.13	6.87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84	12.17	1.00	16.47	1.86	9.53	2.72	11.32	5.16	16.61
교육 서비스업	1.18	17.04	0.10	1.66	-0.25	-1.26	0.22	0.90	1.13	3.6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69	9.96	0.35	5.74	1.01	5.19	0.63	2.61	2.24	7.20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0.99	14.34	0.37	6.04	-0.07	-0.35	0.73	3.05	0.32	1.02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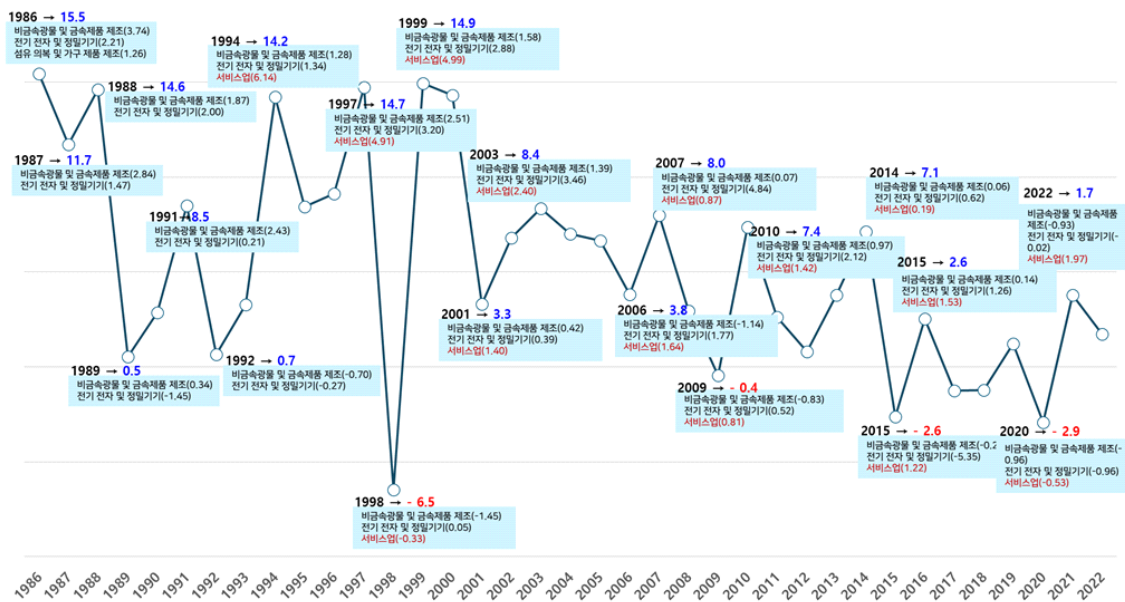


〈그림 3-4〉 경북 서비스업 성장률 추이

3. 경제성장률과 업종별 성장기여도 비교

○ 2000년대 이전까지는 제조업의 성장기여도가 높은 반면, 2000년대 이후 서비스업의 성장기여도도 일부 영향

- 1986년 경북 경제성장률은 15.5%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3.74%p,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2.21%p, 섬유 의복 및 가구 제품 제조 1.26%p가 성장에 기여
- 1989년 성장률은 0.5%로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1.45%p)의 성장 부진이 전체 성장률에 영향
-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경제성장률은 14.7%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 2.51%p,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3.20%p가 성장 주도, 서비스업(4.91%p)도 일부 성장에 기여



〈그림 3-5〉 경북 성장률과 업종별 기여도 비교

- 외환위기 당시, 1998년 경북 경제성장률은 -6.5%로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1.45%p)의 성장 부진이 영향을 미쳤으며,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0.05%p)가 기여, 서비스업(-0.33%p)도 일부 성장 부진에 영향

- 2009 년 성장률은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0.4% 성장하였으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조(-0.83%p)의 성장 부진이 영향, 서비스업(0.81%p)도 일부 성장 기여
- 2020 년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2.9% 성장했으며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0.96%p),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0.96%p)의 성장 부진이 영향

제2절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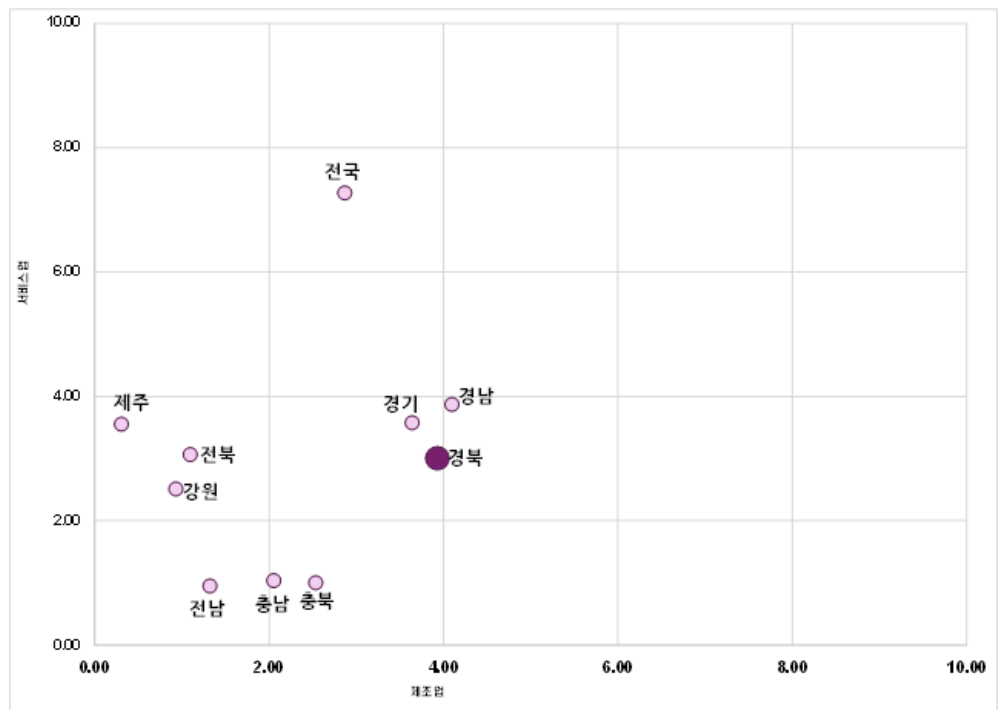
1. 지역별 지역내총생산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비중

- 경북은 1985 년~2022 년 사이 연평균 5.2% 성장
 - 제조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3.927%p 증가, 서비스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3.006%p 증가
 - 제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표 3-3〉 1985~2022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2.867	3.639	0.929	2.531	2.050	1.092	1.318	3.927	4.097	0.301
서비스업	7.274	3.573	2.508	1.005	1.038	3.066	0.950	3.006	3.872	3.555
연평균성장 (%)	5.4	7.5	3.4	5.7	5.2	4.0	3.3	5.2	4.2	5.0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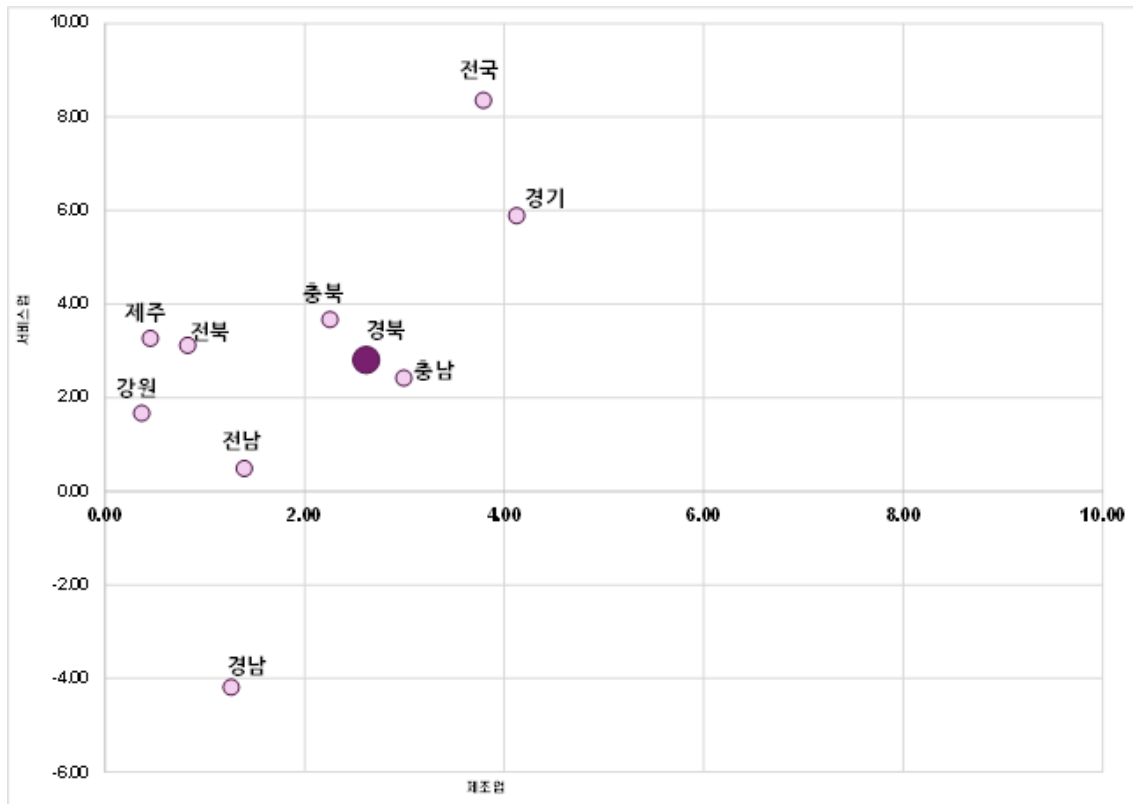
〈그림 3-6〉 1985~2022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 1985 년~1994 년 경북은 연평균 7.8%의 고도 성장

- 제조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2.613%p 증가, 서비스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2.816%p 증가
- 전국은 연평균 9.4% 성장할 때 제조업 1% 상승 시, GRDP 3.791%p, 서비스업 1% 상승 시, 8.353%p 증가하여 서비스업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큼. 경북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3-4〉 1985~1994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3.791	4.122	0.365	2.252	2.994	0.825	1.392	2.613	1.261	0.449
서비스업	8.353	5.887	1.669	3.671	2.421	3.121	0.490	2.816	-4.188	3.264
연평균성장 (%)	9.4	12.3	4.6	8.7	4.2	6.7	5.1	7.8	10.7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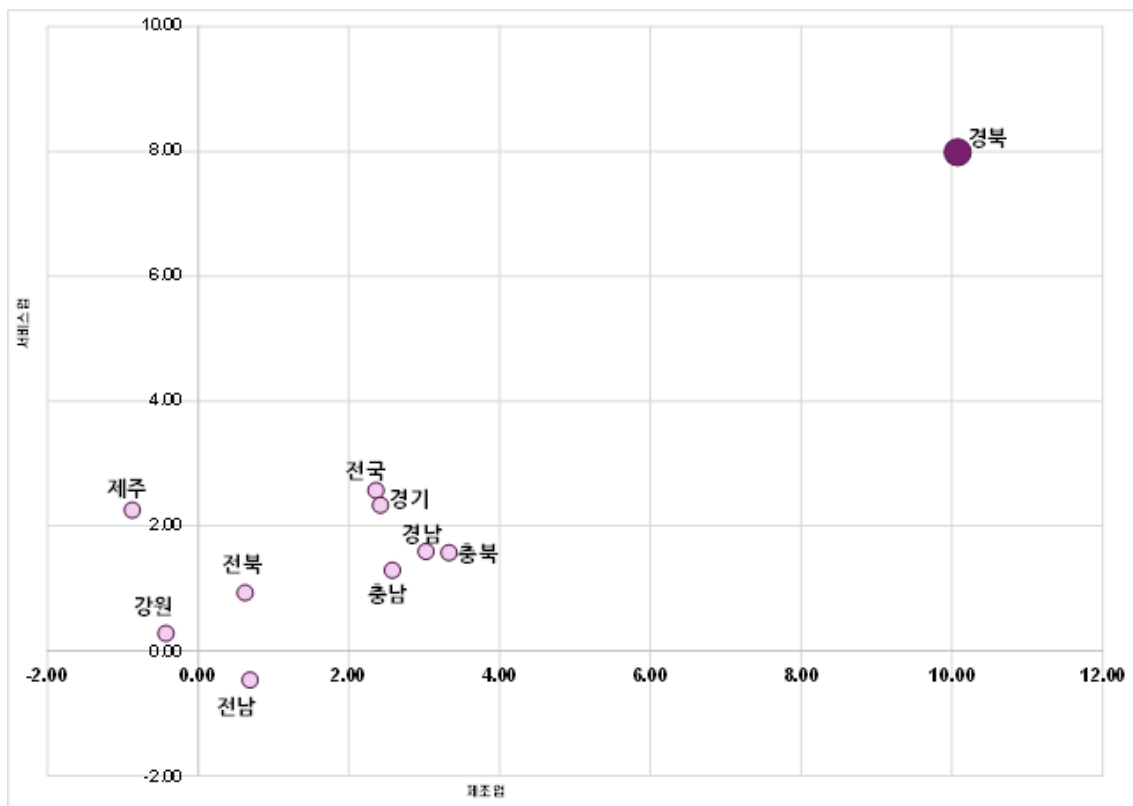
〈그림 3-7〉 1985~1994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 1995 년~2004 년 경북은 연평균 7.8% 성장

- 제조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10.075%p 증가, 서비스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7.989%p 증가
- 서비스업 비중(47.4%)이 가장 높은 시점인 1993 년을 포함한 기간임에도 제조업 비중이 GRDP 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표 3-5〉 1995~2004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2.359	2.420	-0.427	2.577	3.328	0.624	0.686	10.075	3.022	-0.872
서비스업	2.569	2.332	0.283	1.289	1.571	0.933	-0.464	7.989	1.590	2.254
연평균성장 (%)	5.4	7.1	2.8	4.8	8.6	3.4	3.9	7.8	0.6	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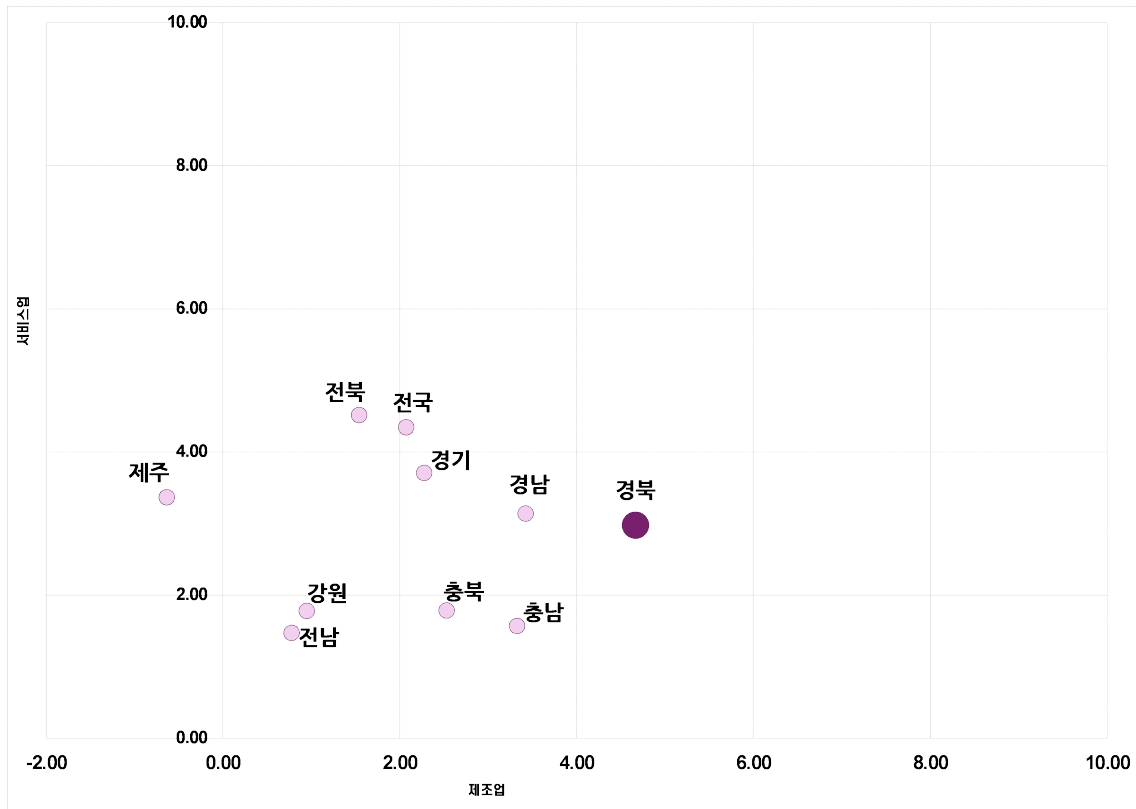
〈그림 3-8〉 1995~2004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 2005 년~2014 년 경북은 연평균 4.0% 성장

- 제조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4.660%p 증가, 서비스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2.985%p 증가

〈표 3-6〉 2005~2014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2.076	2.278	0.952	2.534	3.328	1.544	0.779	4.661	3.425	-0.631
서비스업	4.350	3.712	1.784	1.786	1.571	4.519	1.475	2.985	3.144	3.369
연평균성장 (%)	3.8	5.5	3.4	5.0	4.6	3.4	2.2	4.0	3.6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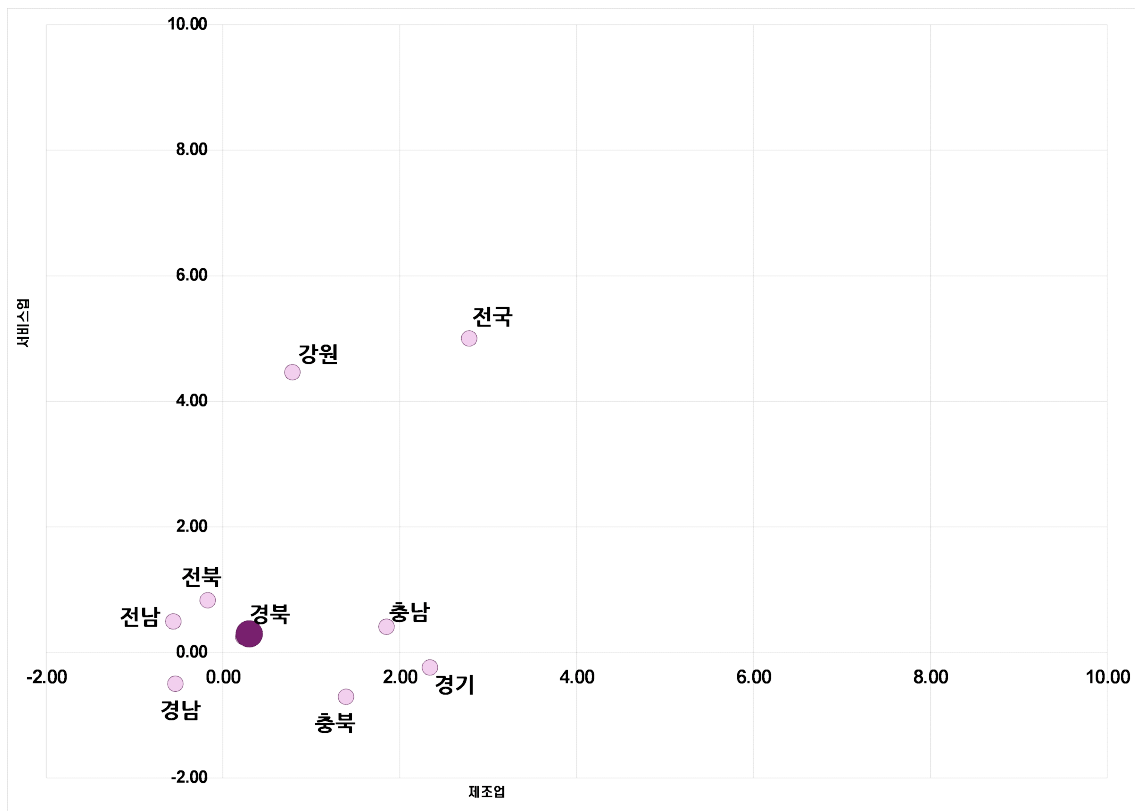
〈그림 3-9〉 2005~2014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 2015 년~2022 년 경북은 연평균 0.5% 성장

- 제조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0.292%p 증가, 서비스업 비중이 1% 상승할 때, GRDP 는 0.298%p 증가

〈표 3-7〉 2015~2022년 지역내총생산대비 업종별 비중

	전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제조업	2.790	2.342	0.790	1.394	1.851	-0.170	-0.557	0.292	-0.533	0.236
서비스업	5.004	-0.236	4.466	-0.702	0.411	0.833	0.498	0.298	-0.493	0.248
연평균성장 (%)	2.5	4.4	2.4	4.2	2.6	1.4	1.3	0.5	0.5	1.6



〈그림 3-10〉 2015~2022년 지역별 제조업 서비스업 비중

제3절 역대 정부의 산업정책

1. 이승만 정부(제1공화국, 1948~1960)

■ (경제재건·자립화)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산업화

- 국가 주도의 산업화,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자립경제체제 기반 조성
 - (1950 년대의 공업화) 미국의 원조정책 필요 물자의 원료나 중간재와 연관된 제분·식료품·섬유공업 등의 육성 지원
 - (경제자립화) 미국 ‘원조 없이도 재생산할 수 있는 자립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소비재 중심의 수입대체산업 육성, 동력·섬유·화학공업 자립화 기반 조성
 - (관련 계획) 산업부흥 5 개년 계획(1954), 경제안정 15 원칙, 경제부흥 5 개년계획(1956), 경제개발 3 개년 계획(1958) 등
 - 생산력 증강, 인플레이션 극복,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금융통제, 외환통제(저환율정책), 보호무역 정책을 수반
- (농업 개선) 식량의 자급자족
 - (농지개혁법 제정, 1949 년)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자작농을 육성(소작농에게 농지를 분배, 지주의 토지 소유권 제한을 원칙)

2. 장면 내각 정부(제2공화국, 1960~1961)

■ 공업구조 고도화 기반 구축

- (제 1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1962~1966) 산업구조 근대화, 자립경제 확립 촉진
 - 공업화·산업기반 구축, 내수 중심 자립화
 - 농촌 개발, 기간산업 확충(전력·석탄의 에너지원, 중화학공업) 및 수출 증대, SOC 확충(교통, 통신, 에너지), 인적 자원 개발(교육 및 기술 훈련 강화)

3. 5.16 군사정부(제3공화국, 1963~1972)

■ 수출산업 육성, 중화학공업 육성 기반 구축

- 만성 적자인 국제수지의 개선, 생산유발 효과 확대, 고용 증대를 위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이 과제
- (제 2 차 경제개발 5 개년계획, 1967~1971) 중화학공업 육성 본격 추진, 과학기술 진흥
 - (산업구조 근대화) 농림·수산업 비중 줄이고 비농림·수산업 비중, 특히 광공업의 비중을 확대
- (제 2 차 과학기술진흥 5 개년계획, 1966)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산업고도화, 기술 수준과 생산성 향상
- (공업진흥법 제정) 화학·철강·기계공업 등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재정·금융상의 지원 체계를 제도화, 대규모 중화학공업 공장 건설 지원, 특정 산업 선정하여 재정·금융상의 지원정책 시행
 - 기계공업진흥법(1967), 조선공업진흥법(1967), 전자공업진흥법(1969), 석유화학공업육성법(1970), 철강공업육성법(1970), 비철금속제철공업사업법(1971)
 - 경인·경부고속도로 준공, 새마을 운동

4. 박정희 유신정부(제4공화국, 1972~1979)

■ 중화학공업 기반의 수출산업 고부가가치화·경쟁력 강화

- (제 3 차 경제개발 5 개년 계획, 1972~1976) 자립적 경제구조 달성, 지역개발의 균형(성과 분배)
 - (자립적 경제구조)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산업구조 고도화와 이의 수출산업 육성(철강공업, 일반기계공업, 전기기계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전자공업, 석유화학공업,

방위산업 등 육성)

- 포항종합제철소 제 1 고로 준공(1973. 6. 9),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준공(1974. 6)
 - (산업기술자 확보) 실업계 학교를 증설하고 실험실습 시설을 대폭 확충, 직업훈련을 강화, 기능공의 공급 확대 및 숙련 향상 훈련
 -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 등 계속 지원
 - (산업기지개발구역 지정(안), 1974) 창원 종합기계공업기지, 여천 종합화학공업기지, 온산 석유정제 및 비철금속공업기지, 옥포 조선공업기지 등 특정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지 건설 계획
- (제 4 차 경제 개발 5 개년 계획, 1977~1981) 자력성장 구조 확립,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 증진, 기술혁신과 능률 향상
- (중점과제) 산업구조의 고도화, 새로운 기술도입과 토착화 촉진, 연구개발 투자 증대, 노사협조체제 강화,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수입자유화 추진, 기업의 경영합리화
 - 중화학공업 중에서 특히 전후방 연관효과가 높고 숙련노동 집약적인 기계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 그 외 전자, 조선 부문 육성
 - 산업별 정부출연연구소를 산업거점지역에 설치 계획(창원 기계금속연구소)

5. 최규하 정부, 신군부 과도 정부(1979~1980)

- 전두환 정부로 이어지는 과도기의 시작으로 과거 중화학공업 중심의 성장정책을 재평가하고 과도한 투자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수출 주도의 성장정책 강화

6. 전두환 정부(제5공화국, 1981~1988)

■ 과학기술 기반의 비교우위산업 육성

- 정부의 산업정책이 종전의 정부 주도의 직접·선별 육성 지원 정책에서 시장 중심의

재정·금융 등의 수단을 통한 간접·일반 지원방식으로 산업지원제도를 합리화

- 정부는 정부출연연구소를 통해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정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통해 과학기술 및 산업기술의 발전을 촉진
- 공업진흥법 폐기, 공업발전법(198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980)

○ (기계공업진흥기본계획, 1981. 7) 기계공업을 수출주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중소 전문기계공업을 육성하고 중소 부품공장의 전문 계열화를 추진, 2)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기계 및 부품별 시설, 기술, 인력, 공정 등에 관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 3)기계의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해 국산기계 구입 촉진과 해외 수출개척 활동을 집중적으로 지원

○ (제 5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 1982~1986) 과학기술 분야 투자 확대, 비교우위산업 육성

- 물가안정, 경제안정에 최우선을 둔 재정과 금융을 통한 총수요관리정책으로 정부 역할이 조정
-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비교우위 산업구조로 경제를 재편하고자 자본·자원 절약적, 기술·기능 집약적 산업인 기계·전자공업의 발전을 계획

7. 노태우 정부(제6공화국, 1988~1993)

■ 고기술 부문 중심의 산업구조 선진화

○ (제 6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 1987~1991) ‘능률과 형평을 토대로 한 경제 선진화와 국민복지의 증진’을 기본목표

- (중점과제) 고기술부문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개편, 기계류·부품 및 소재 생산 중소기업의 획기적 육성 발전, 인력개발 및 기술수준 향상의 강화
-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신흥개도국 간의 수출시장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출구조를 고급품 위주로 고도화

- 국제비교우위 구조 변화에 따라 기계, 전자, 자동차 등 수출유망품목을 수출주도업종으로 육성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에 적극 참여하여 대외통상교섭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
- (불황산업 구조조정) '해운산업합리화대책(1987)', '조선산업 합리화계획(1989)'

8. 김영삼 정부(1993~1998)

■ (경제선진화)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과 정보화 촉진

-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 개년 계획, 1992~1996) '21 세기 경제사회 선진화'
 - (기본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정책과제) ①산업사회에 부응하는 교육 및 인력양성제도의 개편, ②기술혁신과 정보화 추진, ③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수송체계의 효율화, ④기업경영 및 산업조직의 효율화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신경제 5 개년 계획, 1993~1997) ①투자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②중소기업을 내실 있게 육성, ③기술개발투자의 효율성을 제고, ④경제행정규제 등 기업의 애로요인 제거
 - (세부과제) ①산업구조 조정의 촉진, ②기술개발 및 정보화 촉진, ③사회간접자본 확충과 물류개선, ④국토의 효율적 이용, ⑤인력개발 및 노사관계의 안정, ⑥공정경쟁질서의 정착, ⑦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9. 김대중 정부(1998~2003)

■ (지역산업 진흥 사업)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시작

■ 산업구조조정, IT산업, 중소기업 지원

- (IT 산업 육성)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

- (글로벌 경제 통합) 국제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외국인 투자 유치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 중심의 국가경제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
- (녹색 성장)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
- (산업구조조정) 금융위기·IMF 구제금융에 따른 고용·경제구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조정 및 신산업 분야 진입 촉진

■ (문화산업 육성) 문화시장 개방 대응, 문화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국제경쟁력 강화

- 새로운 천년을 ‘문화의 시대’로 규정하고 벤처산업과 더불어 문화산업 육성을 최우선 국정과제에 포함, 디지털 문화콘텐츠 기반 문화산업 육성 추진
 - 1998 년 〈새문화관광정책〉을 통해 ‘지원은 하되 간섭은 않는다’는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구호로, 문화가 중심가치가 되는 지식정보화사회를 추구(김정수, 2017: 420; 강순화·김학실, 2024: 219 재인용)
 - 문화산업을 21 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전망하고, 문화정책의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 정책을 추진(배관표 외, 2013: 156-157; 강순화·김학실, 2024: 219 재인용)
- (문화산업 육성 기반 구축) 법·제도, 지원 체제 마련
 - (1999 년「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정*) ‘문화산업’을 처음으로 정의하여 대한민국 행정 체계에 적용, 문화산업발전 기반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당시 세계를 휩쓸던 정보기술(IT) 혁명 물결에 발맞춰 전통문화와 순수예술 영역을 경제적으로 융합하는 문화산업을 강조하고 거기에 더해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광고, 디자인, 멀티미디어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을 문화산업 범주에 포함
 - (문화산업진흥기금 신설) 문화상품에 투자·융자, 국가 차원의 문화산업 지원을 법규로 명문화
 - (문화산업 중장기 계획 수립) 문화산업진흥 5 개년 계획(1999), 문화산업비전 21(2000)*, 콘텐츠코리아 비전 21(2001) 등 수립,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적 지원과 진흥의 대상으로 제도화

○ (문화산업 지원 거버넌스 체계 구축)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 문화산업지원기관 설립

-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
- 영화진흥위원회 개편(1999 년), 방송위원회(2000 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001)*,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설립,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온라인콘텐츠산업 지원기관으로 지정

* 문화콘텐츠의 디지털 기반 산업화 지원 추진 허브로, 본격적인 수출 진흥 정책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역할 수행, 게임·음악·애니메이션·만화·캐릭터 등 산업별로 지원센터를 두고 이들 각 분야의 문화산업을 통합적으로 육성·지원

○ (문화산업 분야 지원 예산 확대) 문화 부문에 정부 예산의 1% 이상을 배정하고 문화산업 예산을 500% 이상 늘리는 등 재정 지원

- 문산기금, 영화금고 등 문화부 관련 예산 외 정보통신부의 정보화촉진기금 1,000 억 원 편입 등

〈표 3-8〉 김대중정부 문화산업정책

시기	정책추진	주요 내용
1998.02	문화체육부를 문화관광부로 개편	문화산업국 직제 개편 실시(4회)
1999.0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	문화산업을 문화·예술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규정
1999.03	「문화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문화산업에 특화된 중장기 기본계획 - 수출상품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1999.05	문화산업진흥기금 설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근거하여 설치 - 문화산업분야의 기획 및 창작력 강화, 문화상품 유통구조 개선, 제작 인프라 현대화 등 - 문화산업진흥기금을 통한 투자 지원으로 영세 콘텐츠기업의 제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한류의 밑거름 마련
2000	「문화산업비전21」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영상산업, 음악산업, 게임산업, 문화상품, 출판산업 등 5가지의 분야별 육성책 제시
2001	「콘텐츠 코리아 비전 21」 수립	- 최초 문화콘텐츠산업 정책 계획 - 디지털시대를 맞아 문화산업 법제 정비 - 콘텐츠 창작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진출 거점 확보, 경쟁력 있는 스타프로젝트 발굴 ⇒ 문화콘텐츠산업을 국가적 지원과 진흥의 대상으로 제도화
2001.08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문화산업 수출 진흥 정책의 집행 인프라 역할 수행 2001년 10월, 일본 및 중국 사무소 개소 ⇒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핵심 역할 기관
2002.01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온라인콘텐츠 산업지원기관으로 지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제13조에 의거 디지털콘텐츠 담당 산하기관 구축

자료 : 강순화·김학실, 2004, 우리나라 문화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2024년 제 14권 제1호

10. 노무현 정부(2003~2008)

■ (지역혁신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정부 주도의 지역산업 육성 본격화

- (지방분권·자치제 강화) 지역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특성과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지원
- (분산형 지역균형발전정책)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핵심 과제,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지역발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
 - (자립적 지방화) 지방의 자생력과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저발전 문제를 지역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내생적 발전 시스템인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지역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 5 개년 계획, 지역혁신발전 5 개년 계획 수립·추진
 - (지방살리기 3 대 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 추진특별법’
 - (지역균형발전 지원 제도장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 회 설치 등
- (지역혁신체계 구축) 전략산업 육성, 산업클러스터 구축, 지방대학 육성, 지역혁신 인프라 구축 등의 실천과제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자립형 지방화 촉진을 위해 신행정수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 이를 거점으로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의 조성 및 혁신 클러스터화, 기업유치, 기술인력 양성 등의 지원책 마련
-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역 특성과 잠재력을 고려한 지역경제의 현실과 부합하는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지원, 5 개 광역경제권별 경제구조의 다각화·특화 모색
 - 실제로는 광역시도나 기초지자체 중심의 지역단위에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사업이 전개
-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창업 지원,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여 지역별 경제 활동을 지원

■ IT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

- IT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게임, 애니메이션, 웹툰 등의 산업을 육성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지원, 콘텐츠 창작 활동 지원 제도를 도입
 - [국가 정보화 기본법] 제정, 디지털 경제발전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와 디지털 기술 보급을 촉진
- (디지털 인프라 구축) 전자정부시스템 도입, 광대역 인터넷망과 무선 인터넷 인프라 구축
- (벤처기업 육성)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투자 환경 개선, 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을 실시하여 창업 활동을 지원
- (중소기업 지원 정책 강화) 중소기업의 자금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을 확대, 기술개발·창업 지원 제도 및 기금 마련
- (외국 투자 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제도 마련, 외국인투자자 법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

11. 이명박 정부(2008~2013)

■ 지역개발단위의 광역화, 권역별 특성화, 분권과 자율경쟁의 강화

- 전국을 4개+ α 벨트의 초광역개발권, '5+2 광역경제권'과 '163 개의 기초생활권'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준에 맞는 지역발전전략 수립 → 광역선도산업, 거점대학 육성, 30 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 기존 광역자치단체를 2~3 개씩 합쳐 지역간 연계협력에 따른 성장동력 창출과 시너지 효과 창출 모색
 - 균형발전보다는 국가경쟁력에 초점을 둔 시장 중심의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 중앙정부가 사업 선정권 독점 및 매뉴얼 지정, 경쟁적인 국책사업 선정 방식 채택으로 지자체 간 경쟁 유발

■ (친기업 경영환경 조성) 수도권 규제 완화 등 규제개혁

- (수도권 규제 완화) 국가경쟁력 강화 및 첨단업종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산업단지 내 규모·업종 제한 없이 공장의 신설, 증설 및 이전 허용
 - 첨단업종 기존 공장의 증설 범위 확대,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지원도시 사업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이 확정된 지구 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 서울은 IT 산업이 입주하는 소규모(1 만㎡이상)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 허용,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500 ㎡ 이상 공장으로 상향 조정
-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 심화) 친기업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촉진했지만, 동시에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를 심화
- (노동시장 유연화) 일시해고제 도입, 파견근로자 사용 확대, 최저임금 인상률 동결 등

■ 저탄소 지식기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전통산업의 지식화 추진)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 일부 업무를 포괄해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개편
- (10 대 신성장동력) 녹색성장, 바이오, 나노, 디스플레이, 차세대 자동차, 로봇, 첨단 의료기기, 해양플랜트, 우주항공, (녹색)융합기술¹⁾ 등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와 고유가(에너지 고갈)에 대처, 약화된 경제성장에 성장동력을 일으키기 위해 녹색기술²⁾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녹색성장 5 개년 계획, 2009~2013)
 - 저탄소형 녹색산업구조로의 변환 : 산업 분야 에너지 효율성 강화, 청정에너지 활용, 신재생에너지산업, 친환경 소재 개발, 지식서비스산업 등 탄소 저배출형 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

1) 예를 들면, 국가그린나노기술로, “나노기술을 기반으로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5년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할 친환경 고부가가치 원천기술”이며, 이 외에도 녹색기술분야의 기술혁신을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소위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강조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 발전 및 국가의 부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녹색성장의 목표였다(한국행정연구원, 2012).

2) “녹색기술”의 개념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과 같은 에너지원기술, 전력, 수송, 주택에서의 고효율화기술, 그리고 대기오염 및 폐기물 사후처리기술임(한국행정연구원, 2012).

12. 박근혜 정부(2013~2017)

■ (창조경제³⁾·문화융성) ICT융합·문화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 ICT, 문화콘텐츠산업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기존 산업 및 과학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산업진흥 정책) 중점산업으로, 정보통신기술(IT), 바이오산업, 첨단 제조업 등 분야의 연구개발(R&D) 지원과 투자를 확대
 -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 제조업혁신 3.0 전략 수립 → ICT 산업 육성, 스마트공장 보급과 제조업 고도화를 추진

■ ‘지역행복생활권⁴⁾’ 추진, 기초지자체 단위 일자리 창출 중심의 지역산업정책 전환

- 인구유출과 투자유인 감소로 인한 지방도시 쇠퇴, 농산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한 현실인식에 근거, 전국 어디에서나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기초생활권 단위 지역 활력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프로젝트나 지역발전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 기반시설, R&D, 자금 등 핵심적인 요소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
-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지역 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를 창조경제의 거점으로 육성, 농어촌 일자리 창출
- (지역균형발전 지속 추진) 혁신도시·세종시 보완 발전, 지역공약 이행 지원

3) 창조경제종합포털(www.creativekorea.or.kr) 참조.

‘창의적 아이디어, 상상력과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된 창의적 자산이 창업 또는 기존 산업과 활발하게 융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생겨나게 함으로써 양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정의

4)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심도시, 농촌중심지,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 농어촌 중심지, 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한 권역이라 할 수 있음(유정열, 2013)

13. 문재인 정부(2017~2022)

■ (혁신성장 정책)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 성장 구현

-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저하와 고용창출력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혁신 성장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 협력·혁신 산업 생태계 기반 중소기업 성장 동력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
 - 지역 차원에서도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청년인구 유출 등에 대응하여, '기술혁신-사업화-일자리 창출-인구 유입' 선순환 구조 구축을 통한 지역성장 구현을 위해 혁신성장에 정책적 노력
 - (혁신성장) 우리 경제사회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성장전략, 민간주도로 기술·자본·인력 등 생산요소의 원활한 연결을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 개선, 규제 재설계, 사회적 자본 확충 등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혁신도 병행
 - (혁신성장 흐름) "사람·교육 → 연구개발(R&D) → 창업 → 신산업기반"의 경로를 통한 지역 생산성 증대가 실현되도록 혁신활동이 기업 창업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 (4차 산업혁명 대응) 미래차, 바이오,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에너지, 해양플랜트, 우주항공, 융합기술, 디지털콘텐츠 등 10대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개발 투자 및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 (실증 인프라 구축)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중소기업 R&D 지원
 - (디지털 뉴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와 혁신 촉진, 미래산업분야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인프라 강화, 디지털 교육 확대, 디지털산업 육성 등에서의 투자와 지원을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

■ (제조업 부흥)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관계부처 합동, 2019),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관계부처 합동, 2019),
- ‘K-반도체 전략’(관계부처 합동, 2021) : 2030 년 세계 최고의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종합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한 전방위적 세제·금융·인프라 지원

■ (포용성장 정책) 중소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한 가계소득 증대 및 안전망 확충을 통해 내수 확대 도모
- (일자리 중심 경제) 일자리 확충 및 사용자 중심 노동시장의 제도 개선을 도모
 - 청년 일자리 창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등
- (공정 경제)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근절 및 동반 성장을 촉진

■ 산업혁신 지원,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탈원전)

- 제 4 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의 정책이 강조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혁신을 촉진하고, 동시에 친환경 에너지 및 기술에 투자

14. 윤석열 정부(2022~)

■ (지방시대) 지자체 주도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시도 단위 지방시대계획⁵⁾ 수립) 5 대 전략 22 개 핵심과제, 68 개 실천과제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7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기초계획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 계획

- (정책심의·자문·지원기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
- (지역 산업 육성 방향)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지역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인재양성·R&D -> 산업구조전환 -> 일자리 창출 -> 인재 유입 -> 지역 발전'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권역별 혁신성장 거점 조성 및 확충) 첨단산업클러스터, 규제자유특구, 글로벌혁신특구,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강소연구개발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첨단산업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소부장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 ※ (High5+ 집중 육성)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

〈표 3-9〉 윤석열정부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10대 국정과제

3대 약속	10대 국정과제
(비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① 진정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시대	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력 강화 ③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④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
② 혁신성장 기반 강화를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	⑤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⑥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 ⑦ 지역 맞춤형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③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 발현 및 지원	⑧ 지역특화형 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⑨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⑩ 지방소멸 방지, 균형발전 추진체계 강화

■ (초광역권 산업 육성) 광역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지역경제·산업 발전 촉진

-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경제·산업 발전을 촉진할

산업 분야를 초광역협력 전략산업으로 육성(균특법 제 11 조제 2 항)

-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지역 간 연계협력(초광역권산업, 초광역협력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재정과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수립
 - (균특법 제 10 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단일 시·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초광역적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2 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여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 (균특법 제6조의2)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 19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법정계획)을 수립
 - 초광역권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업지원, 입지(공간거점) 등과 관련한 지역간 협력 핵심과제 제시

〈표 3-10〉 권역별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초광역권	협력지역		전략산업
부산·울산·경남	부산, 울산, 경남		친환경 차세대 수송기기
			저탄소 그린에너지
대구·경북권	대구, 경북		바이오·의료
			미래형 모빌리티
			첨단반도체
			AI·로봇
			도심형모빌리티(UAM)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미래 모빌리티부품
			첨단바이오헬스
광주·전남권	광주, 전남, 제주		분산에너지
	전남, 강원, 제주		융합바이오
	광주, 전북		목적기반 모빌리티
강소권	전북	전북, 강원	그린수소에너지
		전북, 광주	목적기반 모빌리티
	강원	강원, 전북	그린수소에너지
		강원, 제주, 전남	융합바이오
	제주	제주, 광주, 전남	분산에너지
		제주, 전남, 강원	융합바이오

제4절 소결

■ 제조업 성장이 경북지역 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 경북 제조업 성장률은 2017 년을 기점으로 성증 둔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났지만 1980년대~2000년대까지 경북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이 경북 경제성장을 견인
 - 특히,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제조업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의 기여도가 높음.

■ 한국의 산업정책은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에 따라 변화하며 발전

- 초기 발전기(1948~1960): 이승만 정부는 미국의 원조와 농지 개혁을 통해 기초적인 자립 경제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소비재 중심의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 산업화 기반 구축기(1960~1980):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수출 중심의 산업화와 중화학공업 육성을 본격화하며 산업 고도화를 이루며 대규모 기간산업과 기반 시설 확충
- 기술 혁신과 자유화(1980~1990): 전두환 정부 이후 과학기술 진흥과 시장 중심의 간접지원 정책으로 전환, 고기술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과 비교우위 산업 육성
-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1990~2000):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기술혁신과 IT 산업 육성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 문화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통합 전략 강화
- 창조와 융합의 시대(2000~2017):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ICT 융합, 창조경제, 녹색성장 등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과 혁신적인 경제 모델 구현
-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지속가능성(2017~현재):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과 신성장동력 육성 중점,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과 지역 특화산업 육성 추진

■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보기 힘들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주력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필요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경북은 제조업 비중이 높아질수록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서비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
- 서비스업 비중이 가장 높은 시점을 포함한 기간인 1995~2004 년 경북은 연평균 7.8%로 고도 성장하는 기간에도 제조업 비중의 GRDP 기여도가 서비스업 비중의 기여도 보다 높음.



제 4 장

경북 경제·산업 재편 당위성

제1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 비교

제2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개선 효과

제3절 제조업 40% 유지 당위성

제4장 경북 경제·산업 재편 당위성

제1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 비교

■ 제조업·서비스업 업종별 평균 일자리 유지기간(회전율)

- 종사자수는 사업체수가 많은 서비스업이 많지만, 단위 업체당 고용은 제조업이 8.4 명으로, 전산업(3.8 명) 및 서비스업(3.2 명)보다 2 배 이상 많음
 - 서비스업 73.5%, 제조업 11.6%로, 서비스업체 수가 제조업의 6 배 이상
- 제조업 고용 형태는 상용직이 84.1%(업체당 7.1 명⁶⁾)로 압도적 비중, 대체로 장기 근속이 보장되는 고용이 주를 이룸
 - (서비스업 고용형태) 상용직 54.7%로 과반이상이나 업체당 1.8 명에 불과

〈표 4-1〉 경북 전산업 업종별 종사상지위

단위 : 개, 명, %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개사	비중	종사자수	비중	사업체당 종사자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임시및일용	기타
전산업	333,276	100.0	1,255,597	100.0	3.8	275,072 (21.9)	34,423 (2.7)	778,237 (62.0)	124,921 (9.9)	42,944 (3.4)
제조업	38,816	11.6	325,945	26.0	8.4	28,023 (8.6)	4,356 (1.3)	273,968 (84.1)	18,464 (5.7)	1,134 (0.3)
서비스업	244,972	73.5	788,701	62.8	3.2	207,804 (26.3)	29,025 (3.7)	431,400 (54.7)	80,708 (10.2)	39,764 (5.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 특히, 제조업 고용은 전자통신,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 등 경북의 대표 주력업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
 - (업종별 종사자수) 전자통신 12.7%, 자동차 11.1%, 금속가공 10.6%, 기타기계장비 8.8%, 1 차금속 8.7%로, 지역 3 대 주력업종이 지역 제조업 고용의 1/3 이상 담당

6)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 사업체수

- * (2020년 경북 제조업 10대 업종(부가가치)) 전자통신, 1차금속, 자동차, 금속
가공, 전기장비, 기타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화학, 비금속광물, 식료품
- (업체당 종사자수) 전자통신 30.2 명, 1 차금속 23.7 명,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1.0
명, 자동차 17.2 명, 전기장비 14.4 명

〈표 4-2〉 경북 제조업 업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단위 : 개, 명, %

산업분류명칭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	비중	명	비중	사업체당
제조업	38816	100.0	325945	100.0	8.4
식료품 제조업	6981	18.0	28178	8.6	4.0
음료 제조업	238	0.6	1679	0.5	7.1
담배 제조업	3	0.0	502	0.2	167.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2735	7.0	17462	5.4	6.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87	1.0	1133	0.3	2.9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87	0.2	258	0.1	3.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798	2.1	2858	0.9	3.6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39	1.4	5109	1.6	9.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66	1.5	1262	0.4	2.2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5	0.1	556	0.2	10.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78	3.8	14523	4.5	9.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8	0.2	1848	0.6	21.0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81	5.1	20616	6.3	10.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589	4.1	14920	4.6	9.4
1차 금속 제조업	1202	3.1	28485	8.7	23.7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5329	13.7	34468	10.6	6.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75	3.5	41544	12.7	3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992	2.6	7830	2.4	7.9
전기장비 제조업	1556	4.0	22465	6.9	14.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58	12.0	28597	8.8	6.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097	5.4	36074	11.1	17.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77	1.0	2726	0.8	7.2
가구 제조업	894	2.3	2498	0.8	2.8
기타 제품 제조업	1274	3.3	3300	1.0	2.6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37	4.0	7054	2.2	4.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 (제조업종별 상용직 고용 비중) 1 차금속 95.1%,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94.8%,
전기장비 92.3%, 화학 92.1%, 자동차 91.3%, 고무·플라스틱 90.1%
- (제조업종별 상용직 고용 비중) 1 차금속 95.1%,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94.8%,
전기장비 92.3%, 화학 92.1%, 자동차 91.3%, 고무·플라스틱 90.1%

〈표 4-3〉 경북 제조업 업종별 종사상지위

산업분류	종사자수	종사상지위별 종사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임시및일용	기타
제조업	325945 (100.0)	28023 (8.6)	4356 (1.3)	273968 (84.1)	18464 (5.7)	1134 (0.3)
식료품 제조업	28178 (100.0)	5857 (20.8)	2517 (8.9)	16203 (57.5)	3012 (10.7)	589 (2.1)
음료 제조업	1679 (100.0)	134 (8.0)	60 (3.6)	1400 (83.4)	80 (4.8)	5 (0.3)
담배 제조업	502 (100.0)	-	-	419 (83.5)	66 (13.1)	17 (3.4)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7462 (100.0)	2102 (12.0)	317 (1.8)	14247 (81.6)	749 (4.3)	47 (0.3)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33 (100.0)	337 (29.7)	57 (5.0)	701 (61.9)	23 (2.0)	15 (1.3)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8 (100.0)	71 (27.5)	5 (1.9)	165 (64.0)	16 (6.2)	1 (0.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858 (100.0)	593 (20.7)	71 (2.5)	1955 (68.4)	224 (7.8)	15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109 (100.0)	358 (7.0)	58 (1.1)	4556 (89.2)	124 (2.4)	13 (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62 (100.0)	528 (41.8)	67 (5.3)	625 (49.5)	41 (3.2)	1 (0.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56 (100.0)	20 (3.6)	1 (0.2)	527 (94.8)	8 (1.4)	0 (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4523 (100.0)	734 (5.1)	59 (0.4)	13376 (92.1)	337 (2.3)	17 (0.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848 (100.0)	32 (1.7)	1 (0.1)	1595 (86.3)	217 (11.7)	3 (0.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616 (100.0)	1245 (6.0)	119 (0.6)	18573 (90.1)	648 (3.1)	31 (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4920 (100.0)	865 (5.8)	97 (0.7)	13283 (89.0)	584 (3.9)	91 (0.6)
1차 금속 제조업	28485 (100.0)	609 (2.1)	30 (0.1)	27085 (95.1)	729 (2.6)	32 (0.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34468 (100.0)	3994 (11.6)	232 (0.7)	28094 (81.5)	2081 (6.0)	67 (0.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1544 (100.0)	785 (1.9)	30 (0.1)	36283 (87.3)	4425 (10.7)	21 (0.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7830 (100.0)	674 (8.6)	13 (0.2)	6759 (86.3)	369 (4.7)	15 (0.2)
전기장비 제조업	22465 (100.0)	951 (4.2)	52 (0.2)	20737 (92.3)	711 (3.2)	14 (0.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597 (100.0)	3300 (11.5)	138 (0.5)	23987 (83.9)	1134 (4.0)	38 (0.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6074 (100.0)	1211 (3.4)	67 (0.2)	32936 (91.3)	1788 (5.0)	72 (0.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726 (100.0)	245 (9.0)	8 (0.3)	2266 (83.1)	185 (6.8)	22 (0.8)
가구 제조업	2498 (100.0)	823 (32.9)	112 (4.5)	1436 (57.5)	126 (5.0)	1 (0.0)
기타 제품 제조업	3300 (100.0)	1169 (35.4)	115 (3.5)	1833 (55.5)	181 (5.5)	2 (0.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7054 (100.0)	1386 (19.6)	130 (1.8)	4927 (69.8)	606 (8.6)	5 (0.1)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 서비스업 고용은 사업체수가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보건업·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서비스업은 사업체 수는 적으나 서비스업 고용에서 높은 비중 차지
 - (업종별 종사자수) 도소매업 1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6.5%, 숙박 및 음식점업 14.6%, 교육 서비스업 10.8%
 - ※ (업종별 사업체수) 도소매업 29.8%, 숙박 및 음식점업 22.4%, 운수 및 창고업 13.4%,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0%
 - (업체당 종사자수)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7.9 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5.1 명, 금융 및 보험업 9.0 명, 교육 서비스업 7.0 명

〈표 4-4〉 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사업체수·종사자수

산업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	비중	명	비중	사업체당
서비스업	244972	100.0	788701	100.0	3.2
도매 및 소매업	72987	29.8	144474	18.3	2.0
운수 및 창고업	32852	13.4	59894	7.6	1.8
숙박 및 음식점업	54907	22.4	114978	14.6	2.1
정보통신업	2295	0.9	10312	1.3	4.5
금융 및 보험업	2696	1.1	24342	3.1	9.0
부동산업	8715	3.6	21173	2.7	2.4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272	2.6	34738	4.4	5.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5950	2.4	33754	4.3	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75	0.5	61121	7.7	47.9
교육 서비스업	12126	4.9	85034	10.8	7.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593	3.5	130136	16.5	15.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6874	2.8	20747	2.6	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430	12.0	47998	6.1	1.6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 서비스업의 업종별 종사상지위는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나 공공행정/사회보장 분야의 서비스업에서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고용형태가 많이 나타남
- (상용직 고용 비중)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1.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1.6%, 정보통신업 79.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6.5%, 교육 서비스업 75.5%
 - 반면, 지역 서비스업에서 업체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종사자 지위상 자영업자가 대부분으로, 상용직 비중은 각각 36.2%, 21.9%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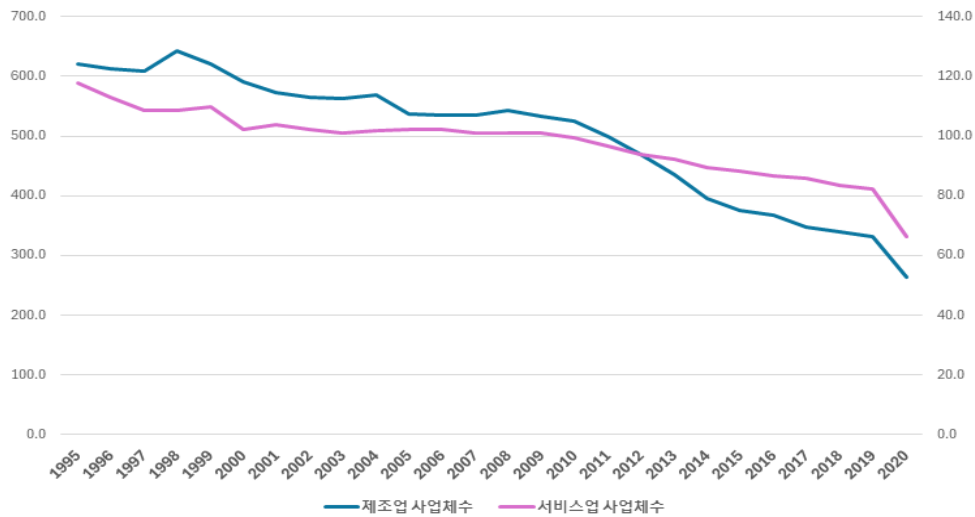
〈표 4-5〉 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종사상지위

산업분류	총종사자수	종사상지위				
		자영업자	무급가족	상용	임시및일용	기타
서비스업	788701 (100.0)	207804 (26.3)	29025 (3.7)	431400 (54.7)	80708 (10.2)	39764 (5.0)
도매 및 소매업	144474 (100.0)	66524 (46.0)	10230 (7.1)	52256 (36.2)	11913 (8.2)	3551 (2.5)
운수 및 창고업	59894 (100.0)	31141 (52.0)	347 (0.6)	24266 (40.5)	1131 (1.9)	3009 (5.0)
숙박 및 음식점업	114978 (100.0)	55142 (48.0)	15051 (13.1)	25229 (21.9)	18942 (16.5)	614 (0.5)
정보통신업	10312 (100.0)	1223 (11.9)	52 (0.5)	8196 (79.5)	646 (6.3)	195 (1.9)
금융 및 보험업	24342 (100.0)	748 (3.1)	15 (0.1)	14463 (59.4)	384 (1.6)	8732 (35.9)
부동산업	21173 (100.0)	5290 (25.0)	183 (0.9)	14133 (66.8)	755 (3.6)	812 (3.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4738 (100.0)	4109 (11.8)	202 (0.6)	28418 (81.8)	1767 (5.1)	242 (0.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3754 (100.0)	4263 (12.6)	331 (1.0)	23273 (68.9)	4547 (13.5)	1340 (4.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61121 (100.0)	-	-	49902 (81.6)	10980 (18.0)	239 (0.4)
교육 서비스업	85034 (100.0)	9679 (11.4)	467 (0.5)	64165 (75.5)	7911 (9.3)	2812 (3.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30136 (100.0)	3201 (2.5)	38 (0.0)	99504 (76.5)	16995 (13.1)	10398 (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747 (100.0)	5852 (28.2)	717 (3.5)	8489 (40.9)	2786 (13.4)	2903 (14.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998 (100.0)	20632 (43.0)	1392 (2.9)	19106 (39.8)	1951 (4.1)	4917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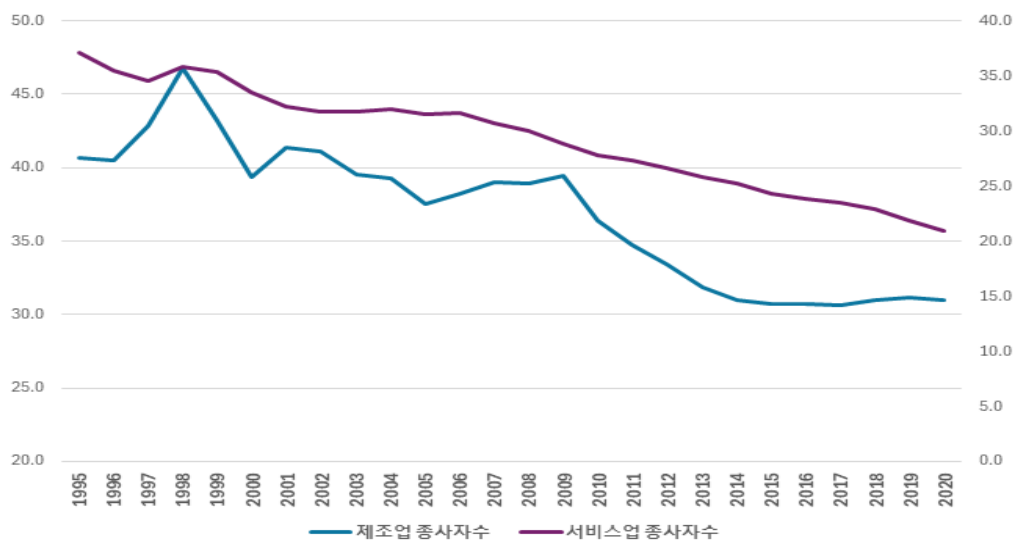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 당 부가가치

-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1995 년부터 최근까지 감소 추세
 - 2012 년까지 제조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급격히 하락했지만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는 완만한 하락세



〈그림 4-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체당 부가가치 추이



〈그림 4-2〉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당 부가가치 추이

- (사업체 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당 부가가치를 비교했을 때, 사업체 1 개당 부가가치는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현저히 높음
 - 2020 년 기준 제조업 사업체 수 1 개의 부가가치는 263.5 백만원인 반면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 1 개 당 부가가치는 66.2 백만 원
- (종사자 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사자 수당 부가가치를 비교했을 때, 종사자수 1 명당 부가가치도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높음
 - 2020 년 기준 제조업 종사자 수 1 명의 부가가치는 31.0 백만원인 반면 서비스업의 종사자수 1 명당 부가가치는 21.0 백만 원

〈표 4-6〉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단위 당 부가가치

연도	사업체수		종사자수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1995	620.8	117.7	40.7	37.1
1996	612.5	112.8	40.5	35.5
1997	608.5	108.5	42.9	34.6
1998	641.9	108.4	46.8	35.9
1999	620.6	109.9	43.3	35.3
2000	590.6	102.4	39.4	33.5
2001	573.2	103.8	41.4	32.2
2002	564.0	102.1	41.1	31.8
2003	563.5	100.9	39.6	31.7
2004	567.8	101.8	39.3	32.0
2005	536.4	102.3	37.5	31.5
2006	535.6	102.3	38.3	31.6
2007	535.6	101.2	39.0	30.7
2008	543.3	101.0	38.9	30.1
2009	532.4	100.8	39.4	28.8
2010	525.0	99.5	36.4	27.9
2011	498.4	96.5	34.7	27.3
2012	468.2	94.0	33.5	26.7
2013	435.2	92.1	31.9	25.8
2014	395.7	89.6	31.0	25.2
2015	375.2	88.1	30.8	24.4
2016	366.7	86.6	30.7	23.8
2017	346.8	85.8	30.7	23.6
2018	340.2	83.6	31.0	22.9
2019	331.5	82.1	31.1	21.8
2020	263.5	66.2	31.0	21.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22년 기준)

■ 서비스업 부가가치 상승 업종 (2015~2022)

- 최근 8 년간 경북의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국 추세보다 크게 상승,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액 증가율은 전국보다 하회
 - 경북 총부가가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8% 상승, 증가폭이 전국의 서비스업 비중 증가치(1.0% 상승)보다 4.5%p 상회
 - 서비스업 부가가치액 연평균 증가율은 경북 2.5%로, 전국(2.8%)보다는 0.3%p 하회
- 2015 년 대비 경북의 부가가치 비중 상승 서비스업종은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4.8%)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4%) > 금융 및 보험(+0.4%), 정보통신(+0.1%) 순으로 공공부문 서비스업 비중이 큰 폭 증가
 - ※ (전국의 비중 상승 업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8%) > 금융 및 보험(+1.4%) > 정보통신(+0.8%),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0.3%) 순
- 2015~2022 년 서비스업의 연평균부가가치 증가율이 높은 업종은 공공 행정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6.3%)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4.8%) > 금융 및 보험(3.2%), 정보통신(3.1%)의 순
- 서비스업 부가가치액은 2020 년 코로나 사태 때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세 회복
 - 코로나 19 발생 시점인 2020 년 숙박 및 음식점업(-19.6%), 운수 및 창고업(-12.2%),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7.3%), 부동산업(-5.5%) 등의 부가가치액이 전년대비 크게 감소하며 이들 업종이 경기 하락에 특히 취약

〈표 4-7〉 경북·전국 서비스업 및 세부 업종별 부가가치(실질) 비중(2015~2022)》

구분	경제활동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p)	2015~2022	
										비중 증가치 ⁷⁾	연평균 증가율 ⁸⁾
경북	서비스업 전체	36.8 (3.5)	37.4 (4.2)	38.5 (1.4)	39.8 (2.4)	40.4 (2.5)	41.2 (-1.3)	41.1 (3.8)	42.6 (4.8)	5.8	2.5%
	도매 및 소매업	9.2 (4.2)	8.7 (-1.2)	8.9 (3.3)	8.7 (0.5)	8.6 (0.7)	8.6 (-1.6)	8.3 (0.8)	8.2 (3.2)	-1.0	0.8%
	운수 및 창고업	6.8 (4.4)	6.6 (1.4)	6.8 (4.3)	6.7 (1.0)	6.6 (1.6)	5.9 (-12.2)	6.1 (6.8)	6.3 (9.7)	-0.4	1.6%
	숙박 및 음식점업	4.6 (0.9)	4.6 (3.0)	4.5 (-0.7)	4.6 (4.6)	4.6 (3.5)	3.8 (-19.6)	4.0 (9.5)	4.4 (15.3)	-0.3	1.7%
	정보통신업	3.6 (-1.6)	3.6 (2.4)	3.5 (-0.5)	3.6 (4.5)	3.7 (5.2)	3.9 (3.0)	3.9 (4.6)	3.8 (2.3)	0.1	3.1%
	금융 및 보험업	7.6 (4.6)	7.4 (1.1)	7.5 (2.8)	7.6 (4.4)	7.5 (1.4)	8.0 (4.6)	8.1 (4.9)	8.0 (3.5)	0.4	3.2%
	부동산업	11.4 (2.0)	11.1 (1.6)	10.9 (-1.2)	10.6 (-0.3)	10.5 (2.0)	10.1 (-5.5)	10.1 (4.0)	9.6 (-0.3)	-1.8	0.0%
	사업서비스업	13.2 (4.8)	12.0 (-4.9)	12.1 (2.0)	12.2 (2.8)	11.9 (0.2)	12.0 (-0.5)	11.7 (1.7)	11.8 (4.9)	-1.4	0.8%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6.9 (6.3)	19.5 (20.5)	19.6 (1.7)	19.8 (3.5)	20.0 (3.8)	21.7 (6.9)	21.4 (2.1)	21.7 (6.5)	4.8	6.3%
	교육 서비스업	12.1 (0.7)	11.6 (-0.1)	11.7 (1.9)	11.5 (0.6)	11.4 (1.6)	11.3 (-1.7)	11.5 (5.7)	11.3 (2.6)	-0.8	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2.9)	8.4 (8.3)	8.5 (2.0)	8.7 (5.3)	9.2 (8.2)	9.3 (-0.3)	9.3 (4.4)	9.5 (6.4)	1.4	4.8%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6.5 (4.4)	6.4 (3.6)	6.2 (-2.2)	6.1 (1.2)	6.0 (0.0)	5.6 (-7.3)	5.7 (5.1)	5.5 (1.5)	-1.0	0.2%
전국	서비스업 전체	61.2 (3.0)	61.3 (2.8)	60.9 (2.5)	61.3 (3.7)	61.9 (3.4)	62.0 (-0.7)	61.6 (3.8)	62.2 (4.1)	1.0	2.8%
	도매 및 소매업	13.4 (3.6)	13.3 (2.2)	13.3 (2.5)	13.1 (2.2)	13.1 (3.3)	13.0 (-1.2)	12.7 (1.0)	12.6 (3.7)	-0.7	2.0%
	운수 및 창고업	6.1 (2.4)	5.9 (0.3)	5.9 (2.8)	5.9 (3.5)	5.8 (1.9)	4.8 (-17.4)	5.0 (6.6)	5.2 (9.0)	-0.8	0.6%
	숙박 및 음식점업	4.0 (1.7)	4.0 (4.4)	3.9 (-0.5)	3.9 (4.1)	3.9 (3.8)	3.2 (-18.0)	3.2 (2.2)	3.6 (18.3)	-0.3	1.5%
	정보통신업	7.7 (0.9)	7.9 (5.2)	7.9 (3.0)	8.0 (4.5)	8.1 (4.6)	8.5 (4.2)	8.6 (5.1)	8.5 (3.5)	0.8	4.3%

7) 22년 비중 -15년 비중

8) 부가가치액의 연평균증가율

전국	금융 및 보험업	9.5 (7.5)	9.4 (1.8)	9.5 (4.0)	9.7 (5.6)	9.7 (3.7)	10.7 (9.5)	11.0 (6.8)	10.9 (2.8)	1.4	4.9%
	부동산업	13.1 (1.7)	13.2 (3.5)	13.2 (2.2)	13.1 (3.2)	12.8 (1.4)	13.2 (2.4)	12.9 (1.2)	12.4 (0.1)	-0.7	2.0%
	사업서비스업	15.5 (5.1)	15.3 (2.1)	15.2 (1.6)	15.3 (4.3)	15.2 (3.0)	15.2 (-1.2)	15.1 (3.4)	15.0 (3.2)	-0.5	2.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3 (-10.1)	10.3 (2.6)	10.3 (-4.8)	10.3 (-2.6)	10.3 (-0.2)	10.7 (-5.2)	10.6 (5.4)	10.5 (-2.4)	0.3	3.2%
	교육 서비스업	8.8 (1.3)	8.7 (1.2)	8.6 (2.0)	8.5 (1.6)	8.3 (1.8)	8.3 (-1.5)	8.4 (5.1)	8.2 (2.5)	-0.6	1.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 (4.8)	7.1 (7.3)	7.4 (6.2)	7.6 (7.4)	8.1 (9.6)	8.2 (0.7)	8.4 (6.6)	8.7 (6.8)	1.8	6.3%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0 (-2.4)	5.0 (2.7)	4.8 (-2.1)	4.7 (1.9)	4.6 (1.4)	4.2 (-9.8)	4.2 (4.4)	4.3 (7.1)	-0.7	0.6%

주 : 1. 서비스업 전체의 비중은 총부가가치대비 비중
2. 괄호() 안은 부가가치액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제2절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역내총생산 개선 효과

- 경북 제조업 부가가치 1.0%p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 0.5% 증가
 - 서비스업 1.0%p 증가 시 지역내총생산 0.3% 증가하여 제조업이 지역경제 성장에 더 크게 기여
- 연간 총산출량⁹⁾ 중 제조업 비중은 62.9%, 서비스업 비중은 23.0%
 - 제조업 부가가치 1.0% 개선 시 약 5,600 억 원의 총생산 개선 효과 발생
 - 서비스업 부가가치 1.0% 개선 시 약 3,170 억 원의 총생산 개선 효과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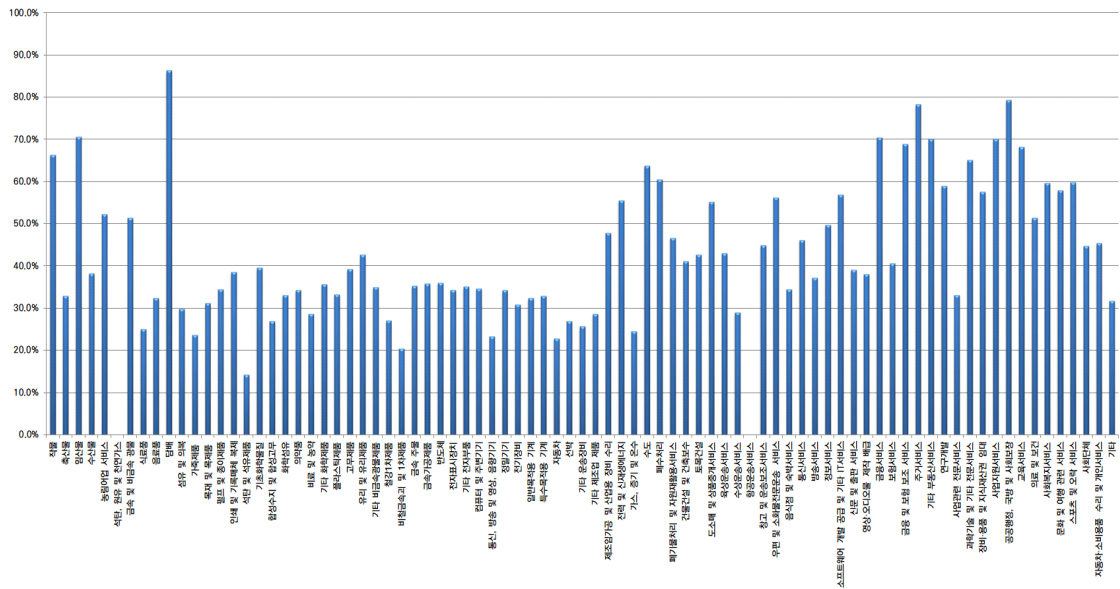
〈표 4-9〉 경북의 산업별 평균 부가가치율(%)

산업	부가가치율	산출액
농림어업	52.1%	9,336,612
광업	25.7%	365,516
제조업	33.2%	168,949,939
서비스업	51.3%	61,753,466

- 농림어업 평균 부가가치율¹⁰⁾은 52.1%, 제조업 33.2%, 서비스업 51.3%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은 높지만 산출액 비중은 낮은 수준, 또한 고용의 질적 수준이 떨어져 회전율이 높고 업종 간 경쟁이 치열(수요는 제한적)
 - 서비스업종 중 부가가치율은 높은 업종은 금융서비스(70.4%), 주거서비스(78.3%), 부동산서비스(70.2%), 공공행정(79.3%) 등

9) 산출량은 해당 지역 경제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며 지역내총생산은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환산한 것을 의미

10) 부가가치율은 총 산출액에서 중간 소비를 제외한 순가치율의 비율을 의미하며 해당 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그림 4-3〉 경북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3절 제조업 40% 유지 당위성

1. 고용 유지(장기근무 가능)

- 서비스업은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므로 국가차원의 노동법 개정이나 최저임금 제도의 강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직접 개선 어려운 상황
 - 제조업은 고용유지 기간이 서비스업에 비해 길고 안정성이 높아 기술혁신, 자동화 지원, 직업교육 등을 통해 고용유지 역할이 큰 산업
 - ※ ESG행복경제연구소가 국내 시총 200대 기업(2021년 기준)을 대상으로 직원의 근속 연수를 조사한 결과 평균 9.5년, 이중 상위 10개 기업은 20.2년으로 평균 근속연수의 두 배가 넘고 상위 10위권 기업은 모두 제조업
 - ※ 2019년 기준 제조업 평균근속연수 7.7년, 서비스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 3.4년, 사업지원서비스업 5.1년, 보건 및 사회복지업 4.6년,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5.6년 등
- 출처 :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EC3610Y
- 제조업은 상용직 등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가 많으며, 특히 전자통신, 자동차, 금속가공, 기계 등 지역의 주력업종이 지역 고용의 상당 비중 차지
 - 경북은 지역 주력산업 기반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그에 따른 청년인구·우수 인재 유치를 도모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
 - ※ (종사자 상용직 비중) 2022년 기준, 전산업 62.0%, 제조업 84.1%, 서비스업 54.7%
 - ※ (업체당 상용직 종사자 수) 전산업 2.3명, 제조업 7.1명, 서비스업 1.8명
 - ※ (제조업 상용직 종사자 업종별 비중)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13.2%, 자동차 및 트레일러 12.0%, 금속가공 10.3%, 1차금속 9.9%, 기타 기계 및 장비 8.8%
 - ※ (제조업종별 업체당 상용직 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26.4명, 1차금속 22.5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18.1명, 자동차 및 트레일러 15.7명, 전기장비

13.3명

○ (서비스업 고용의 질적 한계) 서비스업은 업태상 영세자영업이 많고 경기·트렌드에 민감하여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에 한계

- (고용 형태) 지역 서비스업체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자영업자·무급가족 형태가 각각 53.1%, 61.0%이며, 임시 및 일용은 각각 8.2%, 16.5%

※ (서비스업전체 고용) 상용직 54.7%, 자영업자 26.3%, 임시및일용 10.2%, 기타 5.0%, 무급가족 3.7%로, 상용직 비중이 과반이상이지만, 업체당 1.8명꼴에 불과

- (경기/트렌드에 민감) 서비스업은 경기변동 및 트렌드에 따라 사업체의 창·폐업률이 높아 고용의 질과 안정성(지속성) 떨어짐

※ (사업체 업력) 5년 초과, 제조업 77.6%, 서비스업 61.3% / 3년 이하, 제조업 10.3%, 서비스업 22.4%

〈표 4-10〉 경북 산업분류별 폐업·창업사업체 수 및 업력별 사업체 수(2023년 12월)

산업분류	현재 사업체수	폐업 사업체수	창업 사업체수	업력별 사업체 수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농업, 임업, 어업	3638 (100.0)	4	3	37 (1.0)	399 (11.0)	677 (18.6)	2525 (69.4)
광업	184 (100.0)	2	0	1 (0.5)	9 (4.9)	19 (10.3)	155 (84.2)
제조업	25413 (100.0)	23	37	267 (1.1)	2347 (9.2)	3090 (12.2)	19709 (77.6)
전기, 가스, 증기업	3405 (100.0)	2	13	81 (2.4)	860 (25.3)	1512 (44.4)	952 (28.0)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756 (100.0)	1		2 (0.3)	58 (7.7)	127 (16.8)	569 (75.3)
건설업	16830 (100.0)	14	11	93 (0.6)	1516 (9.0)	2253 (13.4)	12968 (77.1)
서비스업	198724 (100.0)	433	1358	8886 (4.5)	35533 (17.9)	32417 (16.3)	121888 (61.3)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서비스업 사업체 업력 5년 초과) 도소매업 64.2%, 숙박·음식점업 51.4%, 정보통신업 42.8%

※ (서비스업 사업체 업력 3년 이하) 도소매업 20.7%, 숙박·음식점업 32.0%, 정보통신업 43.1%

〈표 4-11〉 경북 서비스업 업종별 폐업·창업사업체 수 및 업력별 사업체 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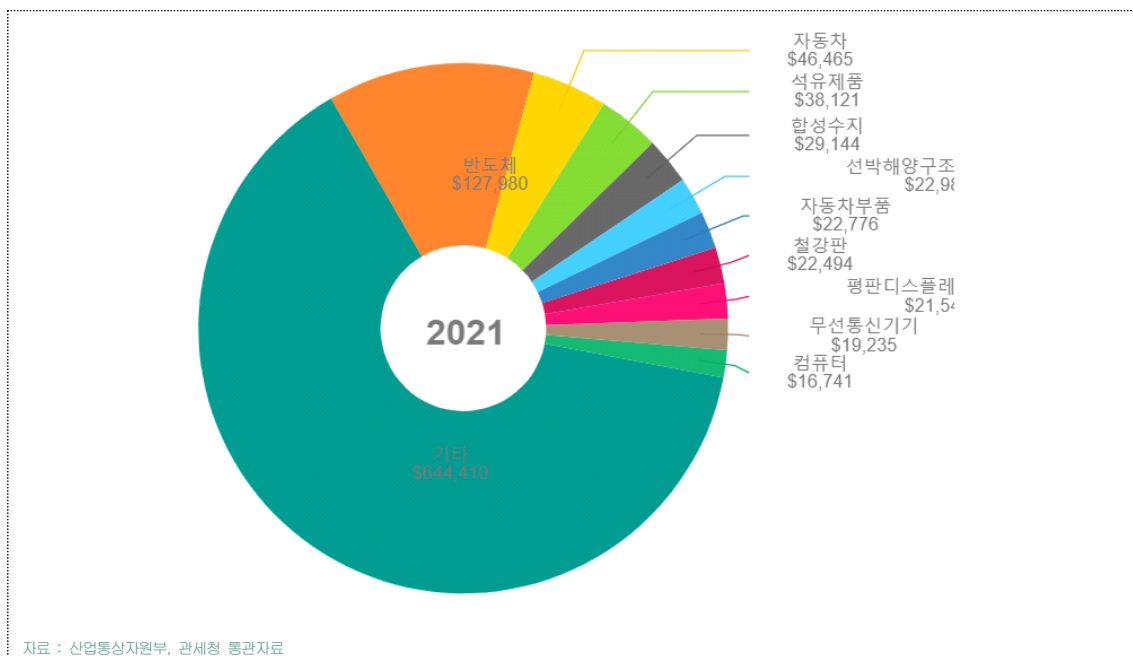
산업분류	현재 사업체 수	폐업 사업체 수	창업 사업체 수	업력별 사업체 수 비중(%)			
				6개월 이하	6개월 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도매, 소매업	6567 5	130	378	4.1	16.6	15.2	64.2
운수, 창고업	1238 4	15	21	1.0	10.3	15.7	72.9
숙박, 음식점업	5374 4	201	643	7.3	24.7	16.6	51.4
정보통신업	1734	4	55	15.7	27.3	14.1	42.8
금융, 보험업	909	0	2	1.7	7.2	10.3	80.9
부동산업	1224 2	5	19	1.3	9.1	17.6	72.0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5566	5	24	2.9	12.8	16.1	68.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4566	5	14	2.0	11.2	17.0	69.7
행정, 국방, 사회보장 서비스업	618	0	1	0.3	2.9	19.4	77.3
교육 서비스업	9404	21	59	4.1	17.2	17.8	6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017	3	7	0.9	5.1	18.6	75.4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5729	18	43	5.7	24.2	19.8	50.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110 6	26	92	3.4	18.5	16.8	61.3
자가 소비 생산활동	30	0	0	0.0	6.7	20.0	73.3

주 : 2023년 12월

자료 : 국가통계포털

- (제조업의 전후방 연관효과) 경북의 주력산업인 전자통신, 철강, 자동차부품 등은 벨류체인상 매우 다양한 업종과 연관되어 생산유발효과 등 산업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으로, 지역 경제산업 및 일자리 창출의 버팀목
 - 관련 제조업뿐만 아니라, 농림어업, 광업, 서비스업을 망라한 산업 연관효과
- (4 차 산업혁명 대응) 제조업은 4 차 산업혁명기술 사업화의 토양/매개체, 특히 경북 주력산업인 ‘소부장’ 분야는 핵심 중간재이자 최종재
 - 경북은 전자통신 등 주력업종의 생산 기반(대기업 등) 유출 등으로 산업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 제조업 디지털전환, 4 차 산업혁명기술(AI 등) 융합 등에 기반한 지역 산업구조전환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
 - 경북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저부가가치 단순/중저위기술 업종의 영세중소기업으로, AI 등 4 차 산업혁명기술 확산에 따른 다수 업종의 사양화, 대량 폐업, 일자리 소멸 우려 가중

-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고도화)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 서비스업 육성은 관련 제조업의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과 연동되는 양상
 - 경북은 지역 제조업 구조전환/고도화를 통해 이와 연계한 사업서비스업 육성 및 관련 플랫폼 구축을 견인하는 방안
 - ※ 경북은 사업자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등 비교적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업 분야에서 서울(강남) 등 수도권에 비해 매우 열악한 수준
 - ※ 자동차산업 등은 '제품개발(4차 산업혁명기술 기반)-실증 및 서비스플랫폼 구축'을 패키지로 하여 사업구조 개편이 전개되는 양상(예, '소카' 등 공유경제서비스 연계)
- (수출산업) 경북은 지역내총생산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평균을 상회, 대구경북권 수출을 견인하는 생산기지로서, 제조업 구조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무역의존도) 2021년 기준, 우리나라 70.1%, 경북 72.0%, 대구 24.8%
 - 경북의 주력산업인 전자통신(반도체), 철강, 자동차부품 등은 대표적 수출산업으로, 글로벌 밸류체인 및 소비시장에 기초한 부가가치 창출을 견인



〈그림 4-12〉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2. 경북은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성장이 효과적

- 제조업 중심 서비스업과 서비스업 중심 경제 모델은 각 지역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따라 상이
- 서비스업 중심 성장 전략
 - 서비스업은 노동 집약적이며 유연성이 높은 특성으로 고용창출에 유리,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전환은 고용률 향상과 지역내 소득분배에 긍정적 영향
 - 경북지역 관광연관산업과 소비지출 확대는 서비스 부문 확대로 지역내 소비 활성화 유도 가능, 다만 제한된 시장규모와 경쟁심화로 창업-폐업 회전율 높은 업종 비중이 대부분 차지(도소매, 음식점, 사업서비스 등)
 - 인력 교육 및 기술 개발 투자로 서비스업 구조개혁과 기술 혁신 필요
-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 성장 전략
 - 제조업은 지역경제와 산업 및 국가산업 기술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 따라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
 - 제조업의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스마트 팩토리 및 스마트 물류 등의 서비스 분야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이러한 서비스는 제조업의 경쟁력 촉진

■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 사례

- 독일의 루르광역단체(Ruhr Area):
 - 루르광역단체는 독일의 산업 중심지로, 제조업이 강조되는 지역, 철강 및 금속 가공, 화학 산업 등이 강점, 이 지역의 제조업 비중은 국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
- 미국의 실리콘 벨리:
 - 실리콘 벨리는 정보기술 및 전자제품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제조업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나 최근에는 연관 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제조업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

○ 일본의 아이치 현(愛知県):

- 아이치 현은 자동차 및 기계 제조업이 중심인 지역으로, 제조업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제조업 비중이 국가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제조업이 특화된 지역에서는 해당 산업의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조업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이 적절

-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와 기술력이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지원
- 국가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며, 지속적인 산업 변화와 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조정



제 5 장

경북 제조업 대전환 방향

제1절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석

제2절 추진 방향

제5장 경북 제조업 대전환 방향

제1절 12대 국가 전략기술 분석

1. 반도체·디스플레이

■ 강점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포항 나노융합기술원과 같은 혁신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구축
- 포항 차량용 전력반도체 구축사업 선정(22. 05. 13)
 -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은 와이드밴드갭(Wide Band Gap, WBG) 소재 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차세대 차량용 전력반도체 상용화 지원
-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23. 07. 20)
 - SK 실트론, 엘지이노텍, 원익큐엔씨 등 344 개의 핵심 소재부품 업체 보유
 - 6 조 2 천억 원의 투자가 진행 중이며, 구미 5 단지에는 2 단계 지역에는 새로운 부지가 조성
 - SK 실트론 2 공장에는 반도체 생산 공정 필수소재인 웨이퍼 표면의 이물질을 세척하기 위해 사용되는 초순수 국산화(1 단계-설계시공분야) 정식 공급을 시작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 단계 초순수 국산화를 위해 SK 실트론 구미 2 공장에 하루 2,400 톤 규모의 초순수 국산화 실증플랜트 구축을 추진
 - SK 실트론 구미 3 단지 본사에는 공장 증설이 한창이고, 엘지이노텍은 반도체 기판 등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올 하반기에만 5 천 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
 - 금오공대, 구미전자공고, 포스텍, 경북대, DGIST, 대구가톨릭대 등 지역의 교육 기관들이 반도체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2031 년까지 2 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할 계획

■ 약점

- 인프라 및 투자 한계 : 특화단지는 상당한 인프라 투자와 자본이 요구
- 전자·통신산업 경쟁력 약화(기업 유출, 대기업 투자 약화 등) 및 구조 전환 지체
- 고급 인재 확보의 어려움 :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방 도시인 구미에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한계, 반도체 공학 인력 부족
- 공급망 불안정성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제적인 무역분쟁이나 팬데믹과 같은 글로벌 이슈와 원자재 공급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유지의 어려움 상존

2. 이차전지

■ 강점

-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3. 07. 20)
 - 포스코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연산 25 만 톤 규모의 산업용 가스 생산 설비 착공
 - 포스코는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내 양극재 공장을 운영 중인 포스코퓨처엠 등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산업가스를 공급할 계획
 - 포스코는 이번에 신설되는 ASU 와 대형 저장탱크를 통해 연간 양극재는 10 만 톤, 순 니켈은 5 만 톤, 전구체는 11 만 톤까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
- 포스코 홀딩스는 2 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보유
 - 광물자원 → 원료 → 중간소재 → 최종재까지 전 단계의 밸류체인 구축
 - 광산/채굴 : 호주(리튬광산), 아르헨티나(리튬염호), 뉴칼레도니아(니켈광산), 서호주(니켈광산), 탄자니아(흑연광산), 호주(흑연광산), 포스코(콜타르: 포항제철 부산물로 획득)
 - 원료 가공 : 포스코그룹 자회사인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 SNNC, 포스코 MC 머티

리얼스, 피앤오케미칼 등에서 원료 가공

- 이차전지소재 생산 : 포스코퓨처엠에서 생산, 양극재와 음극재 모두 생산 가능

○ 이차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클러스터 블루밸리국가산단 착공

-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총 사업비 국비 489 억 원을 들려 2025 년 상반기까지 준공 예정
- 진흥시설인 '종합정보지원센터', 연구시설 '자원순환연구센터', 기업집적단지(블루밸리, 영일만 1·4 산단)로 구성

■ 약점

- 셀, 모듈, 시스템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인프라(기업, 연구소) 미흡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기술적 자립도가 낮고 주요 부품의 해외 의존도가 큼
- 2 차전지 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부족하며 고급 인재 유치의 어려움

3. 첨단모빌리티

■ 강점

- 미래차 산업 육성 기반 마련 및 부품산업 고도화
 - 경북의 자동차 부품산업은 1,800 여 개의 기업이 위치해 전국 3 위권 규모
 - 경주·경산·영천을 중심으로 차체/샤시, 엔진·구동장치, 조향장치 등 필요한 대부분 부품을 생산하여 완성차 업계에 납품
 - 전기차 육성 거점 구축(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프로젝트(경산 미래차 분야) 추진
 - 자동차부품산업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
 - 스마트팩토리 선도모델 발굴 및 확대

○ 경북형 도심항공교통(G-UAM)

- 경북은 뉴딜사업의 그린모빌리티 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자동차부품 기업, 연구소 등의 인프라가 매우 뛰어나 친환경 모빌리티에 대한 여건은 매우 우수함
-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26 년) 예정, 대구·경북 신공항의 입지 활용
- 신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육성 연구 및 드론 관련 사업 추진 중

■ 약점

○ 경주/영천 자동차부품 구조전환 필요

- 자율차 관련 산업기반 구축 미약
- 완성차 중심의 수직 계열화로 완성차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성
- 부품기업의 영세성으로 기업 내 기술개발 인프라(자금) 부족, 전문 연구인력 확보 제한, 기술개발 역량 저하
- 선진국 대비 핵심기술개발 투자 규모 약소
- 해외선진 기술보유 기업에 비해 집중적인 R&D 기반 취약

○ UAM 취약점

- UAM 에 대한 직접적인 기업체나 연구소 등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
- 23 개 시군구의 지역별 산업의 종류, 기업체수, 인프라 등의 차이가 큼
- 지역을 대표하는 UAM 강소기업 부재
- 전후방 관련 기술의 경쟁력 취약
- 우수인력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업체 전문인력 수급 불안정
- 기존 모빌리티 업체의 UAM 사업 다각화의 성공 불확실성
- 국제 인증에 대한 대응책 부족

4. 차세대 원자력

■ 강점

- 경주 SMR 국가산단 유치(23. 03. 15)
 - 3,966 억 원을 들여 2030 년까지 경주 문무대왕면 일원에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150 만㎡ 규모의 SMR 국가산단 유치
 - 대기업을 포함한 225 개 기업에 275 만㎡의 입주 수요 면적을 확보
 - 2024 년 정부예산 중 경북 원자력 관련 예산 전년대비 692 억 원 대비 524 억 원 증가(76%)한 1,216 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
 -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606 억 원, 용융염원자로 기술개발사업 73 억 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350 억 원, 중수로해체기술원 설립 57 억 원, 방사성폐기물분석센터 설립 39 억 원,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설립 45 억 원 포함
 - 원자력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위한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설립사업 30 억 원, SMR 제조기술 관련 기업 지원을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설립사업에 2 억 원이 신규 편성돼 2024 년 본격 추진 전망

■ 약점

- 경북 경주에 SMR 원자로를 만드는 제조기업 부재
- 창원(두산에너지빌리티)에 제조기업 집중
-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상용화에 다소 시간 소요

5. 첨단 바이오

■ 강점

-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허브 조성과 그린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인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584 억 원 투입
- 동부권역(포항 중심)은 국가 대형 과학기술 장비(방사광 가속기, 극저온전자현미경)를 연계한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를 중심으로 신약개발 생태계 조성
 -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건립(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458 억 원 / '19~'23)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바이오 5 대 핵심분야* 중 식물을 활용한 동물용 의약품 기업 지원을 위해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운영
 - 그린백신 실증지원센터 건립(식물기반 동물용 의약품제조, 177 억 원 / '18~'22),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구축(벤처창업 육성지원, 350 억 원 / '22~'29), [신규]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 조성(150 억 원 / '23~'25)
- 북부권역(안동 중심)은 경북도청 신도시 인근에 있는 '경북바이오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비임상에서부터 제품화에 이르는 백신산업 전주기 지원체계구축'
 - 백신 개발 기업의 임상 시료 및 위탁 대행 생산을 위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21년 7 월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승인 후 운영, 기업의 백신 개발 비임상 기술지원을 위한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는 '23년 9 월 준공 목표
 - 동물세포 실증지원센터 구축(백신 임상시료 생산, 1,029 억원 / '17~'21),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건립(백신 비임상 기술지원, 278 억원 / '19~'23)
 - 백신 생산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교육을 위한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센터」는 '24년 3 월 준공 목표
 - 백신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백신공정 인력양성, 240 억 원 / '22~'26), [신규]첨단 백신공정기술센터 건립(항원라이브러리 비축, 320 억 원 / '23~'27), [예정]국가 백신은행 건립(백신의약품 저장·비축, 400 억 원 / '24~'28)

■ 약점

- 첨단의료 관련 산업기반 미약
- 바이오헬스 관련 인력 부족 및 역외 유출
- 기초연구와 후방산업 중심의 육성으로 인한 전방산업에 종속된 저부가가치 중심의 산업구조적 한계
- 규모의 영세성으로 기업 성장이 불안정, 제품화 성공률 한계
- 원천기술 확보 부족으로 인한 선진국대비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첨단바이오산업 제품화 기술 수준 및 제품군 미흡
- 영세한 기업구조로 인한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부재로, 개발기간 장기화 및 제품화 성공률 저하
- 지역내 우수인력의 지속적 역외 유출에 따른 고급인력의 한계로 기술력 확보 미흡
- 선진국 대비 낮은 기술력으로 인해 고부가가치의 제품이 아닌 저기술 수준의 제품 위주 구성
- 지역의 바이오·의료산업을 선도할 특화분야별 글로벌 기업의 부재와 이에 따른 전후방산업의 연계 파급효과가 미비

6. 우주항공·해양

■ 강점

○ 항공

- 영천, 구미 등을 중심으로 항공부품 및 서비스 관련 인프라 구축 추진(스마트 항공물류 단지 조성, 한국항공교육원 유치 및 종합항공훈련센터 건립)
- 경항공기산업(영주), 신소재·해양에너지산업(포항) 등 인프라 구축 중
- 항공전자 및 정비기술(MRO) 관련 우수한 연구 및 전문인력과 관련 교육기관 보유(포스텍 등)

○ 경북 해양자원 현황

- 바다골재('09~'18 년간 누적 채굴량), EEZ 가 절반가량 점유(현재 중단)
- 석유가스(전국 3 개 분지) : 경북은 울릉분지 입지
- 가스하이드레이트 : 경북(광구 6-1)심해 부존 가능성 높음

○ 해양심층수 : 동해안 9 개소(약 66.94 km²) 취수해역, 국내 2 위 취수면적(울릉 현포)

○ 경북 해양에너지 현황

- 동해안 : 파력(영일만, 울릉도), 해상풍력 온도차발전유리
- 해상풍력: 전국 총 5 개소(72.5MW) 운영중, 국내 해상풍력 잠재량은 33.2GW(투자 효과 약 88 조원)
- 조류,파력 : 조류 부존량총 1000MW 추정, 적정개발규모 약 470MW ※자료 : KIOST, 해양에너지/해양자원 R&D 전략
- 해수온도차 : 해양심층수-표층수열교환에 따른 에너지 발생으로 강원도 고성 설치('14 년, 200KW 급)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울진), 포항, 울릉도센터 보유(지자체에서 해양과학기술원 3 개소 보유 유일)
- 해양 소재 확보 및 자원화 인프라 구축(심해 해양바이오뱅크 건립 추진, 고품질 준실시

간 해양 그리드 데이터 서비스 체계 개발, 해양 무인시스템 통합 실증 시험평가 기술개발)

- 환동해 블루카본 인프라 조성(환동해 블루카본 센터건립)

■ 약점

○ 항공

- 경북의 낮은 항공산업 경쟁력
- LIG 넥스원, 한화시스템의 항공전자 및 통신사업 외 국내외 다양한 항공관련사업 수행 경험 부족으로 독자적인 항공기술 개발 역량 부족 및 낮은 항공 산업 특성 이해도
- 항공산업 OEM, 운항사와 관련 기업, 인프라가 경남 및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대구경북 내 기체·엔진 등 다양한 항공기 관련 사업 수행 기업 부족

○ 해양자원

- 연안도시 인구감소, 고령화 가속화
- 대형여객선 취항 여건 미흡
- 해양자원에너지 관련 전문교육기관 부재
- 해양신산업 생태계 인프라 부족
-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감소 및 자연재해 증가
- 국제적으로 해양환경 및 안전규제 강화
- 해양개발에 대한 경쟁심화 및 반대여론 상존

7. 수소

■ 강점

- 수전해 수소 생산(울진) : 수소생산실증 인프라 구축(울진 원자력활용 수소생산실증 및 국가산단 조성)
 - 국내 5 개 시·군(경주시 기장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가동중인 원전 24 기 중 가장 많은 7 기를 보유한 지역
 - 원전 7 기가 몰려 있는 북면 바로 옆 죽변면 후정리 일대 면적 158 만㎡를 수소산업단지부지로 선정되면서 국내 수소생산 대기업들 입주 예정
- 수소연료전지 발전(포항) :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통과
 - 1,918 억 원투자, 참여기업 30 개사, 3,600 개 일자리 창출, 경제적 효과 3,570 억 원
 -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 지역최초로 한국수력원자력의 19.8 MW급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준공돼 상업운전을 시작
 - 연료전지 기업 (주)FCI(에프씨아이)가 연간 50 MW 규모의 연료전지 완제품 생산공장을 추진 중
 - 2030 년까지 블루밸리 산단 내 연료전지 부품 및 소재 관련 기업 30 개사를 입주시키는 등 포항 전체에 70 개사를 유치해 수소연료전지 집적단지를 완성할 계획
 - 수소환원제철소를 건설하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블루밸리 국가산단까지 16.7 km의 수소배관 구축 계획

■ 약점

- 울진과 포항에서 수소 생산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구축 중이지만 수소연료전지의 활용처에 대한 발굴 필요
 - 교통부문, 산업용에너지, 분산형발전 시스템, 수소연료전지 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 활용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

8. 사이버보안

■ 강점

- 경북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포항 TP) : 과기정통부 지정
 - 경북지역 중소기업의 정보 해킹에 관련한 컨설팅부터 웹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조치, 전문교육, 기술 세미나 전 과정 무료로 지원

■ 약점

- 수도권과의 과학기술, 디지털 경쟁력 격차가 심각
-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인력 부족 및 전문적 훈련에 한계
- 경북은 규모가 영세한 기업 비중이 높아 사이버보안에 취약하고 사이버보안과 관련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제한적

9. 인공지능

■ 강점

- 구미, 경산,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 라인에서 AI 산업 생태계에서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활용될 수 있는 ICT, SW, 첨단 소재부품 관련 산업이 지역 주력산업으로 발달
- 제조업은 경북지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제조업 기반에 AI를 융합할 수 있는 실증지로서의 강점도 보유
- 지역 대학 및 다양한 혁신기관, 지역 내 유치된 해외의 혁신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한 SW 및 융합산업 연구 및 AI 관련 R&D 수행 역량 보유
- 경북 TP 경북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운영

■ 약점

- AI 활성화와 정책선도를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적,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나 그 동안 판교 등 수도권 위주의 IT 기업 집적, 각종 클라우드 데이터센터와 같은 핵심 장비 등이 수도권 위주로 구축되어 있어 지역 AI 정책 선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광주에서는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집적단지 등을 추진하고 있어 경북은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인프라로 AI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
- 지역의 산업이 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보니 상대적으로 SW 관련 산업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공지능(AI)은 HW 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SW 부문이기 때문에 SW 에 관한 지역의 산업기반과 혁신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음

10. 차세대통신

■ 강점

- 5G 고도화(5G-Adv)(구미)
 - 구미는 5G 테스트 베드,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등 메타버스 산업단지를 위한 집적된 인프라를 보유하여 5G 특화망 기반 메타버스 산업단지 구축
- 고효율 5G·6G 통신부품(구미)
 - 전력반도체용 8 인치 GaN(질화갈륨) 에피웨이퍼 생산기업인 (주)에이프로세미콘 유치
 - GaN 반도체는 실리콘 반도체와 견주어 고전압·고내열성이 우수해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각광
 - 전력반도체, RF 반도체, LED 조명 등 응용 분야가 다양해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 하지만 GaN 에피웨이퍼의 경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주)에이프로세미콘은 독일 엑시트론사로부터 설비기를 들여와 2025년까지 GaN 에피웨이퍼 생산능력 확대

■ 약점

- AI, ICT 등 빠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 활용에 필요한 인력 부족 및 전문적 훈련 한계
- 지역 지능화 분야 중소·벤처 중심의 ICT 혁신은 지역 경제·사회 전반으로의 성장과 확산 한계

11. 첨단로봇·제조

■ 강점

- 포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 관련 연구 수행
 - 농업용, 해양용, 소방용로봇, 수중로봇 관련 기술 보유
 - 포스코와 로봇공동연구센터 개소를 통해 제철소 로봇 활용 및 유지보수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진행
- 지역에 특화된 로봇산업 육성(안동-농업로봇)

■ 약점

- 관련 중소기업의 자체 핵심기술 개발 능력, 전문인력, R&D 투자 여력 등 부족
- 자율주행로봇(AMR) 분야의 전담지원 기능 부재로 산학연 역량 결집 구심 역할 애로
- 대기업 중심의 앵커기업 부재, 관련 산업의 선도 역할 부재

12. 양자

■ 강점

- 포스텍에는 양자 관련 연구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포항 나노융합기술원은 양자 관련 인프라를 보유

-
- 포스코그룹의 AI 기술과 프랑스 파스칼社, 한국 큐노바社의 양자컴퓨터 기술 접목하여 양자컴퓨터 기술개발 가속화
 - 수소, 이차전지소재 등 기술개발에 활용

■ 약점

- 국가 핵심 과학기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 양자기술의 경우 중앙주도로 추진 중인 과제들이 많고 연구 인력 및 연구비도 서울, 수도권, 대전에 집중

제2절 추진 방향

■ 경상북도 산업혁신 기본 방향 및 추진체계

- (기본방향) AI 융합 제조공정 고도화와 맞춤형 주문·생산 및 제조 플랫폼 기반 부가 서비스 창출
 - 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 구조를 유지하며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 등을 통해 저성장에서 고성장으로의 제조업 전환 필요
 - 고수익 제조업 모델 육성하고 첨단산업, 주력산업 중심 부가가치 향상이 목표
- (추진체계) 중앙·지방의 식견을 함께 가진 산학연 전문가(분야별 8명 이내) 선정하고 산업혁신 8대 분야의 산업혁신 방향과 예비타당성 과제 발굴
- 지속적·정기적인 피드백을 통해 산업 발전 방향 및 과제 관리·조정

■ 산업혁신 8대 분야

- 인공지능(AI)
 - 인공지능(AI)은 경북의 제조업 중심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핵심 동력으로, 지역 내 스마트 제조와 첨단기술 적용 가능성이 높음
 - 구미, 포항 등의 주요 도시에서 IT와 제조업이 활발히 접목되고 있 AI 기술 적용을 통해 생산성 증대 및 기술 개발의 새로운 동력 확보
- 반도체
 - 반도체는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클라우드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인 기술로, AI 기술과 모바일 기기, 자동차, 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산업
 - 경북은 국가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반도체 특화단지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포항 2차 전지 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융합 가능성을 확대

○ 2 차전지

- 경북은 이차전지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술을 바탕으로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의 글로벌 허브로 성장할 가능성 보유
- 이차전지와 ESS 와 관련된 연구개발(R&D) 인프라 확충과 관련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필요

○ 로봇

- 구미와 포항을 중심으로 로봇 부품 생산과 조립 공정을 특화한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로봇 제조와 기존 자동차 부품, 전자 부품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가능

○ 미래모빌리티

- 4 차 산업혁명 기술과 친환경 정책 강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등 새로운 교통 수단의 부상은 경북의 전통적인 자동차 및 전장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큰 기회
-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의 수요 증가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미래차 기술 개발 경쟁 속에서 경북은 핵심 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강점
- 경상북도는 국내외 선도적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과 전장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장의 제조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차세대 에너지

- 경상북도는 영덕과 울진을 중심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단지 조성 청정 에너지 허브 발전 가능성
- 포항을 중심으로 수소연료전지 제조 및 응용 기술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으며 경주의 원자력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규모 SMR 원자로를 개발하여 차세대 에너지 시장 진출 가능성 확대

○ 바이오·식품

- 농업 생산지와 가까운 가공시설을 구축하여 신선한 원재료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식품 생산 체계 확립할 수 있으며 지역 농업 자원을 기반으로 한 특산물 브랜드화 가능
- 경북은 스마트 농업 확대와 데이터 기반 농산물 생산 및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효율

성을 높이고 고품질 원재료 공급 가능

- 방산·섬유
 - 경상북도는 전통적인 섬유 제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
 - 특히, 탄소섬유 및 기능성 섬유 기술은 지역 제조업과 융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 가능



〈그림 5-1〉 분과위원회 구성(안)

경상북도 경제산업 구조분석 및 발전방향

인쇄 2024년 4월 03일 | 발행 2024년 4월 03일

발행인 유철균 | 발행처 경북연구원

주소 (36849)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읍 도청대로 201 2층

TEL. (054) 650-9000 FAX. (054) 650-9010

인쇄 경북프린팅(☎053-252-7900)

〈비매품〉

이 보고서의 내용이 반드시 대구경북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